

2012 청소년상담연구 · 169

#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

— CYS-Net · 학교 · 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책임 연구자 : 정 현 주

공동 연구자 : 최 수 미

김 하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69**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 - CYS-Net · 학교 · Wee Project를 중심으로 -**

인 쇄 : 2012년 12월

발 행 : 2012년 12월

발 행 인 : 구 분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1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509-8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 : CYS-Net·학교·Wee Project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정현주 ; 공동연구자: 최수미, 김하나.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p. ; cm. -- ((2012) 청소년상담연구 ; 169)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됨  
ISBN 978-89-8234-509-8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94330

학교 폭력[學校暴力]  
청소년 문제[靑少年問題]

334.3-KDC5  
362.7-DDC21

CIP2012005845

## 간행사

올해는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온 힘을 다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더 이상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운영되고,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인 CYS-Net과 Wee 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경찰이나 외부의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개입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이란, 개인이 살아가면서 평생동안 부딪히게 되지만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공공 및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학교폭력문제와 관련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 포괄적이면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된 지원체계가 더욱 요구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지역사회 안전망들의 연계가 충실히 작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어떤 요인들이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요인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발표이후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정, 연계와 관련한 실태조사, 심층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각 기관간 연계기능에 초점을 두어 발전적인 연계를 위한 방향모색을 시도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연계의 방향과 지침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본원의 정현주 박사, 부산대학교의 최수미 교수, 본원의 김하나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그리고 Wee 프로젝트의 선생님들, 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응해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CYS-Net과 학교, Wee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더욱 활발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으로 신음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원장 구본용



## 초록

2012년 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학교장,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부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대상 조치의 강화, 그리고 부모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개입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실행의지를 천명하였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요인, 가정환경적인 요인, 학교요인, 또래관계의 문제,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전 사회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학교 단일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각 관련 기관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보다 더 강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기관간 연계의 기능과 실행에 초점을 두어 연계의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저해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들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지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실제적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CYS-Net, 학교, Wee 센터 등 학교폭력 관련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업무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의뢰와 업무문의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피/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및 지원, 특별교육, 예방교육, 연계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및 지역의 각종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기관별 연계실태를 살펴보면, 각 기관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중심기관들인 학교와 CYS-Net, 학교와 Wee 프로젝트는 서로 활발히 연계하고 있었으며, 세 기관뿐 아니라 경찰, 정보통신

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적극적인 연계를 벌이고 있었다. 그 중 CYS-Net과 Wee 프로젝트는 상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특히 CYS-Net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개입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CYS-Net과 Wee 프로젝트 두 기관끼리는 서로 연계를 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성격이 유사한 두 기관간 업무의 중복과 경쟁적 구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 연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요인, 관리자요인, 조직요인이 기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배경요인들이 상호작용요인들과 함께 연계의 선순환을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계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들이 보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헌신, 인식의 공유, 전문성과 같은 개인요인, 지역의 기관장이나 학교장, 생활지도담당 부장교사 등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연계에 대한 인식이 연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다양한 노력들이 중요한 조직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관리자, 조직요인과 같은 기본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 연계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오면서 연계에 관한 인식들을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이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 기관, 특히 학교의 연계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타기관들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연계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기관간 밀접한 관계, 매칭사업 실시 등이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즉시적으로 투입되어 성공경험들을 쌓아나가는 노력이 이후의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CYS-Net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들에 의해 연계를 위한 발판들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저해요인으로는, 학교의 폐쇄성, 학교와 Wee 프로젝트의 연계에 대한 인식의 미비, CYS-Net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 업무과부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위기시스템의 미가동 등을 들 수 있다. 연계저해요인들을 극복하고, 연계의 접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성공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계의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성공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운영기준에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이 적시되고, 각 부처별 협의아래 연계를 위한 지침이 각 기관별로 운영지침, 훈령 등의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과 연계를 담당할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그리고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존재함으로 인해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그치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향후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보다 상세한 정책적 제언과 이의 수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2. 연구의 과제 ..... 4

## II. 이론적 배경 | 5

- 1. 학교폭력 개념정의와 실태 .....5
- 2. 학교폭력 관련 제도 .....8
- 3. 조직 간 연계 활동 .....54

## III. 연구방법 | 61

- 1. 문헌연구 .....61
- 2.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1차) .....62
- 3.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2차) .....65
- 4. 실태조사 .....67

## IV. 연구결과 | 69

- 1. 실태조사 결과 .....69
- 2.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29
- 3. 연계활성화를 위한 방향 .....142

## V. 요약 및 논의 | 146

### 참고문헌 | 149

### 부 록 | 157



## 표

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차 개정사항 .....	22
표 2. 학교폭력 정책 변천 과정 .....	24
표 3. 제1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	26
표 4. 제2차 기본과제 세부계획 .....	28
표 5. 117 신고센터 개선사항 .....	32
표 6. CYS-Net 위기개입 시 학교폭력 개입 절차 .....	43
표 7.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업무처리 모형 .....	52
표 8. 현장전문가 FGI 질문 구성 .....	63
표 9.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64
표 10.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65
표 11. 연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내용 .....	68
표 12. 응답자 특성[CYS-Net] .....	70
표 13. 소속 기관 특성[CYS-Net] .....	71
표 14. 학교폭력 접수 사례 수 [CYS-Net] .....	72
표 15. 학교폭력 접수 사례 유형 [CYS-Net] .....	72
표 16.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보낼 경우) [CYS-Net] .....	73
표 17.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받을 경우) [CYS-Net] .....	73
표 18.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연계 단계 [CYS-Net] .....	74
표 19.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보낼 때) [CYS-Net] .....	74
표 20.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받을 때) [CYS-Net] .....	75
표 21.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CYS-Net] .....	76
표 22.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다중 응답) [CYS-Net] .....	76
표 23.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 [CYS-Net] .....	77



표 24. 연계활동의 어려움 [CYS-Net] .....	77
표 25.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보낼 때) [CYS-Net] .....	78
표 26.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받을 때) [CYS-Net] .....	78
표 27.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에 기대하는 지원 [CYS-Net] .....	79
표 28. Wee센터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	79
표 29.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CYS-Net] .....	80
표 30. Wee센터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	80
표 31.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의 강점 [CYS-Net] .....	81
표 32.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 .....	81
표 33. 학교와의 연계 발생 단계 [CYS-Net] .....	82
표 34. 학교폭력 연계 시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CYS-Net] .....	82
표 35.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	83
표 36. 학교와의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 .....	83
표 37.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CYS-Net] .....	84
표 38. 연계 활성화 요건 [CYS-Net] .....	85
표 39. 응답자 특성 [교사] .....	86
표 40. 소속 기관 특성 [교사] .....	87
표 41. 학교폭력 발생 건 수 [교사] .....	88
표 42. 학교폭력 발생 유형 [교사] .....	88
표 43.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 [교사] .....	89
표 44.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연계 단계 [교사] .....	89
표 45.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 [교사] .....	90
표 46.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교사] .....	90
표 47. 연계활동의 어려움 [교사] .....	91



표 48.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 [교사]	92
표 49.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교사]	92
표 50. Wee센터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교사]	93
표 51.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의 강점 [교사]	93
표 52.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교사]	94
표 53.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 [교사]	94
표 54.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에 기대하는 지원 [교사]	95
표 55. CYS-Net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교사]	95
표 56.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의 강점 [교사]	96
표 57.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교사]	96
표 58.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교사]	97
표 59. 연계 활성화 요건 [교사]	98
표 60. 응답자 특성 [Wee센터]	99
표 61. 소속 기관 특성 [Wee센터]	100
표 62. 학교폭력 접수 사례 수 [Wee센터]	101
표 63. 학교폭력 접수 사례 유형 [Wee센터]	101
표 64.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보낼 경우) [Wee센터]	102
표 65.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받을 경우) [Wee센터]	102
표 66.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보낼 때) [Wee센터]	103
표 67.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받을 때)[Wee센터]	103
표 68.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Wee센터]	104
표 69.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다중 응답) [Wee센터]	104
표 70.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 [Wee센터]	105
표 71. 연계활동의 어려움 [Wee센터]	105



표 72.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보낼 때) [Wee센터]	106
표 73.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받을 때) [Wee센터]	106
표 74.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에 기대하는 지원 [Wee센터]	107
표 75. CYS-Net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107
표 76.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Wee센터]	108
표 77. CYS-Net으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108
표 78.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의 강점 [Wee센터]	109
표 79.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Wee센터]	109
표 80. 학교폭력 연계 시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Wee센터]	110
표 81.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110
표 82. 학교와의 연계 시 어려운 점 [Wee센터]	111
표 83.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Wee센터]	111
표 84. 연계 활성화 요건 [Wee센터]	112
표 85. 연계 필요성 인식	119
표 86. 연계활동 참여	120
표 87.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	120
표 88. 기관장의 연계 인식 및 역할 수행	121
표 89. 조직의 연계 인식	122
표 90. 조직의 연계 지원 및 참여	123
표 91.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요인	125
표 92.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126
표 93. 학교와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127



## I 그림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 체계도 .....	31
그림 2. 컴넷 체계도 .....	37
그림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모형(금명자 외, 2006) .....	38
그림 4.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박효정 외, 2006) .....	39
그림 5. CYS-Net 체계도 .....	41
그림 6.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체계도 .....	42
그림 7. Wee 프로젝트의 체계 .....	47
그림 8. Wee 센터의 주요업무 .....	48
그림 9. Wee 센터 One-Stop 서비스 체계도 .....	49
그림 10. 연구 절차 .....	62
그림 11. 기관별 연계 필요성 인식 정도 .....	118
그림 12. 연계활동 역량 및 참여정도 .....	119
그림 13.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 .....	120
그림 14. 기관장의 연계 인식 및 역할 수행 정도 .....	121
그림 15. 조직의 연계 인식 정도 .....	122
그림 16. 조직의 연계 지원 및 참여 정도 .....	123
그림 17.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	124
그림 18.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	125
그림 19. 학교와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	126
그림 20. 연계 성공요인 흐름 .....	134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숱한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의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지난해 말 학교폭력을 건디다 못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온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실행을 위해 위 법의 개정을 서둘렀다. 3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사건 발생시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였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이나 학교만의 폐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성교육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의료와 법률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전 사회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와 실질적인 협조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운영되고,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다루게 된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Wee 센터와 CYS-Net에서는 상담실시, 경찰이나 외부의 법률·의료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CYS-Net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위 업무에 더하여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교육과 가족관계개선사업, 학교에서의 또래상

담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CYS-Net은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총체적인 생활을 고려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구축된 지역사회 안전망이다.

지역사회 안전망이란 개인이 살아가면서 일생동안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이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 포괄적이면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된 지원체계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CYS-Net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의 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상담, 주거, 학습 및 교육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여가문화, 치료 및 보건, 법률 지원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CYS-Net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유에 도움을 주며, 가해학생들을 상담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해 왔던 노력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본 대책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강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먼저, 그동안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형성된 네트워크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네트워크 기능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종합대책에서 그리고 있는 네트워크가 보다 실질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 위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요인들을 강화하고 저해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의 중심축인 CYS-Net과 학교, Wee 센터, 경찰청간의 연계를 위한 실무지침과 역할분담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이번 대책에서는 CYS-Net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선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CYS-Net이나 Wee 센터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하게 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지침 또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CYS-Net과 Wee 센터 모두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인력구성의 문제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연계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무엇보다 학교의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연계지침들이 세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대책 발표이후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업무들이 진행되는지,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해결의 방식이나 경로들은 어떠한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정과 처리절차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간 연계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연계의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저해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들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의 과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CYS-Net, 학교, Wee Project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세 기관의 연계 핵심요인을 알아본다.
  - 1-1. 세 기관 간 연계의 강화요인을 알아본다.
  - 1-2. 세 기관 간 연계의 저해요인을 알아본다.
  
2.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세 기관의 연계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본다.
  - 2-1.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한 세 기관별 연계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본다.
  - 2-4.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한 세 기관 간 연계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 개념정의와 실태

또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지나친 혹은 우발적인 장난이라고만 여겨졌던 학교폭력 문제는 Olweus가 1978년 『Aggression in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라는 책을 저술한 것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촉발되었다(Smith, Cowie, Olafsson & Liefoghe, 2002). Olweus는 bullying에 대해 ‘사람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될 때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Olweus, 1991),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인 행동들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공격, 욕하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술궂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 협박, 조롱하기, 비방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파괴하는 것, 그리고 집단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Smokowski & Kopasz, 2005). 학교폭력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이라고 정의되며, 첫째, 공격적이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harmdoing) 둘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마지막으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Cassidy, 2009; Olweus, 1996).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특히 힘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Rivers and Smith(1994)는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적 행동이 재발되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학교폭력을 건디지 못한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전사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건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대두되었고,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 때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를 말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은 학교폭력을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동료학생, 선배, 아는 사람 및 전혀 모르는 사람 등)로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을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

한편 미국,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에서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나라마다 학교폭력 발생률에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3%-10%에서 27%까지 추정된다(Kokkinos & Panayiotou, 2004). 특히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빈번한 학교폭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가장 낮게는 아일랜드의 한 샘플에서 1.9%, 가장 높게는 몰타공화국의 19%로 나타나고 있다(Nansel et al., 200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에서 거의 50%(김용태 외, 1997)의 발생률을 보여,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박효정 외(2005)의 연구에서는 41%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또래괴롭힘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고 있어, 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이 2010년 총 3,560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1.8%, 가해율은 11.4%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주관 하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559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 559만 명 중 25%인 139만 명의 학생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고, 이들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조사 참여학생의 24.5%가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렇듯 학교폭력이 한 사회 또는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맥락과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되면서, 학교폭력을 보다 더욱 복잡한 사회적 과정이 포함된 집단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물리

적, 제도적, 공동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체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윤철경 등, 200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교폭력의 문제해결 또한 연관되어 있는 각 개인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와 맥락들 특히 청소년이 속해있는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총체적인 생활을 고려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에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 2. 학교폭력 관련 제도

### 가. 지역사회와 학교폭력

#### 1)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영향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상실되는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지역사회에 범람하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던 본래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소멸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이제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집단문화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지연령화, 흥포화, 집단화, 그리고 지능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단순한 탈선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 발간된 청소년백서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2005년에 발생한 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의 경우 21.4%가 학교내에서 발생한 반면, 71.8%는 학원 혹은 그 주변, 놀이터, 공원 등 학교밖에서 발생하였고, 2006년은 전체 청소년 폭력 중 20.45%가 학교내, 79.55%는 학교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품갈취의 경우, 2005년 학교내 13.3%, 학교밖 86.7%로 나타났고, 2006년의 경우 10.01%는 학교내, 89.99%는 학교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 즉 지역사회의 폭력수준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 요소로서, 청소년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윤철경 등, 2006). 청소년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구체적인 생활의 근거집단이며, 교육의 장이며(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이연, 2006에서 재인용),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의 장(場)이다. 여기서 '사회화'란 청소년이 장차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사회의 통합(integration)과 안정(status quo)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을 익히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의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화'를 의미한다(이민희 외,

2006).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은 지역사회 문화의 질적·양적 수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감 및 공동의 도덕적 원리에 토대해서 지식, 가치, 규범 등의 전수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의 감소와 지역사회의 해체, 유해환경의 만연 등으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그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조홍식, 2000; 이연, 2006에서 재인용). Coleman(1988)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들이 만연하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근린지역사회와의 결합도 및 지역사회의 조직화 정도, 매스컴의 폭력에 대한 묘사, 지역사회의 이동성, 지역사회의 법규나 규범, 지역사회에서 약물이나 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 등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owell & Bilchik, 1995;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4에서 재인용). 즉, 매스컴에서의 폭력이 지역사회의 폭력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적·공격적 행동의 발생률을 높이며, 지역사회 거주자의 이동이 빈번할수록 범죄행동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친밀도가 낮거나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낮은 경우에 청소년 비행 비율이 높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감독이 적을 경우에 기물 파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은 10대 임신이나 학교 중퇴, 폭력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부추기고 심지어 미화하는 갖가지 형태가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빨리 도달해야 하며, 강력한 힘과 권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팽배하고 있어 성장기의 학생들도 죄책감과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병환, 2010). 학교폭력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개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 공포심, 대인 기피증, 우울증,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연계)기능 강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환경들은 학교폭력을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인 위험요인과 반면에 학교폭력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이 성장하는 발달 환경으로서 지역사회는 청소년 사회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는데 필요한 좋은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긍정적 기능을 지닌 지역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Benson, 1996; 이민희, 임영식, 이진숙, 2003에서 재인용). 첫째, 성인들, 조직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특별한 행동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통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둘째, 매일 개인들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기회의 곳으로, 셋째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행동들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종교집단, 청소년 기관, 기업체, 건강관리자, 재단들을 포함한 조직들과 기관들 그리고 체계들이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다(Eccles & Gootman, 2002; 이민희, 임영식, 이진숙, 2003에서 재인용).

이상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Hurrelmann은 청소년 폭력 대책과 같이 청소년을 위한 전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또래 등의 비제도적인 지원자들과 교사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학, 심리학, 사회사업, 청소년 관련 공공 분야 등의 제도적 지원자들로 구분하고, 여기에 청소년 관련 사회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원 단체, 청소년 여가 활동단체, 그리고 제도적, 비제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 상담 단체 등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Hurrelmann, 1995; 이민희, 임영식, 이진숙, 2003에서 재인용). 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기관간 연계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과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은 한 개별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전 사회공동체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는 상당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개별기관이 지닌 서비스 혹은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시설, 의료서비스, 그리고 법률서비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 단일차원으로는 충족시키기 힘들다. 이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연계 또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제가 없는 경우, 단일 지원체제만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도 지난 수년간 아동과 청소년 분야, 그리고 가족과 교육 등의 여러 부문에서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지원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별적이고 분산된 지원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서비스 부문 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개별 지역사회가 프로그램 디자인과 운영을 맡아 하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Christopher, 1996). 이미 많은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이들 기관 간에 업무 조정과 공동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Kunesh와 Farley(1993)는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기관은 공동협력을 통해서만 분산적이기 보다는 통합적이며, 일차원적이기 보다는 다차원적이며, 일시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Cunningham에 의하면,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은 개별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소모하게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Cunningham & Mitchell, 1990).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청소년 폭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립해야 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도식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총체적인 생활을 고려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에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기반의 위기학생 안전망인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며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학교재학이나 위기의 정도 여부를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정보공유, 실무자간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하며, 한편으로는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상자 누락 및 사각지대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두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무총리실,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11)

## 나. 국외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

### 1) 영국

영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학생품행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는 비행청소년이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 복지와 연관되어 진행된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로 온전히 집중된다. 이는 학교폭력이 개별학생이나 개별학급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全)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정책의 핵심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이 되고, 학교들이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박효정 외, 2006).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학교폭력 및 비행, 무단결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있다(금명자 외, 2005).

첫째, The Education Act 1996(Dep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는 지역교육청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학생, 퇴학 및 자퇴생에 대한 교육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The Education Act 1997(Dep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통해 학교가 품행이 나쁜 학생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장이 입학식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품행이 나쁜 학생은 징계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고도 교칙을 범할 경우, 교칙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Dep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제정. 학생지도(단, 체벌은 금지) 및 학생의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정책이 학교행정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넷째,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Home Office)에서는 학부모와 경찰에게 학생 지도 및 단속의무 부여조항을 두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he National Healthy School Standard(DfEE, 1999)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Whole-School Approach를 주창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교장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등 학교 내의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자는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각 주체들을 위한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정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었다.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집행은 교장을 주축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수립된 정책은 학급모임과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되며,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알려진다.

즉, 영국정부는 이러한 법령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개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학교 측에 폭력에 대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학생의 출결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며, ③ 문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을 설치하고, ④ 문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방교육청, 경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 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연대서약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교칙을 준수하고, 본교의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결석 및 지각을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매주 일기를 읽고 서명할 것, 숙제를 마치도록 할 것, 학부모 관련회의에 참석할 것, 출석 및 시간엄수를 할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16세 이하 자녀가 반사회적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모(보호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의 상담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동행, 감시 등 학생에 대한 통제조치를 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불응하거나 어길 시에는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야간통행금지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통행금지 위반학생을 발견하면 귀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집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시설에서 일단 보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무단결석학생(16

세 이하)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데려다 줄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제도에서는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그리고 경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령을 통해 이러한 각 기관과 관련 인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처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각 학교이며,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은 학교에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민간단체나 상담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 기금을 제공한다. 학교폭력 관련 단체들은 정부에 조사 및 연구결과를 제공하며, 학교에는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프로그램은 함께 운영한다.

영국의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정책관리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특히 학교 교직원들의 주인의식이 학교폭력 정책의 결과적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교직원들의 주인의식은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정책수행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Glover et al., 1998).

## 2) 미국

미국 정부는 1994년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령(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술·담배·마약의 사용, 소유, 판매 등을 예방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방지 및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학교 교사 및 직원, 학부모, 학생, 검찰 및 경찰, 법원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있다(금명자 외, 2005).

학교폭력 방지 및 약물남용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예로 The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MPP)를 들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지역(캔자스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MMP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기 위해 대중매체, 학교, 부모, 지역조직, 건강정책의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소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지

역사회와 정부 관료들은 약물남용 예방서비스와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지역사회 조직에서는 약물남용 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 실행 그리고 기금 및 지역사회 자원동원을 주요한 활동으로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역사회의 기업체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MMP를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적극노력하고, 법조계는 약물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중매체는 약물사용의 부정적 결과를 널리 홍보하는 작업을 맡는다. 이외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교회, 기타 조직들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MMP 실시결과,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음주도 상당한 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약물사용 예방에 관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대화도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1차, 2차, 3차 유형으로 나뉜다. 1차 예방은 예방적인 접근으로 학교, 기관이나 사회정책을 통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2차 예방은 학교부적응의 초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3차는 재활의 의미에 보다 가깝다(전권배, 2007).

이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방안, 학교의 학급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개입방안, 학교 전체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미국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 법무·비행예방국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 발표한 보고서인 ‘Guide for Implement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se’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폭력의 예방을 위한 7가지 원칙과 7가지 예방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다(이민희 외, 2006).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폭력의 위험요소들을 알아야 한다. ②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동들은 뚜렷이 폭력위험을 감소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은 지속성, 신뢰성,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청소년 폭력의 위험요소들에는 최대한 일찍 개입하여야 한다. ⑤ 개입은 무엇보다도 복합적 위험요소들에 노출된 개인과 지역사회에 우선되어야 한다. ⑥ 복합적 위험 요소에의 대응은 지역사회 내 구성원의 연합된 네트워크가 투입되어야 한다. ⑦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의 위험요소를 잘 인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요소에 노출된

개인과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입하며, 이때의 프로그램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결속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7가지 지역사회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예방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①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환경에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지역사회는 우리의 소중한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가지도록 의식화한다. ③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과 접촉한다. ④ 지역사회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⑤ 지역사회 내 가장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우선 집중한다. ⑥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장기적, 지속적 노력에 대한 약속을 확보한다. ⑦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잘 훈련된 자들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략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의 참여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 참여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결국 위 내용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식화와 다양한 인적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험요소에의 우선적 개입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신순갑, 2008).

OJJDP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을 들 수 있다. 이는 450개 폭력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별한 것으로,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학급, 학교 수준의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학급단위에서는 학급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것 등이 있으며, 학교단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학교폭력 예방위원회 결성, 학생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청사진 프로그램은 특히 다중체계 치료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폭력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청사진 프로그램들에서는 조기개입을 강조하며, 청소년기의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개입과 비행의 위험에 따른 분화된 개입방안으로 구체화되어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개입프로그램으로는 'Responding in Peaceful and Positive Ways(RIPP)' 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비폭력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행동의 상호작용적 영향, 개인 내 속성, 환경요소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Positive Adolescence Choice Training(PACT)' 은 12-15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폭력에 관련된 위험

에 대한 교육, 분노조절 및 친사회적 기술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다(남상임, 2008).

다음으로는 학급단위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먼저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RCCP)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적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며,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대규모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갈등해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하기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 자신의 문화적 배경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도록 장려하는 것, 편견을 알아차리고 그 편견에 맞서 그것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어나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법,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 갈등해소와 이를 위한 협상, 다양한 개성의 인정과 편견의 제거, 자기주장, 정서경험 등의 핵심적인 기술이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체 학교차원에서 전통적인 교과 학습의 기회와 더불어 사회적, 정서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RCCP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보면, 공격적인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공격에 이르게 하는 사고와 인지과정의 형태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자녀안심운동 협의회, 2003).

다음으로 유치원 이전부터 중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으로 Second Step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유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유치원 이전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6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에서는 감정이입, 충동통제, 분노조절을, 중학생용 프로그램에서는 폭력문제, 공감, 분노관리, 문제해결과 일상생활 현장에 대한 기술적용에 관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이고 중립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체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이 있다.

이에는 프로젝트 '성취(ACHIEVE)'가 있다. '성취'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다니

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전체 차원의 포괄적인 폭력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및 갈등해소와 관련된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적 진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시킬 것을 특히 강조한다. 프로젝트 '성취' 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은 교사와 교직원, 학교에 소속된 정신건강 전문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효과적인 행동관리와 긍정적인 기술지향적 학생 훈육을 위한 학교 전체 차원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나아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상의 실천과 지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프로젝트 '성취' 를 통해 학업중단율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체포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다. 국내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 1) 학교폭력 관련 제도

#### 가)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법률

##### (1) 학교폭력관련 법 제정 이전의 정책

학교폭력관련 법률의 제정은 2004년에 이루어졌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이민희 외, 2006; 박병식, 2001).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폭력추방, 청소년보호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책은 1995년에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1995년 12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폭력피해 신고함을 설치하고, 학교별 책임제를 강화하며, 학생선도 및 피해상담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제, 학교담당 검사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학교주변의 취약지역에 방범초소를 증설하고, 유해환경업소를 정화 및 단속하며, 우범학생 명단을 통보하고,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을 제시하였다(이장현, 우령, 2001). 이후,

1997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했으며, 2004년 학교폭력관련 법의 제정에 따라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 해당 업무가 이양되었다.

비록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추진되고,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각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어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고, 부분적 성과에 그쳤으며, 관계부처 간의 실무협약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박병식, 2001; 이민희 외, 2006). 즉, 중앙정부의 법·제도를 통한 단편적인 통제의 성격이 강하여 실제적 효과는 미약. 장기적 원인치료와 예방차원의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민희 외, 1998).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즉,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법’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고,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을 적용받는 식이었다(이민희 외, 1998).

관련시민단체의 요구 및 사회적 문제 부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의제가 대두되고, 열린우리당 임종석의원이 대표발의(2000.11.19)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정책의제를 형성하였고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정책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다(박정희, 2006). 이후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04년 7월에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었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은 의원입법 형식을 거쳐 제정되었다. 즉, 동법은 법률을 소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와 일선 학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방치를 우려한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조병인 외, 2006).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진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부서를,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및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실 구비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5년 주기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

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교폭력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2004년에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어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문용린, 이승수, 2010). 또한 본래는 소년사범의 영역에서 다뤄지던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대책법 제정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되었다(조병인 외, 2006).

그러나 최초 제정된 학교폭력법은 그 한계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학교폭력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원혜욱, 2004; 박병식, 2005; 김학일, 2005)와 학교폭력의 종류에 성폭력의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김학일, 2005; 이미경, 2005; 송태호, 2005). 또한 예방대책의 구체성성이 부족하고,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구상권 확보 조항이 없고, 민관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하고, 지역사회 연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박병식, 2005).

이러한 이유로 2008년 3월, 학교폭력법의 제6차 전부개정이 실시되었다. 동법은 이전에 5차에 이르기까지 개정이 되었지만, 이는 「청소년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들이 수정·변경되면서 일부 용어가 변경되거나 세부내용이 추가된 것이었다(문용린 외, 2009). 따라서 학교폭력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개정은 사실상 최초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법은 2008년 3월 6차 전부개정안부터 성폭력을 학교폭력 중 하나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폭행, 협박, 따돌림’ 으roman 정의되던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으로 폭넓게 정의하게 되었다(제2조). 아울러 가해학생이 부과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의 징계방안이 마련되었고,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동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제17조). 그리고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제9조),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4조).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8년 9월에 전부 개정되었다. 즉, 학교폭력 정의

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하며,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전담부서의 구성, 비밀의 범위 등이 개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학교폭력법 전부개정을 통해 여러 가지 주요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이후 학교폭력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김현철(2010)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현행 법적 처리의 문제점으로, 사업절차와 교육절차가 중복되어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용수(2010)는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 비용을 가해자가 지불할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제16조)에 있어,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며, 지급되는 금액이 적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재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문용린, 이승수, 2010).

학교폭력법은 2008년 전부개정 이후, 제11차 일부개정까지 총 3회의 개정을 거쳐 수정되었다. 특히 2012년 3월에 이루어진 제11차 개정안은 ‘(4)절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설명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12월에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 자살사건 이후,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했으며, 피해학생의 치료 비용에 있어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보상하고, 후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엄중화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었으며,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어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교원에

게는 가산점과 포상을, 학교폭력을 축소 혹은 은폐한 교원은 징계를 받도록 개정하여 법률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차 개정사항

구 분	기존 학교폭력법	제11차 개정사항
학교폭력 개념 (제2조)	·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 발생시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이버 따돌림’ 도 학교폭력으로 추가
추진체계 및 구성 (제7,8조)	·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교과부차관)	·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제10조의2)	· 시·군·구 단위 협의체 없음	· 시·군·구에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교육감 역할 확대 (제11조, 11조의2)	· 체계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재 · 학교폭력 전문기관 부재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사 기능 미흡	·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전국단 위 1회 포함) 실시 ·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 근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정보요청 (제11조의3)	·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 활용 불가능	·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경찰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가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제12, 13조)	· 자치위원회 운영 미흡 ※ 1교당 0.7회('11년 기준) · 자치위원회의 자료 요청권 부재	· 분기별 1회 이상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학교의 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학교장 책임강화 (제14조, (제20조의5)	· 학내 전담기구에 교감 미포함 · 학교폭력 인지 시, 적극적 대응 강제 규정 부재 ·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등에 근거 부재	· 학내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교원징계 및 인센티브 (제11조)	·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인센티브 근거 규정 부재	· 학교폭력 은폐, 축소 교원 징계 ·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포상
예방교육 (제15조)	· 매 학기 학생, 교직원 대상 실시	· 매 학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실시

구분	기존 학교폭력법	제11차 개정사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제1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상황 발생</li> <li>·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의견진술 기회 부재</li> <li>·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선보상 후 구상</li> <li>·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 강제 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 삭제</li> <li>·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li> <li>·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선보상 후 구상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지원</li> <li>·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조치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학부모의 이의제기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학부모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li> </ul>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과의 접촉금지</li> <li>· 10일 이내 출석정지</li> <li>·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규정 부재</li> <li>· 특별교육 실시</li> <li>·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재수단 부재</li> <li>·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조치 시행</li> <li>·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li> <li>· ‘출석정지’ 기간제한 없음</li> <li>·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li> <li>·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li> <li>·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추가 조치 가능</li> <li>·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시행</li> <li>·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제 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li> </ul>
정보통신망 이용 예방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li> <li>·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li> <l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통합관제 가능</li> </ul>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3. 13) 보도자료 p 3~4.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학교폭력법 및 동법률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를 주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이하 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학교폭력 정책은 학교폭력법의 개정과 함께 몇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학교폭력 정책 변천 과정

년도	담당부서	주요추진사업	법령변화	예산규모 (일반회계)
'05년	학교정책국 초중등교육정책과 (05 ~ '06.07)	·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초기시스템 구축	1차개정('05.3.24)	2.6억원
			2,3차개정('05.5.29)	
'06년	학교정책현안추진단 학교폭력대책팀 ( '06.08~'08.0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5대 중점 추진 과제 선정, 추진	4차개정('06.2.21)	2.6억원
'07년				2.4억원
'08년	교육복지국 학생건강안전과 ( '08.03~'08.07)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차개정('08.2.29)	8.17억원
			6차개정('08.3.14)	
	학교정책국 학생생활지도팀 ( '08.07~'09. 04)	·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09년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09.05~ )	· 연계시스템 확충 · 1차년도 성과분석 · 2차년도 계획수립	7차개정('09.5.8)	5억원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p 12.

1차 기본계획은 정부의 다음과 같은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있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했고, 학생 인권 및 상호존중,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또한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원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음란·폭력 영상물 등 유해 환경이 폭증하고 있으며, 폭력에 대해 학교, 사회, 가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조사 기관이나 대상, 시기에 따라 일관성이 떨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통한 한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범정부·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5년내 학교폭력을 25% 경감할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매년 5%씩 경감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목표에 따른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간의 연계적 운영 활성화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셋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넷째, 범정부·사회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러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정부는 5가지의 주요 추진과제 및 총 4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진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과는 달리, 학교, 교육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전문가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박효정, 정미경, 2006). 특히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단위학교별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추진하여, 현재의 학교폭력 추진체제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점과 학교, 교육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문용린 외, 2009). 각 주요 정책과 세부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학교폭력 대책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15대 중점과제에는 비행 학생별 대책, 학교 위험도 별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 관련 법령 개정, 학생·교원·학부모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문용린 외, 2009).

표 3. 제1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주요 추진 과제	과 제
▶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구성·운영</li> <li>■ 시도 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 전담 부서 운영</li> <li>■ 지역 단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운영 활성화</li> <li>■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li> <li>■ 경찰 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내실화</li> <li>■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의 지역사회 내 폭력예방 협력망 운영</li> </ul>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li> <li>■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li> <li>■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입체적 상담 지원</li> <li>■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보급</li> <li>■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시 및 추진 상황을 평가</li> </ul>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 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및 예비 교원 대상 연수 강화</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li> </ul>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치료 및 재활 지원</li> <li>■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다양화</li> </ul>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li> <li>■ 학교·학생 공동 주관 자율 활동 활성화</li> <li>■ ON=OFF LINE 상의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li> <li>■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li> <li>■ 범 사회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li> <li>■ 청소년·학생 복지 지원</li> <li>■ 대안교육 활성화</li> </ul>

\* 출처 : 박효정, 정미경(200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효과 평가 연구, p149~150.

이와 같은 추진과정을 통해, 제1차 기본계획은 몇 가지 추진성과를 가져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외(2009)와 문용린 외(2009)에서 분석한 주요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재정리해본다면, 제1차 기본계획으로 인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직 및 실행기구가 구성·운영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전술하였듯이

제1차 기본계획 이후 기획위원회(교과부), 지역위원회(시·도), 자치위원회(학교)가 조직되었고, 학교폭력전담부서(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 등의 실행기구가 구성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협력망이 형성되었다. 이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가 구성되고, CYS-Net 구축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르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 비해 범부처 간, 또한 정부·민간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강화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신고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확대하고, CCTV를 설치하며, 긴급전화(1588-7179) 설치,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등의 성과가 해당한다. 넷째, 단위학교 및 교육청의 학생상담기능이 강화되었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친한 친구 교실 및 Wee클래스 설치·운영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Wee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전문 상담망의 확충이 시작되었다. 다섯째,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시, 교육청평가·학교평가 등에 학교폭력 관련지표가 반영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보다 개방적으로 처리할 여건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다른 것이다. 일곱째, 가해학생의 선도역시 강화되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다양한 형태의 기소유예제, 보호관찰 학생 일대일 멘토링제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었다. 지역위원회의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정도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원연수에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교사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업무를 기피한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보호 역시 단위학교 차원의 징계나 단순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으며, 위탁기관들도 단기위주의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문용린 외, 2009).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비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 학교, 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연계체계가 미비하거나 활성화의 어려움 등, 정책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온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정책과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참여한 관계부처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강화, 둘째,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 적용과 지역단위 가피해학생에 대한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넷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단위 안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와 사도의 책무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과제별 세부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제2차 기본과제 세부계획

정책 과제	주요 추진 내용
▶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li> <li>■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li> <li>■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li> </ul>
▶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li> <li>■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li> <li>■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li> <li>■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li> </ul>
▶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li> <li>■ 학교상담망 확충</li> <li>■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li> <li>■ 정보공시 상세화 등 단위학교 책무성 제고</li> </ul>
▶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li> <li>■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li> <li>■ 피해학생 보호·지원체제 구축</li> <li>■ 선도·치유 기관 확충과 특성화</li> </ul>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 시스템 구축</li> <li>■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li> <li>■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li> <li>■ 또래상담 기능 강화</li> </ul>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li> <li>■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 조성</li> <li>■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li> </ul>

#### (4)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은 2012년 2월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대책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고,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 발표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새로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4대 직접대책과 3대 근본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대책은 1. 학교장, 교사 역할 및 책임 강화, 2.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 교육 확대 및 책무성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대책은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대책이 학교폭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근본대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대책들이다.

위의 학교폭력근절 대책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학교장, 교사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신속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사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교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조치가 가능하여 즉시 출석정지 실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실제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고, 위원의 연수를 실시해야하며,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sup>1)</sup>에서 심의하게 하여 신속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개최하여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은폐 시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은폐 발각 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할 예정이다.

이어서 담임교사의 경우, 역시 역할 강화와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먼

1)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학교폭력 문제 담당 전담기구

저 복수담임제를 도입하여 학기별 1회 이상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부모에게 통지하게 하였다. 학생 수를 고려하거나 학교장 판단 등을 통해 담임교사 추가 배치하고 정담임, 부담임을 정하여 업무를 분담하거나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이 가능케 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생활지도를 누적 기록, 관리하게 된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누적 기록·관리하고, 졸업 시 삭제하게 하였다. 단,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10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학교별로 생활지도전담팀을 구성하되, 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하여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하고, 교사 법률 상담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전담부서에 법률 전문가를 상근배치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계약직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며, 2012년 모든 중학교 Wee 클래스 설치할 계획이다.

#### ■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강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요한 영향력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폭력의 신고 및 조사체계가 개편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과부, 여가부, 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로 통합하였다. 신고센터는 시·도 광역단위에 설치되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Wee 센터에 설치되고(8개소), 도 지역에는 지역소재의 CYS-Net을 활용하여 설치될 예정이다(9개소). 하지만 종합대책에 의하면 설치기관은 Wee센터와 CYS-Net을 활용하지만, 운영기관은 경찰청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계부처간의 협조와 일선에서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에는 3~6명의 인력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연계,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청 및 상담센터는 최종 처리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단, 피해자가 학교에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미통보), 이후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 종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Wee 센터와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지원센

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스톱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는 상담 실시, 경찰, 외부 법률, 의료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조치 실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는 달라진 것으로, 운영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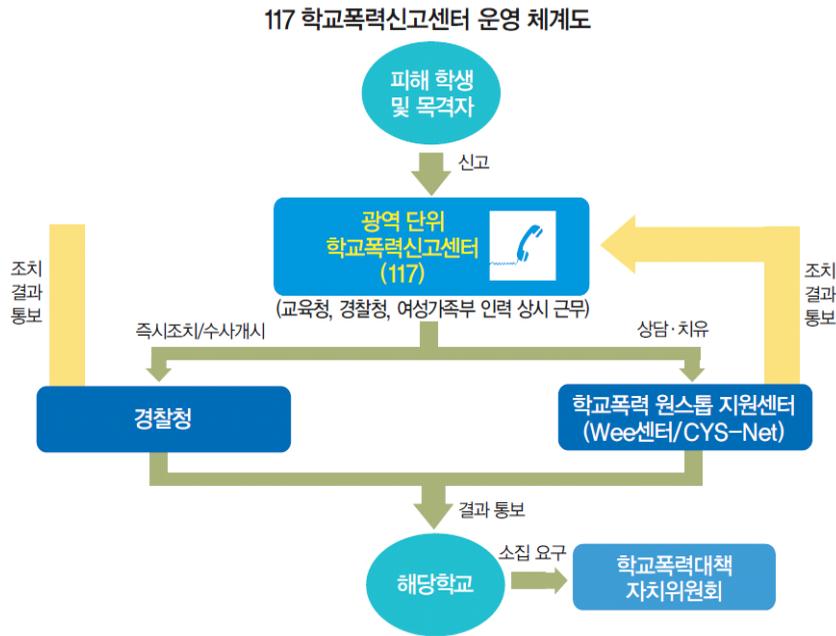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 체계도

\* 출처 : 대통령실(2012. 2. 21), 정책소식 110호, p 21.

종합대책 이전에도 경찰청의 117, 교육과학기술부의 1588-7179, 여성가족부의 1388 등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있었지만, 종합대책에서는 이를 경찰청의 117번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신고·상담 번호는, 부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달랐기에 이들 간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경우 기관의 특성 상 상담 및 치유 지원보다는 수사기능이 부각되었고, 추후에 살펴볼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활동은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중심이었다(다음 표의 117 신고센터 개선사항 참고). 교육과학기술부나 여성가족부의 신고전화 역시, Wee 센터나 CYS-Net 자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상담, 치유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주된 기능을 해왔다. 또한 한편으로는, 본 대책에서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보호나 처분에 대한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학교폭력의 실제적 문제해결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나, 신고 및 원스톱 지원은 학교 밖의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들 간의 충돌없이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 5. 117 신고센터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주관기관	경찰청	경찰청, 여가부, 시도 교육청 합동
신고 후 조치	경찰 수사 개시	사안에 따라 수사개시, 자체조사, 상담기관 연계
접수 사안을 학교 통보	의무 없음	의무화 단,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통보 유예
가해자 개인정보 교육기관 제공	규정 없음	시도교육감에게 가해자 수사 or 조사결과 통보
신고 후 가해자 격리	수사 개시 후 가해 학생 정보 접근 곤란	학교장이 신속하게 가해학생 격리 조치
가해자 징계	수사종결, 재판 종료 시까지 학생징계 연기	학교장 즉시 조치 가능

\* 출처 : 대통령실(2012. 2. 21), 정책소식 110호, p 21.

또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문 조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사안 조사 결과는 학교장, 피해자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며, 조사 담당 직원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과(학교폭력근절담당관) 설치해야하고, 시·도 교육청 내 학교폭력 조사 담당 직원은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변화된 내용이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이해 가해 및 피해 학생이 서로 접촉 못하도록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분노출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사안이 중요한 경우 일정기간 경찰에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 조치를 삭제하고, 피해자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 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피해자가 동일 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이 의무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

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인지 즉시 심리상담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의 Wee클래스나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Wee센터나 Wee스쿨, CYS-Net, 병원 등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Wee 센터, CYS-Net 등을 활용하고, 병원에 설치된 학생·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전국 22개)와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 보호센터 등을 마련하고, 치유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이 의무화 됨에 따라 CYS-Net을 비롯한 학교 밖의 자원에 대한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격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보복행위나 장애 학생 폭력 시 엄정 징계하고, 전학조치 시 학교구/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재활치료 역시 명시하고 있는데, 대기기간을 최소화해서 치료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해야하며, Wee 스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학생 부모의 소환 및 특별교육 이수도 의무화되었다.

본 대책은 학계와 학부모, 현장 전문가, 행정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도 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역시 후속 작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 위주의 학교분위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여론이 움직일 때마다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왔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2012. 2. 7 기사). 향후 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정착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나) 학교폭력 관련 지원체제

### (1) 학교폭력법에 따른 추진체제

학교폭력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에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체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최초로 규정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 ~ 2009)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부 개정된 2008년 학교폭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도 위원회 및 전담기구의 구성이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위원회가 격상되거나 신설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이 담당하였으며, 관계 부처의 공무원 및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관련 전문가·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기획위원회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속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공동으로 맡고, 9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통령실, 2012).

둘째, 학교폭력법에서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하였다. 전담부서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담당 장학관 1인 및 초등·중등학교 전담 장학사 각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이 전부개정 된 2008년부터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 지역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이 된다. 즉, 지역위원회는 교육청 소속이 아니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설치된 것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그 지역의 교육기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전면에 나선다는 특징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넷째, '12 종합대책에 따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신규 설치·운영된다(대통령실, 2012). 특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Wee센터나 CYS-Net 등 지역상담센터,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며, 지역 밀착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기반한 접근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2012. 2월 대통령실 정책소식에 따르면 유관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지역사회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각 학교 단위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생활지도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법조인, 경찰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가장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자치위원회이다. 자치위원회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사건의 중재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내 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를 둔 기구가 아니어서, 구성 및 운영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위해 자치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 자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했다(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개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의 건의사항

위의 심의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는 자치위원회가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 보았던 2012 종합대책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 체계도' 에도, 최종 사안처리는 자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학교 내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전담기구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 담당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12 종합대책에는 전담기구에 교감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 조사 결과 보고
-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전담기구는 학교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에서 심의하게 된다. ‘12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나 교원이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에서 심의와 보고도 가능하므로, 향후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있어 전담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2 종합대책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에도 학교폭력 전문 조사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전문조사인력과, 시·군·구 단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전문조사인력, 개별 학교 단위의 전담기구가 그 역할을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학교폭력 대응체계 모형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각 위원회와 전담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교 체계 안과 밖에 있는 관련 기관들의 연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학교폭력 대응에 관련된 연계모형들은 2004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는 2004년 학교폭력법의 시행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대처양상이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 대책의 양상도 2004

년을 기점으로 많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민희 외, 2006).

박효정 외(2006)는 학교폭력의 유관기관 간 지원체제나 대응체제에 대한 모형을 크게 지역사회 중심 모형과 국가차원의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NGO를 중심으로 하거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다. 반면에 국가차원의 모형은 정부 기관 등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모형이다.

이민희 외(1998)는 한국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인 ‘컴넷(ComNet: Community Network)’을 개발하고, 이민희 외(2003)에서 이 모델을 서초구 지역사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컴넷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필요한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인력구성은 컴넷 지도자 협의회,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 구성원,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 지역사회의 장(長)이다. 이 네트워크의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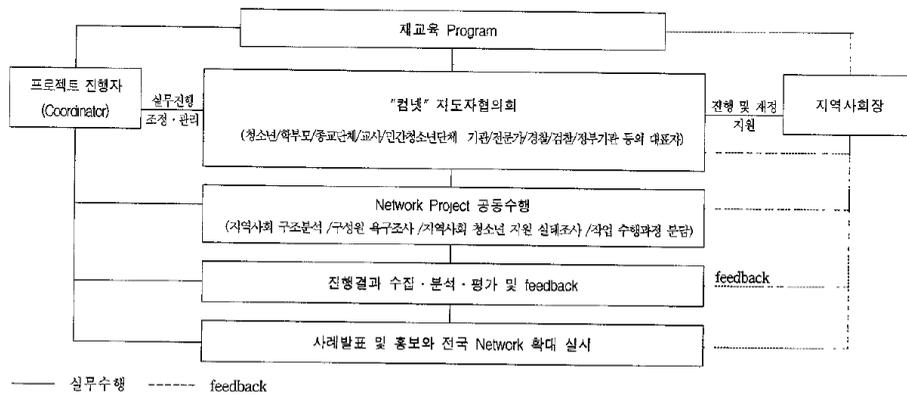


그림 2. 컴넷 체계도

\* 출처 : 이민희 외(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책 연구, p 201.

컴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코디네이터로, 정부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고용되어 전문적 담당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후 이민희 외(2006)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평가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성, 활성화, 실천적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자체 구성원들이 해결한다는 의식과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강한 결속력이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사후 치료나 선도기관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과 관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문제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사안이 발생하면 개인적 네트워크와 부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

상기 연구가 학교나 공공기관보다는 지역의 민간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는 모형이라면, 금명자 외(2005)가 제시한 연계모형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모형이다. 특히 이 모형은 각 부처와 기관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어,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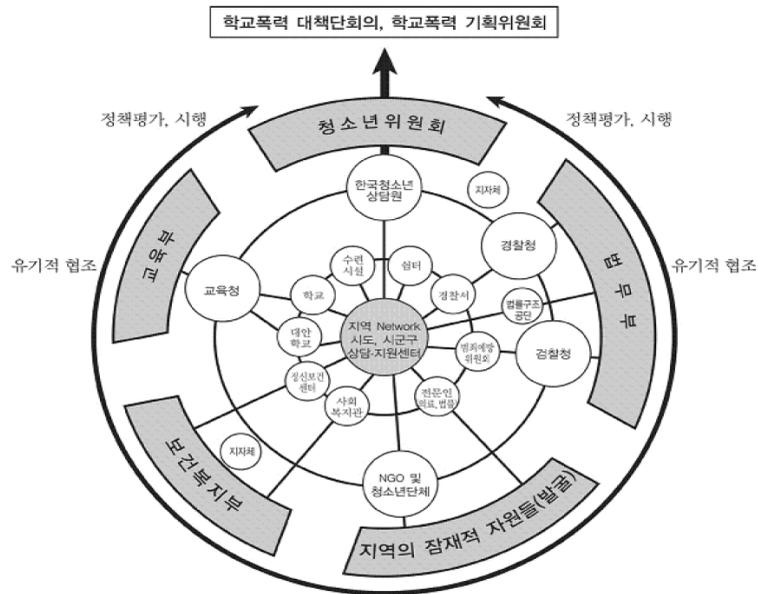


그림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모형(금명자 외, 2006)

상기 모형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상담지원센터(당시 가칭)가 모형의 핵심이자 연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3차원의 연계망과 피드백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민희 외, 2006). 또한 네트워크의 실현

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협약 체결 등을 통한 공식적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연계기관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기간관의 연계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실무담당자의 정기적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연계체제 실무자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박효정 외(2006) 및 박효정 외(2007)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타당화하였다.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은 중심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나누어지며, 제1수준 중심기관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제2수준 중심 기관은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된다. 이러한 모형은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학교폭력법 및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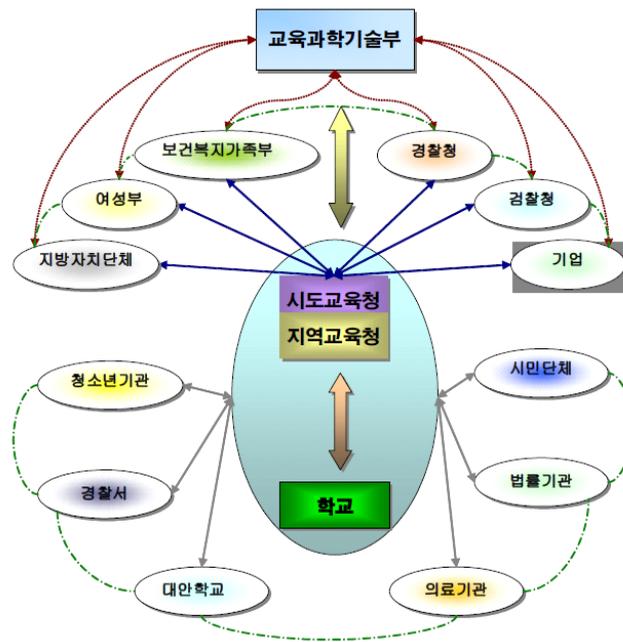


그림 4.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박효정 외, 2006)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Wee프로젝트의 추진 및 확대,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Wee 센터와 CYS-Net의 역할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제시된 모형에서는 중심적이지 않았거나 빠져있었던 기관들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특히 이들 간 연계기능이 강화되어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모형의 수정과 변화된 현실에서의 적용을 위한 지침마련이 불가피하다. 특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대응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 본 정책에 따른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폭력은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의 역할과 조직은 전술한 학교폭력법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학교폭력 신고 및 원스톱 처리 주체인 CYS-Net, Wee센터, 경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가) CYS-Net

#### ■ 사업목적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은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이다. CYS-Net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으로 정의된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여성가족부, 2012a).

#### ■ 추진배경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출범 당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였으며, 개별적이고 분절적이었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12a).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국에 분포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정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이들 센터에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이창호 외, 2007). 2005년 시작 당시 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된 CYS-Net은,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이관되었다.

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2011)은 CYS-net의 전개과정을 연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2005년 시범운영 이후 본격적 CYS-Net 구축이 이루어진 태동기, 확산기 1단계, 확산기 2단계, 안정화 도모기 1단계, 안정화 도모기 2단계가 그것이다. CYS-Net 운영 연차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과 운영 센터의 수, 지원 청소년의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추진체계

CYS-Net의 운영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설치한 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및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시·도의 경우,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에만 해당)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CYS-Net의 체계도를 살펴보면, 운영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연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전술한 6가지 기관 종류별로 한 개 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CYS-Net 체계도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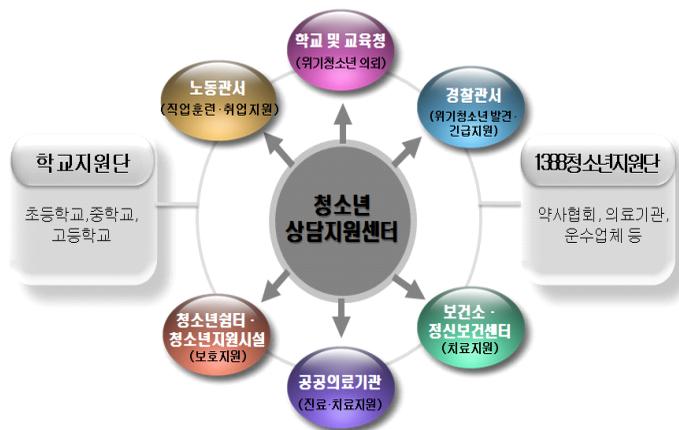


그림 5. CYS-Net 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p.4

또한 CYS-Net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경우, 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상담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CYS-Net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학교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CYS-Net 연계망에 참여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을 총칭한다. 이 네트워크는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기청소년 발견과 현장개입 및 긴급구조를 위한 연계망, 둘째, 발견된 위기청소년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참여하는 연계망, 셋째,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이다(노성덕 외, 2010).

■ 사업내용

CYS-Net은 그 정의처럼,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따라서 CYS-Net은 연계망 구축에 따른 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1단계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의뢰단계에서는 긴급구조, 일시보호, 1388 청소년 전화 운영, 아웃리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2단계 맞춤서비스 지원에서는 심리치료 및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이 가능하다. 3단계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서는 종결 및 추후지도, 자활 및 자립연계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2a).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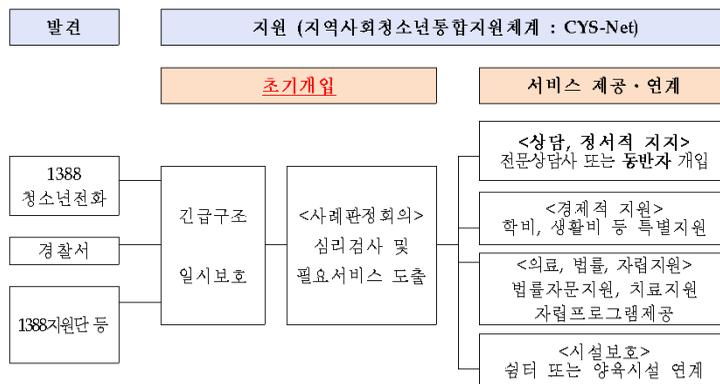


그림 6.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체계도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전, CYS-Net의 학교폭력 업무는 다음 표와 같이 처리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은 CYS-Net의 위기개입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하 되,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례가 접수되면 문제상황이나 내담자의 욕 구, 자원, 위기정도 등을 판단하게 되고, 이후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 개입전략으로는 관 련기관에 연계하거나, 긴급구조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상담, 의료지원, 합의중재나 법률지 원 등이 이루어지고, 일차적인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점에서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표 6. CYS-Net 위기개입 시 학교폭력 개입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 상담접수	① 대 상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가족, 교사, 관련 기관 등
	② 목 적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인적 사항, 욕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피해 상황 파악
	③ 세부사업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한 상담 접수
	④ 절 차	서비스 대상자 여부 파악 → 인적 사항 파악 → 현재 상황 및 욕구 파악 → 접수 경로 파악
	⑤ 양 식	초기상담 기록지
(2) 사례판정	① 대 상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및 가족, 교사, 경찰, 관련 기관 등
	② 목 적	내담자의 피해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개입 계획 수립
	③ 세부사업	내담자의 피해 상황, 욕구, 지지 자원 등을 파악하여 개입방법 결정
	④ 절 차	문제 상황 검토 → 개입 전략 수립
	⑤ 양 식	초기 상담 기록지
(3) 기관연계	① 대 상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및 가족, 교사, 관련 기관 중 타 기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② 목 적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상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③ 세부사업	내담자에게 해당 지역 상담지원센터 및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자는 해당 상담소에 지원 협조 요청
	④ 절 차	해당 지역 학교폭력 관련 단체 정보 제공 → 협조 요청 → 공문발송
	⑤ 양 식	초기상담기록지, 입소의뢰공문
(4) 긴급구조	① 대 상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중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② 목 적	내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추가 피해 예방

단계	구분	내용
	③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상담이 가능한 경우 연계된 지원단(운수업체)을 이용하여 내방하도록 유도</li> <li>▪ 내방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1388청소년지원단 소속 업소에서 상담자를 기다리도록 유도</li> </ul>
	④ 절차	2명 이상의 상담원 동행 → 문제 상황 및 욕구 파악 →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 → 긴급구조
	⑤ 양식	해당양식 없음
(5) 상담	① 대상	긴급구조 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가족, 교사 등
	② 목적	내방 혹은 현장상담으로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 모색
	③ 세부사업	내담자 문제에 대한 2차 사정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 및 지지 체계를 파악한뒤,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④ 절차	라포형성 → 피해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지원 → 심리검사 실시 여부, 법적처리절차 등 상담 목표설정 → 내담자와 상담목표 공유
	⑤ 양식	현장상담 기록지
(6) 의료지원	① 대상	긴급구조 된 청소년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목적	기본적인 건강 상태 유지 및 질병치료와 예방
	③ 세부사업	사업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치료(내과,안과,산부인과 등)
	④ 절차	초기 상담 시 내담자의 건강상태 파악 → 내담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 의료비 지원 → 귀가지원(교통비 지원)
	⑤ 양식	해당양식 없음
(7) 합의중재	① 대상	긴급구조 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와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청소년) 및 가해자의 보호자 등
	② 목적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재발 예방
	③ 세부사업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해자(교사, 청소년)를 상담하여 갈등 요인을 파악, 해소
	④ 절차	피해상담 → 증거자료 확보 → 학교에 도움요청 → 가해학생 사과각서 → 피해학생 보호·치료 →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합의유도
	⑤ 양식	상담기록지
(8) 법률지원	① 대상	긴급구조 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및 합의 중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목적	법률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세부사업	진술서 작성, 사건 접수, 소송 제기, 증거 확보 지원사건 접수 시 법률지원단을 통한 자문 의뢰
	④ 절차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제출 → 조사 동행 → 증거 자료 제출
	⑤ 양식	고소장, 진술서

단계	구분	내용
(9) 사례종결	① 대 상	긴급구조 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중 위기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② 목 적	위기개입상담을 통해 피해청소년의 위기상황이 해결되어 전환생활을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함
	③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종결회의를 통해 종결사례 결정</li> <li>■ 사후관리 계획 수립</li> </ul>
	④ 절 차	위기상황종결 → 내담자와 합의 → 사례종결회의 → 사례종결보고서 작성 → 사후관리계획 수립
	⑤ 양 식	사례종결보고서
(10) 사후관리	① 대 상	긴급구조 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중 지속적인 상담을 요하는 청소년
	② 목 적	위기상황 종결 후 새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함
	③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종결회의를 통해 종결사례 결정</li> <li>■ 사후관리 계획 수립</li> </ul>
	④ 절 차	전화/사이버 및 내방/현장상담 →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점검 → 내담자 지지상담 실시
	⑤ 양 식	해당양식 없음

\* 출처 : 노성덕 외(2010), 위기개입 4판, p110~121 재정리

상기 절차는 학교폭력 위기개입 사례의 경우의 절차이며, 실제로 CYS-Net의 운영은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자원과 사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CYS-Net은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특화된 맞춤형 상담지원 서비스로,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청소년동반자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CYS-Net의 정보 및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b).

#### ■ 시사점

이처럼 CYS-Net의 핵심적인 특징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연계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볼 수 있다. 2012년부터는 시·도에서 협약한 필수연계기관은 시·군·구 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a) 이는 한층 강화되고 폭넓은 연계체제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효정 외(2006)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폭력을 다양한 지원대상의 위기 유형 중 한가지로 보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해결만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2 학교폭력근

결 종합대책 발표 이후, Wee센터가 있는 곳은 우선 Wee센터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CYS-Net은 요청이 있을 때 지원. 그리고 Wee가 없는 경우에만 CYS-Net이 원스톱지원센터 역할(39개 지역)을 하게 된다. 이 39개 지역에는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 2인을 추가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전국 청소년 상담지원센터(186개소???)에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지정하여, 학교폭력문제를 전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CYS-Net이 원스톱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39개 지역은 새로 뽑은 2인으로 대응)(한국청소년상담원, 2012b).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에 따른 CYS-Net 안에서의 업무나 서비스, 대응절차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나) Wee 센터

### ■ 사업목적

Wee 센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ee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ee 프로젝트는 2008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어 「학교안전통합시스템」으로 추진되어왔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서, 3단계의 안전망(safe-net)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 단위학교의 Wee 클래스, 2차 안전망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3차 안전망 시도교육청의 Wee 스쿨이다. 각각의 안전망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최상근, 금명자, 정진, 2011).

이 중 2단계 안전망에 해당하는 Wee센터는 ‘돌볼학생지원센터’란 명칭으로 180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하려던 사업을 ‘돌볼학생’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이름을 바꾸고 실현가능하도록 재구조한 일종의 ‘학생생활지원센터’이다.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감성과 소통의 학교생활지원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 및 품격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전인식 외, 2011b). Wee 센터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학생 및 일반학생에게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추진체계

먼저 Wee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생 공감 상담실로서, 다양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에게 개별/집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e 센터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설치되며, 특히 단위학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위기학생과 그 외에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ee 스쿨은 시·도 교육청 차원에 설치되며,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 중 Wee 센터는 보호관찰학생, 중징계를 받은 학생,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별도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개입을 실시한다. Wee 센터의 운영은 광역교육지원청 혹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직접운영 혹은 위탁을 통해 운영된다. 센터의 구성인력은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Wee 센터는 상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순회방문형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및 다양화를 시도하여 일반형 Wee 센터 외에도 가정형 Wee 센터, 이동형 Wee 센터 등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전인식 외, 2011b).



그림 7. Wee 프로젝트의 체계

\* 출처 : 최상근 외(2011), Wee 프로젝트 운영모델 개발 연구 p 11.

■ 사업내용

Wee 센터는 전문적 평가 및 상담과 치료, 지원, 의뢰 등을 수행한다. Wee 센터 업무

매뉴얼(전인식 외, 2011b)에서는 Wee 센터의 주요 업무를 상담 및 치료, 평가, 자문, 교육, 의뢰, 홍보, 조정의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Wee 센터는 사례에 대한 평가, 상담, 지원, 치료를 팀워크와 연계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진단 및 평가, 상담 및 치료개입 외에도 Wee 클래스나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일선 학교와 교사, Wee 클래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종합서비스의 제공 역시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생으로 인한 학교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과,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 조정에 개입하는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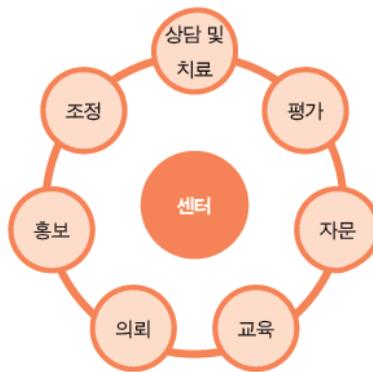


그림 8 .Wee 센터의 주요업무

\* 출처 : 전인식 외(2011b), Wee 프로젝트 매뉴얼 3. Wee 센터 운영, p5.

특히 Wee 센터에서 표방하고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담임교사나 학생 본인, 보호자,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는 접수면접을 거치게 된다. 위기스크리닝이나 자기보고식 검사 등을 활용하여 접수면접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1차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를 분류하여 주 사례관리자를 배정한다. 의뢰서 접수부터 초기 개입까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후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 상담, 교사 및 학부모 상담, 집중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등 다중 지원을 통한 사례 개입을 실시한다. 개입이 경과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2차 심리검사인 심층 심리검사를 통해 2차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심리치료나 의료치료 등 치료개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담목표가 달성되면 상담을 종결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추후 관리를 실시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전인식 외, 2011b).

비록 Wee 센터가 고유 업무를 7가지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홍보와 같은 행정활동과 Wee 클래스 및 학교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제외하면, 실제 학생에 대한 서비스는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대응을 전담으로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 위기유형별 상담 매뉴얼(전인식 외, 2011a)에서는 위기유형을 학교폭력 가해/피해,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자해·자살, 우울, ADHD 및 인터넷 과몰입, 성폭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Wee 프로젝트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 매뉴얼에서는 학교폭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CYs-Net의 위기상담과 마찬가지로 위기 상담의 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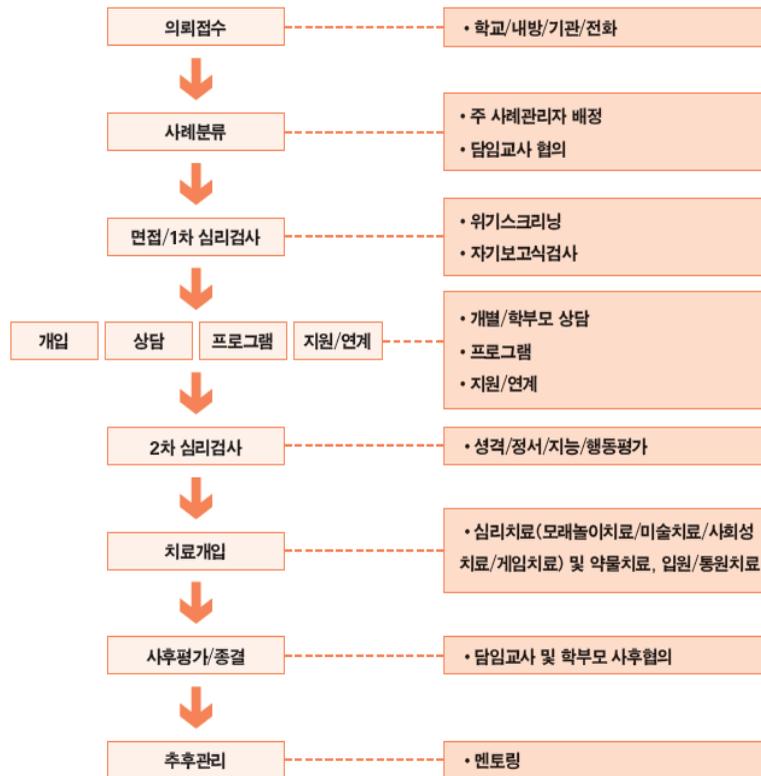


그림 9. Wee 센터 One-Stop 서비스 체계도

\* 출처 : 전인식 외(2011b), Wee 프로젝트 매뉴얼 3. Wee 센터 운영, p48.

### ■ 시사점

기존의 Wee 프로젝트는 Wee 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들이 운영되어 왔으나, 새로운 운영 모델의 개발 등과 함께 Wee 클래스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더 빨리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안전망으로서 체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CYS-Net과 비교하자면, CYS-Net은 운영을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Wee 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청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제이다. 즉, 1차 안전망인 단위학교의 Wee 클래스에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필요시에 2차 안전망인 Wee 센터로 의뢰하는 체제이다(최상근 외, 2011). 또한 CYS-Net은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Wee 프로젝트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Wee 프로젝트는 운영기간이 짧고 운영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정착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바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지도' 개념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Wee 클래스와 Wee 센터를 비롯한 Wee 프로젝트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표준화된 운영모델이나 프로그램의 미비, 인력의 전문성에 있어 편차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교를 담당해야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CYS-Net과의 연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다) 경찰청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 사업목적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센터에서는 학교·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를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 ■ 추진배경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성매매 신고전화(02-723-0183)를 '117' 번으로 통합하였으며,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 검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왔다. 이후 2005년 8월 31일에 개소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학교·여성폭력으로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담신고창구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소하여 운영되었다.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는 연계를 맺고 있는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ONE-STOP 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경찰병원 내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며 출발하였다.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비·의료비·법률구조비·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경찰청은 여자경찰관 3인의 지원 및 수사 지원활동을 담당하며, 병원은 ONE-STOP 지원센터의 설치공간과 의료지원을 담당하였다. 센터의 운영 인력은 센터장 1인(병원장 또는 부원장), 의사(해당병원 의사), 법의학, 정신과, 상담업무 등을 경험한 상근직 간호사 1명, 가정폭력 상담자 3년 이상 경력자 1명, 수사경력 또는 진술 노화관 교육을 이수한 여자 경찰관 3명(3교대), 상근 행정요원 1명, 기타 상담원, 변호사 등 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박효정 외, 2006). 여성가족부는 여성피해자에 대한 업무와 연계하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의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여 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 ■ 사업내용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식,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www.safe182.go.kr).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전의 기존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는 상담원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할 경우 직접 1:1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노성덕 외, 2010). 이후 연계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수

사·의료·법률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청소년범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을 통한 의료지원과 상근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지원, 진술녹화나 피해자 조사 등의 수사지원, 무료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업무처리 모형

주요기능별	전담인력	비 고
신고접수	· 행정요원 · 여경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1366, 112, 상담소 등과 연계
상담	· 성·가정폭력상담원 · 상담심리사 · 사회복지사 · 전담간호사	· 피해자 심리 안정조치 ·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 개별 심리상담, 가족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의료지원	· 지정병원 의료진 - 응급의학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 소아정신과 전문의 - 정산심리 치료사 · 전담 간호사 등	· 응급치료 · 외과 및 정신과 치료  * 여성가족부의 의료비 활용 * 교육청의 의료비 활용
수사지원	· 센터 근무 여경 - 여경 3인 파견 근무 · 해당 지방경찰청	· 증거물 채취 ·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지원 · 피해자 진술 녹화 촬영 등
법률자문	· 자문 변호사 · 민변, 한국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등	· 법률상담, 자문 ·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지원 · 수사재판과정 관여 *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 사업과 연계
운영위원회	· 관계부처 · 자치단체 관련 부서 · 센터 설치 병원 · NGO 등	· 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토의 및 결정 · 연계 기관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출처 : 박효중 외(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p 175.

2012년 현재 기존의 182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센터)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안전Dream’ 이라는 명칭으로 신고,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전,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 및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제한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다(박효정 외, 2006; 장영식, 2009).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후 조사 및 처리 절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고,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연기되었다(대통령실, 2012). 특히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경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의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설립취지나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이었다고 평가된다(박효정 외, 2006). 센터의 인력구성 역시 여성·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의료지원 역시 대부분 성폭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는 학교폭력에 전문화된 서비스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 시사점

ONE-STOP 지원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전까지는,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왔다. 박효정 외(2006)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체결된 ONE-STOP 지원센터와 교육청 간에 체결된 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접근의 용이성이 떨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가 부족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일괄적으로 규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기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병원연계 등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기관들의 역할과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3. 조직 간 연계 활동

#### 가. 조직 연계의 정의와 영역

연계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계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동(collaboration), 네트워크(network), 연결(linkage)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될 뿐 아니라 연구자마다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강창현(2003)은 ‘독립된 조직 상호작용에 의한 교환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연계를 규정하였고, OECD에서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체제를 확립하고 다수의 노드(node, 사람이나 팀, 조직 등) 사이를 내·외적으로 연계(link)하는 것(OECD, 2003; 김경애, 김정원, 2007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Gray(1989)는 연계를 하나의 협동적 과정으로 규정하였는데, 협동이란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그들의 상이점을 밝혀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Franklin과 Streeter(1995)에 의하면, 연계는 협력, 조정, 협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되며 협력에서 조정, 협동의 개념으로 갈수록 기관 간, 또는 실무자들 간의 연계가 체계화되고 공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인숙, 2004). 한편, Bally와 Koney(1996)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참여하는 부분들 간의 창조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활동적 상호작용 형태’로 연계를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요약해봤을 때, 연계란 ‘개인 혹은 조직들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접촉하여 서로의 자원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작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둘 이상의 조직간 연계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 연계는 조직간 교환이 계약, 법규정에 의한 위임과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르거나 위원회, 협의회 등 공식구조를 통한 연계를 의미한다(심선경, 2008). 반면, 비공식적 연계는 전화나 메일, 비공식적 대면접촉 등을 통한 연계를 의미한다. Aldrich(1979)는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연계활동은 공식적 형태보다는 비공식적 연계가 월등히 많아 80%가 전화연결, 두 번째로는 대면접촉임을 밝히고 있다. 공식적 연계는 조직간 연계를 공고히 하는 방법일 뿐이고, 조직간 연계는 조직의 일상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나 메일 등의 비공식적인 형태의 연계활동이 더 많을 수 있다(Boys, 1984; 심선경, 2008에서 재인용). 그래서 공식적 연계와 비공식적 연계는 배타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우며 조직연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연계활동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계기관 간에는 각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클라이언트의 상호의뢰, 자원 동원, 연계기관간 프로그램 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 등의 공동수립 및 수행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네트워크 형성은 인적교류, 사업의 연계 및 협력, 정보의 공유, 공간의 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최운실 외, 2011) 첫째, 인적자원의 교류로 인적네트워크(communiation)의 구축을 말할 수 있다. 주체들 간의 교·강사교류를 비롯, 자원봉사자와 같은 인적자원을 상호교류하며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업네트워크(transportation)의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업을 연계 및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운영 가능토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활동, 보호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관련 시설 간에 학교폭력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체제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를 들 수 있다. 정보의 공유는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각 시설이나 기관간 정보공유와 공유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넷째, 물적교류로 공간 네트워크(location)이다. 이는 학교를 비롯하여 연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교재, 교구 등을 포함하는 물적자원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조직간 연계의 특성

조직간 연계 특성을 통해 다소 추상적인 연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an de Ven과 Ferry(1980)는 조직간 연계를 과정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직간 과정이란 조직 간에 교환되는 자원내용과 교환이 빈도(정도), 범위, 방향으로 조직 간에 무엇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교환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연계구조는 관계의 공식화, 집중화 정도를 의미한다(심선경, 2008). 이들과 유사하게, Streeter와 Gillespie(1992)는 관계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관계적 특성이란 협력관계에서 무엇이 교환되는가의 내용과 관계의 질에 대한 것이며, 구조적 특성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관련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편, Knoke와

Kuklinski(1982)는 조직간 연계 특성을 내용과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연계내용(content)은 조직 간에 교환되는 자원을 말하고, 연계형태는 연계의 정도와 방향성 등의 형태상 특성으로 설명하였다(김선화,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조직간 연계는 조직간에 주로 무엇이 교환되는가의 연계내용과 이러한 연계내용들의 양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범위와 정도, 그리고 조직간에 이루어지는 자원이나 정보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공식성, 집중성, 방향 등의 연계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 다. 조직연계에 관한 이론들

조직 간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를 조직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원의존의 측면에서 조직 간 관계를 설명하는 자원의존론과 조직의 영역이 조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역이론이 있다(신승희, 2006).

첫 번째로 자원의존이론은 조직 간에 연계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동인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에서 개발된 교환이론과 권력이론이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로 조직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켜 환경의 통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존이론에서 말하는 조직의 성공은 주체가 되는 조직의 권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조직 간 관계에서 자시에게 유리한 입장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 구조 및 행위패턴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경험하는 자원의 부족이나 불안정 상태는 조직에게 있어 조직 자체의 유지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비슷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다른 조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1998; 신승희, 2006). 조직운영에 있어 부족한 자원의 문제는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이 관점은 조직의 생존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적용성에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생존적 요소라는 주장에서 일면의 의미를 갖는다(우수명, 2008).

또한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협조, 갈등관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으며, 조직들이 생존전략으로서 다른 기관과 맺고 있는 연계의 수준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신승희, 2006).

영역이론은 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서, 조직영역의 개념이 어떤 사회적인 실체에 의해 요구되는 영향과 통제의 모양으로 정의된다고 볼 때 조직이 어떤 조직영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다른 조직들

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최영광, 2011). 즉, 연계하고 있는 조직 간의 영역이 이질성을 가질수록 조직 간 연계는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며 조직 간 영역이 유사성을 가질수록 조직 간 경쟁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연계를 비롯한 조직 간의 유대가 감소하게 된다.

## 라. 조직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간 연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요인, 관리자요인, 조직요인 나누어볼 수 있다.

### 1) 개인요인

조직간 연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크게 직무관련 요인과 담당자의 전문능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관련해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개인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승희(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력, 경력, 전문적 훈련 정도, 전공, 비공식적인 인맥 등을 조직 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인숙 등(1999)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교육(훈련)정도 등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미은(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직위, 경력, 자격증이 연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피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에 관해 연구한 김교정·김용준(2004)의 연구에서는 현 직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계의 총 경력, 팀 훈련 경험, 조직간 연계에 대한 필요인식 요인이 조직 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관리자요인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이론에서 조직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 관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간 연계에 영향을 주는 관리자요인으로는 관리자의 외부자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연계에 대한 태도 및 행동, 관리자의 공식적 연계 등이 포함된다. Aiken과

Hage(1968)은 조직의 외부자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조직과의 공동사업수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고, Van de Ven과 Ferry(1980)은 아동복지 조직들간의 연계형성에 조직의 자원의존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조직이 외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조직간 연계가 증가하거나 네트워크 참여에 적극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영상(2005)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리더가 얼마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을 주도하는가는 공무원의 협력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Harbert 등(1997)은 지역의 아동복지조직간 연계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간 협력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하고 협력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관리자의 공식적 연계는 조직성원들이 지역조직들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의 역할을 한다. 관리자에 의한 공식적 연계체계는 Bardach(1998)가 말하는 조직의 잠재적 기관간 협력 능력을 발전시키는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조직연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간 협력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조직 연계에 대한 공식적 협정과 더불어 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공식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식적 연계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조직들과 형성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볼 수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인 고용지원센터의 최고관리자가 참여하는 고용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해서, Foster-Fishman 등(2001)은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내 위원회 구조는 각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조직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조직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현주(2000)는 지역별 사회복지조직간 서비스 연계를 분석한 결과, 협의체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외 몇몇 연구들(박경숙, 1996; 김인숙, 우국희, 2000; 김재엽, 박수경, 2001)에서도 지역내 공식화된 협조체계의 부재를 조직간 관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 3) 조직요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은 크게 조직 소재지 및 크기, 조직의 구조적 특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조직 소재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에 위치한 기관의 연계정도가 높다고 한다. 예로서, 이해원(2002)은 결실아동 지원조직간 연구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의 조직들보다 조직연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미은(2002)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계분석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 위치한 기관의 연계정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어촌일수록 관련 종사자들간의 유대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조직크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직크기가 클수록 조직연계가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Boje와 Whetten(1981)은 직원수와 서비스 종류가 많은 규모가 큰 조직이 그만큼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크고 따라서 더 많은 조직들과 연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내담자의 의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심선경, 2008에서 재인용). 한편, 노연희(2006)도 조직의 총 직원수가 많을수록 즉 조직규모가 클수록 자원동원성고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직이 크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조직과의 연계에 용이할 뿐 아니라 조직이 크면 그만큼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외부조직에 대한 의존성도 증가하여 조직연계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조직구조는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 조직의 권력관계, 구성원들간의 역할배분과 조정양태, 조직구성원들의 활동에 관한 관리체제로 이해된다(전영상, 2005). 따라서, 조직구조는 조직의 목적과 내부의 규범적 행동을 반영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연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업환경이 될 것이다.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해서 연구자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조직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신승희(2006)의 연구에서는 조직 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서 조직 내 자원 의존도, 상급자의 수와 조직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보다 조직요인이 조직 연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유형과 조직의 포괄성, 조직 설립 년도 등이 조직 간 연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우수명(2008)의 연구에서는 조직 간 연계를 위한 공동네트워크 참여, 시설유형, 연계사업 투입 예산, 조직 내 연계 지원, 설립 년도, 정규인력 규모, 운영주체 등이 연계조직 규모, 응집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선경(2009)의 연구에서는 연계를 위한 의사소통과 분권화, 조직혁신 등이 연계조직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 총 직원의 수, 의사소통 요인이 연계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직구조적 특징들은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내부 의사소통정도 등으로 유목화 해볼 수 있다. 여기서 복잡성이라 함은 조직내 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직내 분화는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수평적 분화는 동일 위계 수준에서 과제가 분화되는 것으로 분업화와 부서화로 나타난다. 특히, 분업화는 기능에 따라 과업을 단순하고 일상적인 과제로 나누는 기능적 분업화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전담해서 수행하는 사회적 분업화로 구분한다. 수직적 분화는 상하관계의 위계구조상의 분화를 말한다. 집권화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이 조직 상부의 개인이나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공식화는 조직의 과제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이다. 즉, 조직내 직무가 표준화된 절차, 규칙, 방법으로 명문화되고 규정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교폭력에 관련된 제도 및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적용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 실무자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문제해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화의 핵심요인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연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학교폭력 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간 연계에 필요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핵심요인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CYS-Net·학교·Wee 프로젝트의 실무지침 및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 1. 문헌연구

학교폭력 문제해결과 관련된 제도 및 대응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 현상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시스템의 학교폭력 개입 근거를 검토하며, 국외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계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계에 개념이해와 함께 연계를 촉발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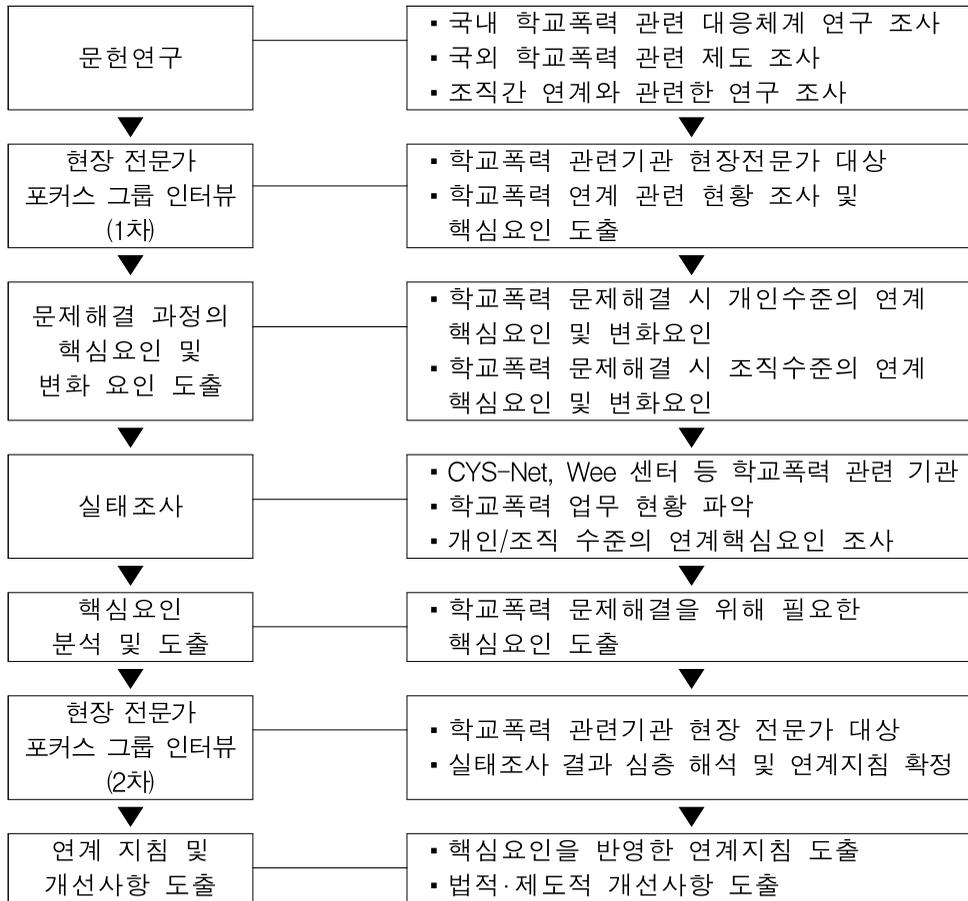


그림 10. 연구 절차

## 2.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1차)

### 가. 조사 대상 및 내용

학교폭력 대응기관인 CYS-Net, 학교, Wee Project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현황과 연계 실태, 연계의 핵심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CYS-Net 실무자와 Wee센터 실무자 등 학교폭력 대응 조직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FGI 대상인 현장전문가들에게 사전에 FGI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문헌연구 및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면서도, 인터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더 조사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연구진들은 질문의 형태는 Krueger와 Casey(2000)의 질문방식을 참고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8).

표 8 . 현장전문가 FGI 질문 구성

구분	인터뷰 문항
도입	학교폭력 관련 업무 현황은?
소개	자신 및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전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요	CYS-Net과 Wee Project, 학교와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요	성공적인 연계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주요	연계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마무리	향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터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앞서, 참여자들은 도입 질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현황이나 종합대책 이후 달라진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후 소개 질문에 해당하는 자신의 경력 및 기관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서 FGI의 주요 내용으로 전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 업무들에 대한 이야기와 의견이 토의되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 주요질문들을 이어나갔다. 관련 주제가 마무리되거나 정리될 때에는 연구자가 논의된 내용을 재정리하여 진술하면서, 연구자의 이해가 정확하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질문이나 상세화를 요구하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마쳤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9개 기관의 현장 전문가 14인이 참여하였다(표 9). 인터뷰 시간은 평균 120분이었으며, 면접자들은 본 연구의 연구자들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자 1인, 교육상담 관련 박사학위자 1인,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자 1인이었다.

표 9.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구분	성별	나이	구분	지역	소속 기관
1	여	40대	관리자	A(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여	30대	실무자	A(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	남	40대	관리자	B(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4	여	40대	실무자	C(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남	40대	관리자	D(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6	남	40대	관리자	E(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7	여	40대	실무자	E(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여	30대	관리자	F(시·군·구)	Wee 센터
9	여	30대	실무자	F(시·군·구)	Wee 센터
10	여	40대	관리자	G(시·군·구)	Wee 센터
11	여	30대	실무자	G(시·군·구)	Wee 센터
12	여	30대	실무자	H(시·군·구)	Wee 센터
13	여	30대	관리자	H(시·군·구)	Wee 센터
14	여	40대	실무자	I(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자료를 정독하며 중요한 정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검토 및 합의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들을 찾아냈다. 이후 분류된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를 최종 결정하였다.

### 3.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2차)

#### 가. 조사 대상 및 내용

학교폭력 연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연계지침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 대상은 총 13명으로, CYS-Net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7명, 교사 2명, 학교상담자 3명, 학교장(인터뷰 시점 약 15일 전까지 교육청 근무) 1명이었다. FGI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10과 같다.

본 FGI 절차는 앞서 현장전문가 대상 FGI 실시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FGI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학교 상담자, 교사 등 3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기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평균 120분 간 진행되었다. 면접자들은 본 연구의 연구자들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자 1인, 교육상담 관련 박사학위자 1인, 교육상담 전공 석사학위자 1인이었다.

표 10.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구분	성별	나이	구분	소속 기관	청소년 관련 상담/교육 경력
A	여	30대	실무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년
B	여	30대	실무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년
C	여	20대	실무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년
D	여	30대	실무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년
E	여	30대	실무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년
F	여	50대	관리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년
G	여	40대	관리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년
H	남	40대	교사	고등학교(인문)	18년
I	여	30대	교사	고등학교(인문)	9년
J	여	30대	전문상담교사	고등학교(실업)	9년
K	남	50대	관리자	고등학교(前 교육청 소속)	20년
L	여	30대	상담사	중학교 Wee클래스	1년
M	여	40대	상담사	고등학교 학교상담실(인문)	1년

인터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앞서, 참여자들은 도입 질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현황이나 종합대책 이후 달라진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후 소개 질문에 해당하는 자신의 경력 및 기관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서 FGI의 주요 내용으로 전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 업무들에 대한 이야기와 의견이 토의되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 주요질문들을 이어나갔다. 관련 주제가 마무리되거나 정리될 때에는 연구자가 논의된 내용을 재정리하여 진술하면서, 연구자의 이해가 정확하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질문이나 상세화를 요구하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마쳤다. 2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은 1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과 동일한 틀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도 1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 나.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자료를 정독하며 중요한 정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검토 및 합의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들을 찾아냈다. 이후 분류된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를 최종 결정하였다. FGI 분석결과 및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계지침은 'IV.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4. 실태조사

### 가. 조사 대상

학교폭력과 관련한 CYS-Net, 학교, Wee프로젝트 간의 연계실태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였다. CYS-Net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5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Wee프로젝트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Wee센터의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Wee프로젝트에는 Wee센터 외에도 Wee클래스, Wee스쿨로 구성되어 있으나, Wee클래스의 경우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교 대상 설문과 중복될 수 있고, Wee스쿨은 기숙형 학교로 현재까지는 설치 지역도 제한적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윈스톱지원센터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Wee센터이므로, Wee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8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전국의 학교 대상 실태조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총 31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 대상자 및 소속 기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IV.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나. 조사 도구

학교폭력 대응기관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계의 핵심 요인들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은 기관 현황, 연계 실태, 연계 관련 요인(개인요인/관리자요인/조직요인) 등 크게 3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연계 관련 요인 질문지는 신승희(2006), 우수명(2008)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Van de Ven과 Ferry(1980)의 조직간 연계를 측정하는 도구와 이현주(1998)의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간 관계의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기관장 요인, 상호작용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연계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내용

연계요인	변 수
조직 요인	기관이 위치한 지역, 설립 년수, 기관유형(위탁여부 등), 기관장 상근여부, 조직의 연계업무 인식 및 지원정도
개인 요인	전공여부, 교육횟수, 직위, 상담경력, 연계업무에 대한 인식 및 내용
기관장 요인	연계업무에 대한 인식, 연계활동에서의 역할 수행 등
상호작용 요인	연계기관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정도 등

설문지 구성 후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청소년상담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가 1인과, 아동갖고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청소년상담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4년 이상 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문을 최종 수정·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는 부록2에 제시되어 있다.

#### 다. 분석방법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IV.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III. 연구방법에서 전술한 절차대로 수행된 실태조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CYS-Net, 학교, Wee프로젝트 간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 방향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1.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CYS-Net, 학교, Wee센터의 업무 및 연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의 응답자는 CYS-Net 실태의 경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학교 실태의 경우 교사, Wee센터 실태의 경우 전국 Wee센터의 실무자였다. 한 기관에서는 한 명의 응답자에게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무응답의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각 기관별 학교폭력 업무 및 연계실태를 살펴보고, 문헌연구 및 FGI를 통해 도출된 연계활동과 관련된 개인 요인, 관리자 요인, 조직 요인별 실태를 비교하였다.

#### 가. 기관별 연계 실태

##### 1) CYS-Net의 연계 실태

##### 가) 응답자 현황

##### ■ 응답자 특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남성 18.6%, 여성 81.4%의 비율로 여성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47.1%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40세 미만도 44.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석사졸업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과정(수료)가 14.2%, 대학교 졸업이 2.3% 등으로 나타나 대상자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수준

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들의 직위의 경우 50.3%가 팀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원이 42.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들의 본 기관 경력과 총 경력을 살펴보면, 총 경력은 35.6%가 5년 이상~10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32.2%이었고, 10년 이상~1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센터에서의 경력은 5년 미만이 63.6%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응답자 특성[CYS-Net]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	29	18.6	연령	30세 미만	6	3.9
	여	127	81.4		30세 이상~40세 미만	69	44.5
	합계	15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73	47.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6		50세 이상	7	4.5
	대학교 졸업	19	12.3		합계	155	100.0
	석사과정(수료)	13	8.4	직위	실장	4	2.5
	석사 졸업	97	62.6		국장	4	2.5
	박사과정(수료)	22	14.2		팀장	79	50.3
	박사졸업	3	1.9		상담원	67	42.7
합계	155	100.0	기타		3	1.9	
총 기관 경력	5년 미만	47	32.2	합계	157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52	35.6	본 기관 경력	5년 미만	98	63.6
	10년 이상~15년 미만	34	23.3		5년 이상~10년 미만	24	15.6
	15년 이상~20년 미만	8	5.5		10년 이상~15년 미만	20	13.0
	20년 이상	5	3.4		15년 이상~20년 미만	9	5.8
	합계	146	100.0		20년 이상	3	1.9
			합계	154	100.0		

### ■ 소속 기관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도 단위에 설치된 센터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센터로 구분되며, 본 설문 응답자의 경우 시·도 단위 센터 소속은 7%, 시·군·구 단위 센터 소속은 93%였다. 응답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기관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12.7%, 서울이 12.0% 그리고 충청남도가 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운영 형식별로 살펴보면 위탁운영 되고 있는 기관이 60.0%, 직영운영이 40.0%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수가 더 많았다. 또한 기관장의 근무형태는 기관장이 상근하는 기관은 43.5%, 비상근하는 기관이 56.5%로 기관장이 비상근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설립연차는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운영 4년차인 기관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1년차가 26.6%, 3년차가 24.1%, 2년차와 5년차 이상인 기관이 각각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소속 기관 특성[CYS-Net]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소속		시·도	11	7.0			서울시	19	12.0
		시·군·구	147	93.0			부산시	5	3.2
		합계	158	100.0			대구시	2	1.3
위탁구분		위탁	93	60.0			인천시	6	3.8
		직영	62	40.0			광주시	2	1.3
		합계	155	100.0			대전시	2	1.3
기관장		상근	67	43.5			울산시	4	2.5
		비상근	87	56.5	시/도		경기도	31	19.6
		합계	154	100.0			강원도	7	4.4
설립 연차		1년차	39	26.9			충청북도	9	5.7
		2년차	14	9.7			충청남도	16	10.1
		3년차	35	24.1			전라북도	10	6.3
		4년차	43	29.7			전라남도	12	7.6
		5년차 이상	14	9.7			경상북도	11	7.0
		합계	145	100.0			경상남도	20	12.7
							제주도	2	1.3
						합계	158	100.0	

## 나) 학교폭력 사례 현황

### ■ 학교폭력 사례 수

2012년 상반기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수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10명 이상~5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50.0%로 가장 많았고,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0.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11.0%, 10명 미만이 8.8% 순이었다. 단, 사례 수는 개별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과 집단지원(교육, 집단상담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표 14. 학교폭력 접수 사례 수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10명 미만	12	8.8
10명 이상~50명 미만	68	50.0
50명 이상~100명 미만	15	11.0
100명 이상~150명 미만	9	6.6
150명 이상~200명 미만	4	2.9
200명 이상	28	20.6
합계	136	100.0

■ 학교폭력 유형

소속 기관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 수에 이어, 주로 접수된 학교폭력 유형을 살펴본다. 그 결과, 신체적 폭력으로 접수된 사례가 29.7%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언어적 폭력이 각각 23.4%와 23.2%로 비슷한 수치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사이버 폭력 3.8%, 성폭력 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폭력 접수 사례 유형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신체적 폭력	118	29.7%
언어적 폭력	92	23.2%
금품갈취, 강요	69	17.4%
따돌림	93	23.4%
성폭력	10	2.5%
사이버 폭력	15	3.8%
합계	397	100.0%

다)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일반)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영역은 연계실태 일반, Wee센터와의 연계 실태, 학교와의 연계 실태로 구분하였다. 학교폭력 관련된 일반적인 연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 가·피해 중 주 연계 유형

기관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를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 중 어느 유형을 더 많이 연계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본 기관의 사례를 타 기관으로 보

내는 경우,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다. 연계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 사례를 연계한 기관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 사례를 연계했다고 응답한 기관이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9.9%, 가해와 피해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8.6%였다.

표 16.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보낼 경우)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가해 사례가 더 많다	32	21.1
피해 사례가 더 많다	42	27.6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더 많다	15	9.9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13	8.6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49	32.2
잘 모르겠다	1	.7
합계	152	100.0

반면에 타 기관의 사례를 본 기관으로 연계 받는 경우, 가해사례가 더 많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피해사례가 더 많다가 18.5%, 비슷하다가 13.4%,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례는 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받을 경우)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가해 사례가 더 많다	88	56.1
피해 사례가 더 많다	29	18.5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더 많다	14	8.9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21	13.4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5	3.2
합계	157	100.0

#### ■ 연계 발생 단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 개입 절차에 따라 사례에 대해 개입할 때, 어느 단계에서 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에 살펴보았다. 1, 2, 3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상담 단계가 총점 240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는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서 접수 단계 206점, 교육 단계 121점 순이었다. 그러나 1순위 내의 순위를 살펴보면, 접수단계가 35.7%로 상담단계 26.8%보다 연계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례관정

단계가 11.5%로 뒤를 이었다.

표 18.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연계 단계 [CYS-Net]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접수	56	35.7	15	10.2	8	6.1	206	2
사례판정	18	11.5	25	17.0	13	9.8	117	-
심리검사	3	1.9	17	11.6	25	18.9	68	-
상담	42	26.8	47	32.0	20	15.2	240	1
복지지원서비스	15	9.6	13	8.8	12	9.1	83	-
교육	16	10.2	21	14.3	31	23.5	121	3
사후관리	3	1.9	8	5.4	23	17.4	48	-
기타	4	2.5	1	.7	-	-	14	-
합계	157	100.0	147	100.0	132	100.0	-	-

#### ■ 주 연계 기관

학교폭력 사례를 다른 기관과 연계할 때, 주로 연계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본 기관의 사례를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가 가중치 점수 171점으로 1순위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순위는 159점인 학교, 3순위는 129점인 경찰관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순위 내의 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가 26.2%로 비슷하게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5.2%로 뒤를 이었다.

표 19.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보낼 때) [CYS-Net]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학교	39	26.9	15	12.1	12	11.3	159	2
교육청	2	1.4	11	8.9	8	7.5	36	-
wee센터	16	11.0	19	15.3	13	12.3	99	-
경찰관서	16	11.0	31	25.0	19	17.9	129	3
사법기관	4	2.8	1	.8	11	10.4	25	-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38	26.2	20	16.1	17	16.0	171	1
청소년보호시설	2	1.4	11	8.9	12	11.3	4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	15.2	10	8.1	9	8.5	95	-
기타	6	4.1	6	4.8	5	4.7	45	-
합계	145	100.0	124	100.0	106	100.0	-	-

한편, 타 기관으로부터 본 기관으로 사례를 의뢰받는 경우, 주로 연계되는 기관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학교로부터의 연계가 가중치 점수 412점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찰관서가 210점으로 2순위, Wee센터가 92점으로 3순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0.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받을 때) [CYS-Net]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학교	122	77.2	21	13.9	4	3.1	412	1
교육청	1	.6	6	4.0	16	12.2	31	-
wee센터	8	5.1	23	15.2	22	16.8	92	3
경찰관서	17	10.8	68	45.0	23	17.6	210	2
사법기관	2	1.3	16	10.6	24	18.3	62	-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4	2.5	4	2.6	17	13.0	37	-
청소년보호시설	1	.6	3	2.0	6	4.6	1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6	3	2.0	7	5.3	16	-
기타	2	1.3	7	4.6	12	9.2	32	-
합계	158	100.0	151	100.0	131	100.0	-	-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를 진행할 경우, 본 기관 및 타 기관이 기대하는 지원은 무엇 인지 알아보았다. 타 기관이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연계활동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사례를 보낼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타 기관에 기대하는 개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중응답을 허용했을 때, 의료와 법률에 대한 지원이 22.6%로 가장 많다. 이어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16.3%,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15.6%, 긴급 및 위기지원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39	13.5%
학교폭력 사안 조사	30	10.4%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47	16.3%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45	15.6%
의료, 법률 지원	65	22.6%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30	10.4%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6	2.1%
연계 후 추후관리	21	7.3%
기타	5	1.7%
합계	288	100.0%

반면에 연계활동 시 타 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39.7%, 지역 내 학교폭력 회의가 9.2% 등으로 나타났다.

표 22.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다중 응답)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9	2.9%
학교폭력 사안 조사	2	0.6%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33	42.2%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25	39.7%
의료, 법률 지원	3	1.0%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29	9.2%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1	0.3%
연계 후 추후관리	12	3.8%
기타	1	.3%
합계	315	100.0%

■ 학교폭력 연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강점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활동을 진행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강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허용한 결과, 기관의 전문성이 34.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29.5%,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것 10.3%,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9.9% 순이었다.

표 23.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109	34.9%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92	29.5%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31	9.9%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21	6.7%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32	10.3%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27	8.7%
합계	312	100.0%

■ 연계활동의 어려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했다. 다중응답을 허용한 결과, 소속기관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8%로 가장 많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이 15.6%, 연계할 기관의 부재가 14.5%,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가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연계활동의 어려움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81	17.8%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8	1.8%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33	7.2%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52	11.4%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17	3.7%
연계할 기관 부재	66	14.5%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	71	15.6%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35	7.7%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41	9.0%
대기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37	8.1%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8	1.8%
기타	7	1.5%
합계	456	100.0%

라)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Wee센터와의 연계)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를 진행할 때, 사례 진행 절차 중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를 Wee센터로

보내는 경우, 접수 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타 25.2%, 상담 18.1%, 사후관리 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보낼 때)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접수	36	28.3
사례판정	7	5.5
심리검사	8	6.3
상담	23	18.1
복지지원서비스	2	1.6
교육	8	6.3
사후관리	11	8.7
기타	32	25.2
합계	127	100.0

Wee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례를 의뢰받는 경우 역시 접수단계에서 주로 연계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상담단계 28.5%, 사례판정 단계 12.3% 순이었다.

표 26.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받을 때)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접수	46	35.4
사례판정	16	12.3
심리검사	3	2.3
상담	37	28.5
복지지원서비스	3	2.3
교육	5	3.8
사후관리	2	1.5
기타	18	13.8
합계	130	100.0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 학교폭력 사안을 연계하는 경우, 어떠한 지원 및 개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Wee센터에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으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1.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연계 후 추후관리 16.8%, 학교폭력 사안 조사 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에 기대하는 지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5	4.0
학교폭력 사안 조사	15	12.0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29	23.2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27	21.6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11	8.8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1	0.8
연계 후 추후관리	21	16.8
기타	16	12.8
합계	125	100.0

Wee센터에게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기대할 때, 어떤 내용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정지 프로그램이 23.1%,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이 11.5% 순이었다.

표 28. Wee센터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2	7.7
특별교육	13	50.0
출석정지 프로그램	6	23.1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2	7.7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3	11.5
합계	26	100.0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Wee센터로부터 사례를 받을 때 주로 요청받는 지원 또는 개입은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1.7%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9.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5	3.9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82	63.6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28	21.7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2	1.6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2	1.6
연계 후 추후관리	1	0.8
기타	9	7.0
합계	129	100.0

Wee센터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요청 받을 때, 어떤 내용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53.8%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 프로그램 23.1%, 예방교육 15.4% 순이었다.

표 30. Wee센터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4	15.4
특별교육	14	53.8
출석정지 프로그램	6	23.1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	3.8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	3.8
합계	26	100.0

#### ■ Wee센터의 강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사례연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Wee센터가 갖는 강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허용한 결과, 지역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이 27.9%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9.7%, 기관의 전문성과 연계요청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각각 12.0%로 뒤를 이었다.

표 31.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의 강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25	12.0%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58	27.9%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41	19.7%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11	5.3%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25	12.0%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10	4.8%
기타	38	18.3%
합계	208	100.0%

■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다중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과다가 14.9%,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렵다는 응답이 12.6%로 나타났다.

표 32.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52	14.9%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11	3.2%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17	4.9%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30	8.6%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11	3.2%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83	23.8%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34	9.7%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32	9.2%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44	12.6%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1	6.0%
기타	14	4.0%
합계	349	100.0%

마)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학교와의 연계)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경우,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단,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사후관리를 제외하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 쪽으로 사례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 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접수가 32.5%, 교육과 사례관정이 각각 12.1%로 나타났다.

표 33. 학교와의 연계 발생 단계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접수	51	32.5
사례판정	19	12.1
심리검사	3	1.9
상담	56	35.7
복지지원서비스	1	.6
교육	19	12.1
사후관리	3	1.9
기타	5	3.2
합계	157	100.0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로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례를 받을 때, 어떤 개입을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에 대한 요청이 65.1%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32.2%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4. 학교폭력 연계 시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2	1.3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99	65.1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49	32.2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2	1.3
합계	152	100.0

상기 항목 중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7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예방교육이 12.2%, 출석정지 프로그램과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이 모두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6	12.2
특별교육	36	73.5
출석정지 프로그램	3	6.1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	2.0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3	6.1
합계	49	100.0

■ 학교와 연계 시 어려운 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의 업무 과다가 2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16.1%,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 13.5%,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 12.8%,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학교와의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96	22.7%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13	3.1%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33	7.8%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53	12.5%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24	5.7%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54	12.8%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68	16.1%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57	13.5%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0	2.4%
기타	15	3.5%
합계	423	100.0%

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

■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 활성화 의견을 알아보았다. 우선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을 알아본 결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Wee센터가 15.3%, 교육청이 12.7%,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가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CYS-Net]

항목	빈도(N)	비율(%)
학교	84	56.0
교육청	19	12.7
wee센터	23	15.3
경찰관서	6	4.0
사법기관	5	3.3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11	7.3
청소년 보호시설	1	0.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0.7
합계	150	100.0

■ 연계 활성화 요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1, 2, 3순위 다중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0점으로 1순위였으며, 연계에 대한 지침 마련이 174점으로 2순위, 연계기관 간 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161점으로 3순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125점), 행정절차 간소화(103점) 등의 의견이 많았다. 1순위 응답 내에서의 응답을 살펴보면, 연계지침 마련이 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연계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20.5%, 연계 기관 간 적극적 태도 15.4% 순이었다.

표 38. 연계 활성화 요건 [CYS-Net]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연계지침 마련	38	24.4	20	12.8	20	13.0	174	2
행정절차 간소화	15	9.6	20	12.8	18	11.7	103	-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2	14.1	25	16.0	9	5.8	125	-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24	15.4	29	18.6	31	20.1	161	3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 필요	17	10.9	15	9.6	8	5.2	89	-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	5	3.2	7	4.5	16	10.4	45	-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2	20.5	32	20.5	20	13.0	180	1
시설 및 공간 공유	1	.6	3	1.9	9	5.8	18	-
사례 관련 정보 공유	1	.6	3	1.9	13	8.4	22	-
사업 정보 공유	-	-	1	.6	10	6.5	12	-
기타	1	.6	1	.6	-	-	5	-
합계	156	100.0	156	100.0	154	100.0	-	-

■ 학교폭력 연계관련 자유 의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공동 회의/모임, 연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 중심기관 마련, 인력 및 예산 확보, 부처 간 협의, 즉각적 대응 및 개입, 업무 과다, 실적 위주 탈피, 행정절차 간소화,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홍보, 정보공유, 비밀보장,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수 관리, 전문성 강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학교의 개방 및 인식 제고, 교사 대상 교육, 자치위 교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 2) 학교의 연계 실태

### 가) 응답자 현황

#### ■ 응답자 특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이 32.8%, 여성이 67.2%의 비율로 여성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40세 이상~50세 미만인 48.6%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27.6%,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0.0%였다. 학력은 석사졸업이 43.8%, 대학 졸업이 43.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직위의 경우 교사가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장이 42.0%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총 교사 경력은 20년 이상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3.0%,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서의 경력은 대부분이 5년 미만으로 79.7%였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7.2%, 20년 이상이 5.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응답자 특성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	103	32.8	연령	30세 미만	12	3.8
	여	211	67.2		30세 이상~40세 미만	63	20.0
합계	31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53	48.6	
학력	대학교 졸업	136	43.2		50세 이상	87	27.6
	석사과정(수료)	28	8.9		합계	315	100.0
	석사 졸업	138	43.8	직위	교감	1	.3
	박사과정(수료)	11	3.5		부장	132	42.0
박사졸업	2	.6	교사		156	49.7	
합계	315	100.0	기타		25	8.0	
총 교사 경력	5년 미만	37	12.5	합계	314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21	7.1	본 학교 경력	5년 미만	244	79.7
	10년 이상~15년 미만	68	23.0		5년 이상~10년 미만	22	7.2
	15년 이상~20년 미만	50	16.9		10년 이상~15년 미만	11	3.6
	20년 이상	120	40.5		15년 이상~20년 미만	13	4.2
	합계	296	100.0		20년 이상	16	5.2
			합계	306	100.0		

■ 소속 기관 특성

다음으로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8.4%, 서울이 6.1%, 경상남도가 5.8%, 충청남도가 4.9%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3%, 중학교가 62.1%, 고등학교가 36.7%로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다. 학급수는 10개 미만인 학교가 12.7%, 10개 이상~20개 미만 19.8%, 20개 이상~30개 미만 29.2%, 30개 이상~40개 미만 27.9%, 40학급 이상 10.4%이었다..

표 40. 소속 기관 특성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학교급	초	4	1.3	서울시	20	6.1
	중	193	62.1	부산시	5	1.5
	고	114	36.7	대구시	2	.6
	합계	311	100	인천시	6	1.8
학급수	10개 미만	39	12.7	광주시	2	.6
	10개 이상~20개미만	61	19.8	대전시	2	.6
	20개 이상~30개 미만	90	29.2	울산시	3	.9
	30개 이상~40개 미만	86	27.9	경기도	191	58.4
	40개 이상	32	10.4	강원도	7	2.1
	합계	308	100	충청북도	8	2.4
			충청남도	16	4.9	
			전라북도	10	3.1	
			전라남도	11	3.4	
			경상북도	10	3.1	
			경상남도	19	5.8	
			합계	1	.3	

나) 학교폭력 사례 현황

■ 학교폭력 사례 수

2012년 상반기 동안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43.5%가 5건 미만이라고 보고했으며, 22.4%가 5건 이상~10건 미만, 17.6%가 10건 이상~20건 미만, 11.4%가 20건 이상~50건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0건 이상이라고 보고한 학교도 5.1%에 달했다.

표 41. 학교폭력 발생 건 수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5건 미만	111	43.5
5건 이상~10건 미만	57	22.4
10건 이상~20건 미만	45	17.6
20건 이상~50건 미만	29	11.4
50건 이상	13	5.1
합계	255	100.0

■ 학교폭력 유형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포함한 결과, 신체적 폭력이 31.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언어적 폭력이 23.1%, 금품갈취 및 강요가 19.7%, 따돌림이 14.8% 순이었다.

표 42. 학교폭력 발생 유형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신체적 폭력	243	31.8%
언어적 폭력	177	23.1%
금품갈취, 강요	151	19.7%
따돌림	113	14.8%
성폭력	16	2.1%
사이버 폭력	48	6.3%
학교폭력 사안 경험 없음	17	2.2%
합계	765	100.0%

다)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관련 연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영역은 일반적인 연계 실태, CYS-Net과의 연계 실태, Wee센터와의 연계 실태로 구분하였다. 단, 학교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학생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일반 연계 실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피해 중 주 연계 유형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를 다른 기관에 연계할 경우,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

중 어느 유형을 더 많이 연계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해사례가 더 많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고,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는 응답이 22.5%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해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고 한 경우가 13.7%,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11.7%였다.

표 43.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가해 사례가 더 많다	104	33.0
피해 사례가 더 많다	31	9.8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더 많다	37	11.7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43	13.7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71	22.5
잘 모르겠다	29	9.2
합계	315	100.0

####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외부기관에 연계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다. 1, 2, 3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가 343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치 실행 289점, 사안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 281점 순이었다. 이 외에도 처리방향 심의 및 결정(189점), 신고접수(165점) 등에서도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연계 단계 [교사]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신고접수	46	15.4	8	3.2	11	5.0	165	-
즉시조치	15	5.0	18	7.1	5	2.3	86	-
사안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	55	18.4	45	17.9	26	11.9	281	3
처리방향심의 및 결정	24	8.0	43	17.1	31	14.2	189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68	22.7	54	21.4	31	14.2	343	1
조치 실행	53	17.7	46	18.3	38	17.4	289	2
사후관리	33	11.0	37	14.7	72	32.9	245	-
기타	5	1.7	1	.4	5	2.3	22	-
합계	299	100.0	252	100.0	219	100.0	-	-

■ 주 연계 기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Wee센터가 544점으로 가장 많이 연계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84점으로 2순위, 경찰관서가 287점으로 3순위였다. 그 밖에도 교육청(235점), 청소년보호시설(138) 등과도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 [교사]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타)학교	19	6.1	5	1.9	4	1.7	71	-
교육청	46	14.8	35	13.2	27	11.6	235	-
wee센터	130	41.9	66	24.8	22	9.4	544	1
경찰관서	37	11.9	65	24.4	46	19.7	287	3
사법기관	1	.3	5	1.9	12	5.2	25	-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6	1.9	21	7.9	31	13.3	91	-
청소년 보호시설	6	1.9	9	3.4	21	9.0	13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	18.4	56	21.1	63	27.0	484	2
기타	8	2.6	4	1.5	7	3.0	39	-
합계	310	100.0	266	100.0	233	100.0	-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기관에게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중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31.5%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8.7%, 긴급 지원 및 위기지원이 11.5%, 연계 후 추후관리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70	11.5%
학교폭력 사안 조사	39	6.4%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92	31.5%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75	28.7%
의료, 법률 지원	32	5.2%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43	7.0%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3	.5%
연계 후 추후관리	54	8.9%
기타	2	.3%
합계	610	100.0%

■ **연계활동의 어려움**

외부기관과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허용했을 때,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이 1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3.5%,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12.8%, 본 기관의 업무과다와 대기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각각 11.1% 순이었다.

표 47. 연계활동의 어려움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97	11.1%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17	1.9%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124	14.2%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18	13.5%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112	12.8%
연계할 기관 부재	87	9.9%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	95	10.9%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67	7.7%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23	2.6%
대기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97	11.1%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2	3.7%
기타	6	.7%
합계	875	100.0%

라)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Wee센터와의 연계)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할 때,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치실행이 20.7%로 가장 많았고, 사안 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이 각각 19.1%, 사후관리 17.4%,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13.0% 순이었다.

표 48. Wee센터와의 연계 발생 단계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신고접수	9	3.0
즉시조치	8	2.7
사안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	57	19.1
처리방향심의 및 결정	16	5.4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39	13.0
조치실행	62	20.7
사후관리	52	17.4
기타	3	1.0
연계경험 없음	53	17.7
합계	299	100.0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교사들이 Wee센터와 학교폭력 관련 연계를 진행할 때, 어떤 지원과 개입을 원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39.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 역시 3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9.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	14	4.6
학교폭력 사안 조사	3	1.0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18	39.1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12	37.1
의료, 법률지원	2	0.7
지역 내 학교폭력 회의	6	2.0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1	0.3
연계 후 추후관리	12	4.0
기타	2	0.7
연계경험 없음	32	10.6
합계	302	100.0

상기 문항에서 학교가 Wee센터에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과 교육을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5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방교육 18.9%, 기타 11.7%, 출석정지 프로그램 9.9% 순이었다.

표 50. Wee센터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21	18.9
특별교육	59	53.2
출석정지 프로그램	11	9.9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7	6.3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3	11.7
합계	111	100

■ Wee센터의 강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사례연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Wee센터가 갖는 강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허용한 결과, 기관의 전문성이 30.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9.0%,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16.2%, 즉각적 대응 13.7%,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13.5% 순이었다.

표 51.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의 강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161	30.7%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85	16.2%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00	19.0%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71	13.5%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72	13.7%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26	5.0%
기타	10	1.9%
합계	525	100.0%

■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대기기간으로 인한 즉각적 연계의 어려움 14.1%,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4.0%로 두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서 행정절차의 복잡함 13.8%, 기관 간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 12.4% 순이었다.

표 52. Wee센터와 연계 시 어려운 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84	10.8%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26	3.3%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108	13.8%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09	14.0%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93	11.9%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97	12.4%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81	10.4%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30	3.8%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110	14.1%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3	4.2%
기타	10	1.3%
합계	781	100.0%

마)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CYS-Net과의 연계)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CYS-Net과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치실행 단계가 1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후관리 단계 13.6%, 사안 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 10.9% 순이었다.

표 53.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신고접수	6	2.0
즉시조치	6	2.0
사안조사와 학생, 부모 면담	32	10.9
처리방향심의 및 결정	21	7.1
자치위원히 개최 및 조치	28	9.5
조치실행	49	16.7
사후관리	40	13.6
연계경험 없음	112	38.1
합계	294	100.0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CYS-Net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연계 시, 학교가 CYS-Net에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54.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에 기대하는 지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	9	3.1
학교폭력 사안 조사	5	1.7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17	40.2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79	27.1
의료, 법률지원	1	0.3
지역 내 학교폭력 회의	2	0.7
연계 후 추후관리	14	4.8
연계경험 없음	64	22.0
합계	291	100.0

상기 문항에서 CYS-Net과 연계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어떤 종류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조사한 하였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4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6.5%, 예방교육 15.2% 순이었다.

표 55. CYS-Net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12	15.2
특별교육	38	48.1
출석정지 프로그램	8	10.1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8	10.1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3	16.5
합계	79	100

### ■ CYS-Net의 강점

학교가 학교폭력 관련 연계를 진행할 때, CYS-Net이 갖는 강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관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19.4%, 다양화되고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이 17.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6.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의 강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150	31.3%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55	11.5%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93	19.4%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84	17.5%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63	13.2%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27	5.6%
기타	7	1.5%
합계	479	100.0%

■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과 학교폭력 관련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이 20.5%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해 인식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14.4%,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이 11.4%,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와 즉각적인 연계의 어려움이 각각 10.8% 순이었다.

표 57.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81	11.5%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23	3.3%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70	10.0%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76	10.8%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144	20.5%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80	11.4%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101	14.4%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13	1.8%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76	10.8%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2	3.1%
기타	17	2.4%
합계	703	100.0%

## 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

### ■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 활성화와 관련된 교사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교사들은 향후 학교와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으로 Wee센터를 꼽았다(35.8%).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시 32.0%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외에는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9.8%, 경찰관서 8.9% 순이었다.

표 58.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교사]

항목	빈도(N)	비율(%)
(타)학교	6	1.9
교육청	20	6.3
wee센터	113	35.8
경찰관서	28	8.9
사법기관	6	1.9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31	9.8
청소년 보호시설	6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1	32.0
기타	5	1.6
합계	316	100.0

### ■ 연계 활성화 요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1, 2, 3순위 다중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363점으로 1순위였으며,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2순위(297점),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가 3순위(278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연계지침 마련(264점),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215점) 등의 의견에 대한 비중도 높았다. 가중치 적용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순위 응답 내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24.9%) 다음으로 연계지침 마련이 2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9. 연계 활성화 요건 [교사]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연계지침 마련	70	22.4	19	6.1	16	5.2	264	-
행정절차 간소화	78	24.9	53	17.1	23	7.5	363	1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46	14.7	28	9.0	21	6.9	215	-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38	12.1	63	20.3	38	12.4	278	3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 필요	31	9.9	36	11.6	40	13.1	205	-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	13	4.2	28	9.0	27	8.8	122	-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29	9.3	67	21.6	76	24.8	297	2
시설 및 공간 공유	1	.3	6	1.9	27	8.8	42	-
사례 관련 정보 공유	4	1.3	7	2.3	30	9.8	56	-
사업 정보 공유	1	.3	2	.6	8	2.6	15	-
기타	2	.6	1	.3	-	-	8	-
합계	313	100.0	310	100.0	306	100.0	-	-

■ 학교폭력 연계관련 자유 의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연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 중심기관 마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즉각적 대응 및 개입, 업무 과다, 행정절차 간소화,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강력한 조치 이행 기관 마련, 홍보, 정보공유, 비밀보장,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수 관리, 전문성 강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학교의 개방 및 인식 제고, 기관장 인식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 3) Wee센터의 연계 실태

#### 가) 응답자 현황

##### ■ 응답자 특성

Wee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남성 17.3%, 여성 82.7%로 여성 응답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7.3%, 40세 이상~50세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의 경우, 대학 졸업이 42.0%로 가장 많았고, 석사 졸업 34.6%, 석사과정 19.8%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직위는 전문인력이 55.0%로 대부분이었고, 이어서 실장이 31.3%로 많았다. 경력을 살펴 보면, 총 경력은 5년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7.7%, 1년 이상~2년 미만 14.5% 순이었다. 본 기관에서의 경력은 1년 미만이 49.4%로 대부분이었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31.3%, 2년 이상~3년 미만과 3년 이상이 각각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응답자 특성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	14	17.3	연령	30세 미만	18	21.7
	여	67	82.7		30세 이상~40세 미만	31	37.3
	합계	8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2	26.5
학력	대학교 졸업	34	42.0		50세 이상	12	14.5
	석사과정(수료)	16	19.8		합계	83	100.0
	석사 졸업	28	34.6	직위	팀장	3	3.8
	박사과정(수료)	2	2.5		실장	25	31.3
	박사졸업	1	1.2		부실장	4	5.0
합계	81	100.0	전문인력		44	55.0	
총기관경력	1년 미만	23	27.7		기타	4	5.0
	1년 이상~2년 미만	12	14.5	합계	80	100.0	
	2년 이상~3년 미만	7	8.4	본기관경력	1년 미만	41	49.4
	3년 이상~4년 미만	8	9.6		1년 이상~2년 미만	26	31.3
	4년 이상~5년 미만	7	8.4		2년 이상~3년 미만	8	9.6
	5년 이상	26	31.3		3년 이상	8	9.6
합계	83	100.0	합계		83	100.0	

■ 소속 기관 특성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소속된 Wee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14.5%를 나타냈고,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2.0%, 경상남도가 7.2%로 조사되었다. 센터의 운영형태로는 응답자 중 직영 93.4%, 위탁운영 6.6%로 대부분이 직영 형태로 운영되었다. 기관장의 유형으로는 상근인 경우가 81.3%, 비상근인 경우가 18.8%로 대부분 상근 기관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설립연차는 1년차가 14.5%, 2년차가 15.7%, 3년차가 31.3%, 4년차가 24.1%, 5년차 이상이 14.5%였다.

표 61. 소속 기관 특성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위탁 구분	위탁	5	6.6	시/도	서울시	12	14.5
	직영	71	93.4		부산시	4	4.8
	합계	76	100.0		대구시	3	3.6
기관장 유형	상근	65	81.3		인천시	5	6.0
	비상근	15	18.8		광주시	2	2.4
	합계	80	100		대전시	3	3.6
설립 연차	1년차	12	14.5		울산시	2	2.4
	2년차	13	15.7		경기도	5	6.0
	3년차	26	31.3		강원도	5	6.0
	4년차	20	24.1		충청북도	10	12.0
	5년차 이상	12	14.5		충청남도	5	6.0
	합계	83	100		전라북도	4	4.8
			전라남도		10	12.0	
			경상북도	7	8.4		
			경상남도	6	7.2		
			합계	83	100.0		

나) 학교폭력 사례 현황

■ 학교폭력 사례 수

2012년 상반기 동안 Wee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 현황을 알아보았다. 접수된 사례 수의 경우, 10명 이상~50명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명 이상이 20.5%,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15.7%, 100명 이상~150명 미만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단, 사례 수는 개별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과 집단지원(교육, 집단상담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표 62. 학교폭력 접수 사례 수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10명 미만	7	8.4
10명 이상~50명 미만	35	42.2
50명 이상~100명 미만	13	15.7
100명 이상~150명 미만	9	10.8
150명 이상~200명 미만	2	2.4
200명 이상	17	20.5
합계	83	100.0

■ 학교폭력 유형

응답자가 속한 Wee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폭력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와 강요 24.1%, 언어적폭력 19.7%, 따돌림 16.2% 순이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 3.9%, 성폭력 3.1% 등으로 응답되었다.

표 63. 학교폭력 접수 사례 유형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신체적 폭력	75	32.9%
언어적 폭력	45	19.7%
금품갈취, 강요	55	24.1%
따돌림	37	16.2%
성폭력	7	3.1%
사이버 폭력	9	3.9%
합계	228	100.0%

다)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일반)

이어서 Wee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영역은 연계실태 일반, Wee센터와의 연계 실태, 학교와의 연계 실태로 구분하였다. 학교폭력 관련된 일반적인 연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 가·피해 중 주 연계 유형

Wee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가해와 피해 중 어

는 유형의 사례가 더 많았는지 알아보았다. 연계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사례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37.8%, 피해 사례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14.6%,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는 응답도 34.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4.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보낼 경우)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가해 사례가 더 많다	31	37.8
피해 사례가 더 많다	12	14.6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더 많다	7	8.5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1	1.2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28	34.1
잘 모르겠다	3	3.7
합계	82	100.0

다음으로 타 기관의 사례를 Wee센터로 연계 받는 경우에도 가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2.2%). 연계가 없었던 경우(11.0%)를 제외하고, 피해 사례가 더 많다는 응답이 13.4%, 가해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학교폭력 연계 시 주 유형(사례를 받을 경우)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가해 사례가 더 많다	51	62.2
피해 사례가 더 많다	11	13.4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더 많다	4	4.9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6	7.3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9	11.0
잘 모르겠다	1	1.2
합계	82	100.0

#### ■ 주 연계 기관

Wee센터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알아보았다. 우선 본 기관의 사례를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1, 2, 3순의 다중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가 103점으로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88점으로 2순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센터가 87점으로 3순위였다. 이 외에도 경찰관서 31점, 교육청 30점 순이었다.

표 66.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보낼 때) [Wee센터]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교육청	9	11.7	-	-	3	7.1	30	-
타지역wee센터	5	6.5	2	3.3	1	2.4	20	-
경찰관서	3	3.9	9	15.0	4	9.5	31	-
사법기관	-	-	1	1.7	1	2.4	3	-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24	31.2	11	18.3	9	21.4	103	1
청소년 보호시설	2	2.6	4	6.7	4	9.5	18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13	16.9	20	33.3	9	21.4	88	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센터	13	16.9	13	21.7	9	21.4	87	3
기타	8	10.4	-	-	2	4.8	26	-
합계	77	100.0	60	100.0	42	100.0	-	-

한편, 타 기관으로부터 본 기관으로 사례를 의뢰받는 경우,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학교가 가중치 점수 236점으로 1순위였으며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교육청이 60점으로 2순위, 경찰관서가 52점으로 3순위로 나타났다.

표 67. 학교폭력 관련 주 연계 기관(사례를 받을 때)[Wee센터]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학교	76	91.6	4	6.0	-	-	236	1
교육청	2	2.4	25	37.3	4	7.8	60	2
타지역wee센터	1	1.2	4	6.0	4	7.8	15	-
경찰관서	1	1.2	19	28.4	11	21.6	52	3
사법기관	-	-	2	3.0	3	5.9	7	-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2	2.4	1	1.5	10	19.6	18	-
청소년 보호시설	-	-	6	9.0	4	7.8	16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1	1.2	4	6.0	14	27.5	25	-
기타	-	-	2	3.0	1	2.0	5	-
합계	83	100.0	67	100.0	51	100.0	-	-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를 진행할 경우, 본 기관 및 타 기관이 기대하는 지원은 무엇

인지 알아보았다. 우선 본 기관의 사례를 타 기관으로 보낼 때, Wee센터가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중응답을 허용했을 때,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4.5%, 의료, 법률지원이 17.9%, 긴급 및 위기지원이 12.6% 순이었다.

표 68.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에게 요청하는 지원(다중 응답)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19	12.6%
학교폭력 사안 조사	5	3.3%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41	27.2%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37	24.5%
의료, 법률 지원	27	17.9%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3	2.0%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4	2.6%
연계 후 추후관리	14	9.3%
기타	1	.7%
합계	151	100.0%

한편 타 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연계 받을 때는 어떤 지원 및 개입을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다중응답을 허용했을 때,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48.1%로 가장 많이 요청받는 개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43.8%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69. 학교폭력 연계 시 타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다중 응답)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5	3.1%
학교폭력 사안 조사	4	2.5%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71	43.8%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78	48.1%
의료, 법률 지원	1	0.6%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	2	1.2%
연계 후 추후관리	1	0.6%
합계	162	100.0%

#### ■ 학교폭력 연계 시 Wee센터의 강점

학교폭력 관련된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Wee센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알아보

았다. 그 결과 기관의 전문성 3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지역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점 선택한 경우 역시 29.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11.7%, 즉각적인 대응 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0.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50	30.9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47	29.0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3	8.0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15	9.3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18	11.1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19	11.7
합계	162	100.0

#### ■ 연계활동의 어려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계활동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했다. 다중응답을 허용한 결과,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이 1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응답기관 자체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 16.8%, 연계할 기관이 부재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연계활동의 어려움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36	16.8%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1	.5%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19	8.9%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29	13.6%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17	7.9%
연계할 기관 부재	35	16.4%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	38	17.8%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10	4.7%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3	1.4%
대기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20	9.3%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5	2.3%
기타	1	0.5%
합계	214	100.0%

라)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CYS-Net과의 연계)

■ 연계 발생 단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CYS-Net과 연계할 때, 사례 진행 절차 중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Wee센터의 사례를 CYS-Net으로 보내는 경우, 접수단계에서 연계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12.8%로 가장 많았고, 사후관리 단계 11.5%, 상담 단계 9.0%, 복지지원서비스와 교육 단계가 각각 7.7% 순이었다.

표 72.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보낼 때)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접수	10	12.8
상담	7	9.0
복지지원서비스	6	7.7
교육	6	7.7
사후관리	9	11.5
연계경험 없음	40	51.3
합계	78	100.0

이어서 CYS-Net의 사례를 Wee센터로 연계 받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접수단계와 상담 단계에서 연계를 받는 경우가 각각 9.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육이 7.8%, 사후관리가 6.5%, 복지지원서비스 5.2% 등으로 나타났다.

표 73. CYS-Net과의 연계 발생 단계(사례를 받을 때)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접수	7	9.1
사례판정	2	2.6
심리검사	2	2.6
상담	7	9.1
복지지원서비스	4	5.2
교육	6	7.8
사후관리	5	6.5
기타	1	1.3
연계경험 없음	43	55.8
합계	77	100.0

###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폭력 관련하여 CYS-Net과 연계할 때, Wee센터가 CYS-Net에 주로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7.3%로 가장 많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8.2%, 긴급 및 위기지원 7.8%, 연계 후 추후관리 7.8% 순이었다.

표 74.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에 기대하는 지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6	7.8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4	18.2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21	27.3
의료, 법률 지원	1	1.3
연계 후 추후관리	6	7.8
기타	1	1.3
연계 경험 없음	28	36.4
합계	77	100.0

상기 문항에서 CYS-Net에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61.9%로 가장 많았고,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9.0% 등으로 나타났다.

표 75. CYS-Net에 요청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특별교육	13	61.9
출석정지 프로그램	2	9.5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2	9.5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4	19.0
합계	21	100.0

한편, Wee센터가 CYS-Net로부터 주로 요청받는 지원 및 개입으로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이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표 76.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학교폭력 사안 조사	1	1.3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1	14.1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19	24.4
현금, 현물 서비스 지원	1	1.3
연계 후 추후관리	1	1.3
기타	3	3.8
연계 경험 없음	42	53.8
합계	78	100.0

상기 항목 중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를 CYS-Net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에 대한 요청이 78.9%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예방교육과 출석정지 프로그램은 각각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CYS-Net으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2	10.5
특별교육	15	78.9
출석정지 프로그램	2	10.5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0	0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0	0
합계	19	100.0

#### ■ CYS-Net의 강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CYS-Net과 연계하는 경우, CYS-Net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CYS-Net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기관의 전문성 19.1%, 지역사회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15.5%,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학교폭력 연계 시 CYS-Net의 강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기관의 전문성	21	19.1%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17	15.5%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31	28.2%
다양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16	14.5%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11	10.0%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7	6.4%
기타	7	6.4%
합계	110	100.0%

■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CYS-Net과 학교폭력 관련 연계 진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20.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대기 기간으로 인한 즉각적 연계의 어려움 16.0%, 업무과다 11.0%, 복잡한 행정절차 10.4%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79. CYS-Net과 연계 시 어려운 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18	11.0%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7	4.3%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17	10.4%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16	9.8%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16	9.8%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33	20.2%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11	6.7%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5	3.1%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26	16.0%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	4.3%
기타	7	4.3%
합계	163	100.0%

마)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학교와의 연계)

■ 연계 시 기대하는 지원

학교로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례를 받을 때, Wee센터는 어떤 개입을 요청받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81.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6.5%,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2.5%로 나타났다.

표 80. 학교폭력 연계 시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학교폭력 사안 조사	2	2.5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13	16.5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64	81.0
합계	79	100.0

상기 항목에서 학교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주로 어떠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받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교육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81. 학교로부터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 종류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예방교육	9	14.1
특별교육	48	75.0
출석정지 프로그램	4	6.3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	1.6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2	3.1
합계	64	100.0

■ 학교와 연계 시 어려운 점

학교와 연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Wee센터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 기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이 2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 불분명 15.9%,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로 인한 어려움 14.3% 순이었다.

표 82. 학교와의 연계 시 어려운 점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귀 기관의 업무과다	56	29.6%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5	2.6%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20	10.6%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27	14.3%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11	5.8%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30	15.9%
대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17	9.0%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15	7.9%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	1.6%
기타	5	2.6%
합계	189	100.0%

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

■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학교폭력 관련된 기관 중, 학교폭력의 대응을 위해 향후 Wee센터와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가 28.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센터가 24.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5%, 교육청과 경찰관서 각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 [Wee센터]

항목	빈도(N)	비율(%)
교육청	6	7.3
타지역wee센터	2	2.4
경찰관서	6	7.3
사법기관	3	3.7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23	28.0
청소년 보호시설	1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	19.5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센터	20	24.4
기타	5	6.1
합계	82	100.0

### ■ 연계 활성화 요건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1, 2, 3순위 다중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연계기간 간의 적극적인 태도가 103점으로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81점으로 2순위,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이 65점으로 3순위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연계지침 마련(63점), 행정절차 간소화(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중치 적용 결과 순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1순위 응답 내에서는 연계지침 마련이 18.5%로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22.2%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연계 활성화 요건 [Wee센터]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계	순 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연계지침 마련	15	18.5	3	3.8	12	15.6	63	-
행정절차 간소화	9	11.1	10	12.7	10	13.0	57	-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6	7.4	4	5.1	6	7.8	32	-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18	22.2	20	25.3	9	11.7	103	1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 필요	5	6.2	11	13.9	5	6.5	42	-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	11	13.6	13	16.5	6	7.8	65	3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15	18.5	10	12.7	16	20.8	81	2
시설 및 공간 공유	-	-	3	3.8	2	2.6	8	-
사례관련 정보 공유	2	2.5	3	3.8	6	7.8	18	-
사업 정보 공유	-	-	2	2.5	5	6.5	9	-
합계	81	100.0	79	100.0	77	100.0	-	-

### ■ 학교폭력 연계관련 자유 의견

응답자들에게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연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 중심기관 마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즉각적 대응 및 개입, 업무 과다, 행정절차 간소화,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정보공유,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수 관리, 전문성 강화,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학교의 개방 및 인식 제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 4) 기관별 연계 실태 소결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CYS-Net과 학교, Wee Project의 연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교사, Wee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별 연계 실태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사례 접수 및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CYS-Net과 Wee센터 모두 2012년 상반기 동안 10명~50명 정도의 학교폭력 사례를 접수하여, 양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두 기관 모두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신체폭력 사건의 경우,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에 비하여 사안이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응답에서도 교내 학교폭력 사안 중 신체적 폭력의 비중이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순위로 많은 유형의 경우, Wee센터는 금품갈취유형이 많았던 반면 CYS-Net에는 따돌림이나 언어적 폭력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폭력은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에 비해 은밀하고, 특히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비밀보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CYS-Net에는 신고를 통해 처리되지 않거나 비밀보장을 원하는 내담자들이 더 많이 의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한 연계실태 일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CYS-Net과 Wee센터 모두 사례를 의뢰 받을 때는 가해 유형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CYS-Net과 Wee센터 모두 학교를 통한 사례 의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외부기관으로 의뢰할 때 가해 사례를 많이 의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의뢰뿐 아니라 CYS-Net, Wee센터와 연계시 각각의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해사례처럼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고위기 사례의 경우에 타기관과의 연계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해 사례는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출석정지 프로그램 등 교육 수요가 많은데, 이러한 교육이 Wee센터뿐만 아니라 CYS-Net으로도 많이 의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기관들은 특히 CYS-Net은 보다 포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 중첩된 고위기 사례개입에 관한 전문성들을 높여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타 기관으로 사례를 보내는 경우에는 CYS-Net과 Wee센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CYS-Net은 사례를 보내는 경우, 피해 유형을 더 많이 의뢰하였고, 주로 연계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학교 등이었다. 이는 CYS-Net에서 직접 수행하기 힘든 약물 치료, 정신건강 검사 등을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례에 대한 추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와도 연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Wee센터는 사례를 보내는 경우에도 가해 유형을 더 많이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연계기관은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센터 등이었다. FGI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할 때, Wee센터에서 소화하기 힘든 가해 사례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사례를 의뢰하는 기관은 Wee센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으로 두 기관이 학교폭력 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계 시 주로 기대하는 지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로 나타났다. 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 시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지원 역시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로 나타나, 학교의 연계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 두 기관에서 많은 연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CYS-Net과 Wee센터가 타기관에 요청하는 지원은 차이가 있었다. CYS-Net의 경우 의료/법률 지원을 타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Wee센터는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즉, Wee센터가 상담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타 기관에게 이를 다시 요청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과 교육 수요가 많고, 이를 Wee센터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본 기관의 강점 및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CYS-Net과 Wee센터 모두 스스로의 강점을 전문성과 지역에서의 신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계 시 어려움의 경우에도 CYS-Net과 Wee센터 모두 업무과다와 기관 간 역할 및 한계의 불분명함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학생·학부모의 거부를 연계시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어, 각 기관은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학교가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들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렵게 만들어 더욱 소극적으로 학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학교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CYS-Net과 Wee센터 간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기관 간에 사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주로 연계가 발생하는 단계는 접수 단계였다. 이는 사례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연계가 발생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조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사례를 통괄, 조정하는 사례관리자가 있고, 각 기관의 사례관리자가 기관별로 사례들을 의뢰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상대 기관에서 연계 시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을 살펴보면, CYS-Net과 Wee센터 모두 서로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와 전문적 상담 및 슈퍼비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대 기관에게서 요청받는 지원 역시 상담과 교육이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는 타 기관에 요청하거나 요청 받는 경우 모두, 특별교육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 지적된 것처럼 기관 간 역할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규모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교육과 상담을 두 기관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 기관과 연계 시의 강점과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YS-Net은 Wee센터의 주요 강점으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신뢰를 꼽았다. 이는 Wee센터가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와의 연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따라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높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Wee센터는 CYS-Net의 강점으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꼽았다. Wee센터에 비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오래간 해왔고, 필수연계기관, 1388지원단 등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 기관과의 연계 시 어려운 점으로는, 두 기관 모두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요하게 꼽았다. 즉, 상담, 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등 주요 기능이 비슷한 기관이므로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실무자들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CYS-Net과 학교 간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기관 간 연계가 발생하는 단계의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를 실행할 때 CYS-Net과 연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청하는 지원은 전문적 상담 및 슈퍼비전이 가장 많았다. CYS-Net에서의 역시, 상담 및 슈퍼비전을 가장 많이 요청받는다고 응답하여, 학교

에서 상담 등에 대한 조치 실행을 CYS-Net으로 연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CYS-Net과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꼽았는데, 전문적 상담 및 슈퍼비전에 대한 제공이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학교의 주요한 욕구임을 유추할 수 있다.

상대기관과의 연계 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CYS-Net은 학교와 연계 시 본 기관의 업무 과다와 학교에서의 연계 인식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CYS-Net과 연계 시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이어서 CYS-Net의 연계 인식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로에게 연계 인식의 미비를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나 연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Wee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는 조치실행 단계에서 Wee센터와 주로 연계한다고 답하였으며, 연계 시에는 요청하는 지원으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Wee센터는 학교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주로 요청받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FGI 시 학교에서 의뢰된 교육 등으로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 요청에 대한 체감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사들은 Wee센터와 학교폭력 연계 시 강점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꼽았는데, CYS-Ne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상담 및 슈퍼비전에이 학교의 주요한 연계 욕구임을 유추할 수 있다.

상대기관과의 연계 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Wee센터는 본 기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 반면, 학교에서는 대기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의 어려움, 학생·학부모의 거부,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Wee센터는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즉각적인 개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기관별로 향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YS-Net의 경우 학교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Wee센터, 교육청 순이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상,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부처가 상이한 기관에서 개입할 때 장벽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Wee센터의 경우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센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Wee센터의 응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과다한 수요와 업무를 연계활동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요구로 볼 수 있다. 학교의 경우, Wee

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상담 및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원하는 학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는, 세 기관 모두에서 연계지침 마련, 연계 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1순위 응답 내에서 세 기관 모두 연계지침 마련을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를 하려해도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앞서 지적되었던 기관 간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계업무를 위한 지침은 각 지역별, 기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먼저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이 원칙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상기 결과들은 연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실제 답변 내용에서는 CYS-Net과 Wee센터 간의 연계 경험이 없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선 현장에서 아직 두 기관 간 연계가 사실상 활성화 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연계 요인별 실태

### 1) 개인요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연계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살펴보았다. 개인요인은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계활동에의 참여 정도 및 의사, 연계 성과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CYS-Net, 학교, Wee센터별로 개인요인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CYS-Net 실무자, 교사, Wee센터 실무자들의 연계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계 필요성은 연계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사례, 정보, 사업, 인적 네트워크, 공간 등 연계 영역별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세 기관 모두 대부분의 문항을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계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세 기관 모두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학교, CYS-Net, Wee센터 응답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연계 영역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사업이나 인적 연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공간 연계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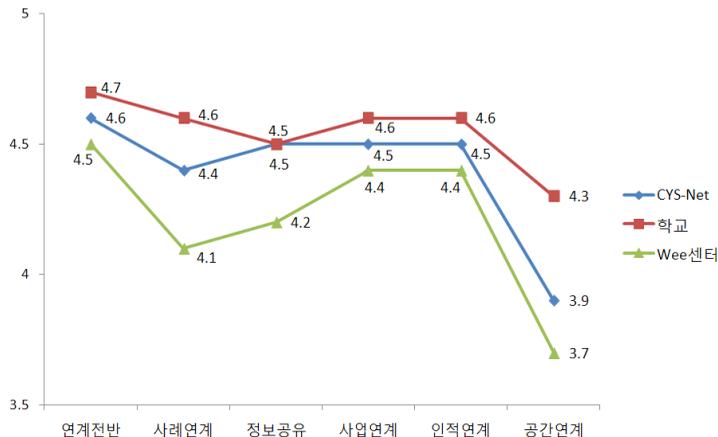


그림 11. 기관별 연계 필요성 인식 정도

표 85. 연계 필요성 인식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6	0.60	4.7	0.54	4.5	0.59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사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	0.72	4.6	0.66	4.1	0.88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응기관 간의 대상자 및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	0.68	4.5	0.64	4.2	0.8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	0.66	4.6	0.62	4.4	0.7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협의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	0.68	4.6	0.62	4.4	0.67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게 시설 및 강의장 등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9	1.00	4.3	0.76	3.7	1.09

### ■ 연계활동 참여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연계활동 역량과 참여 정도 알아보았다. 자신의 연계활동 관련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3점 이하로 평가하여 응답자들은 자신의 연계활동 역량을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단, 본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있다고 평가함을 의미). 특히 교사들의 경우 평균 점수가 1.9점으로 연계역량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연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연계활동에 참여할 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기관별로는 CYS-Net 응답자들이 연계역량 및 참여 정도 모두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사 응답자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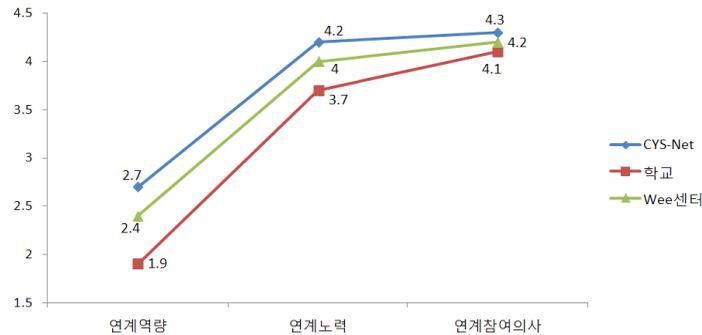


그림 12. 연계활동 역량 및 참여정도

표 86. 연계활동 참여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타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인맥, 지식, 정보가 적다.(역채점)	2.7	1.01	1.9	0.91	2.4	0.87
나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4.2	0.68	3.7	0.93	4.0	0.78
앞으로 연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4.3	0.59	4.1	0.73	4.2	0.76

■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의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계활동의 긍정적인 성과와 학교폭력 대응 성과를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과보다 학교폭력 대응에의 성과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기관별로는 CYS-Net 응답자들이 연계성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Wee센터, 교사 응답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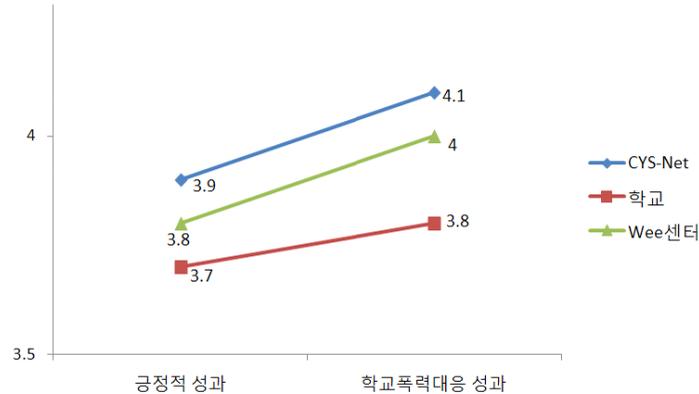


그림 13.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

표 87. 연계성과에 대한 인식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난 연계활동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성과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3.9	0.79	3.7	0.92	3.8	0.79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계활동은 학교폭력 대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1	0.69	3.8	0.85	4.0	0.79

## 2) 기관장 요인

### ■ 기관장의 연계 인식 및 역할 수행

학교폭력 관련 연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관장의 연계 인식과 지지 및 참여 등 기관장의 역할수행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관장 인식의 경우, CYS-Net과 Wee센터 응답자들은 기관장의 인식 정도를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교사 응답자들은 평균 3.8로 두 기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역할 수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연계 지지에 비하여 연계 참여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 Wee센터는 기관장의 연계활동 참여 정도의 평균이 각각 3.0점, 3.5점으로 보통수준 정도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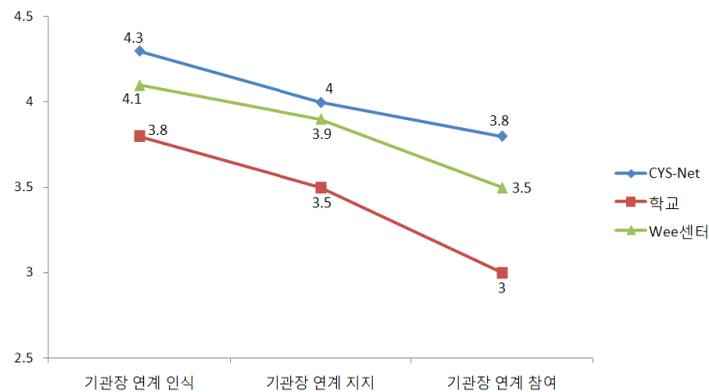


그림 14. 기관장의 연계 인식 및 역할 수행 정도

표 88. 기관장의 연계 인식 및 역할 수행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4.3	0.83	3.8	0.88	4.1	0.70
기관장의 연계활동에 대한 지지와 노력이 크다.	4.0	0.92	3.5	0.96	3.9	0.79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3.8	1.04	3.0	1.00	3.5	0.95

### 3) 조직 요인

#### ■ 조직의 연계 인식

학교폭력 관련 연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을 살펴보았다. 조직 요인은 조직의 연계에 대한 인식과 연계활동의 지원 및 참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조직의 연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연계활동 필요성의 경우, 세 기관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YS-Net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Wee센터 응답자 순이었다. 연계활동이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연계 필요성보다 다소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으나, 평균 3.9점~4.1점 사이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기관별로는 CYS-Net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Wee센터, 학교 응답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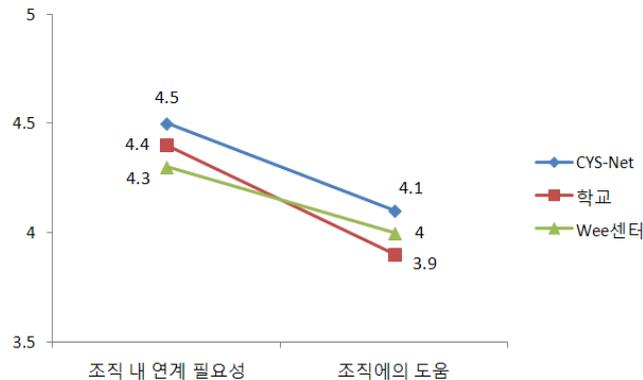


그림 15. 조직의 연계 인식 정도

표 89. 조직의 연계 인식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직 내에서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4.5	0.61	4.4	0.70	4.3	0.65
연계활동은 우리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4.1	0.71	3.9	0.87	4.0	0.85

### ■ 조직의 지원 및 참여

다음으로 조직의 연계활동 지원 및 참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조직의 연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소속 기관이 연계활동에서 주도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 기관 모두 보통이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CYS-Net 응답자들이 평균 3.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 응답자들이 평균 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연계활동 지원 전반의 경우, 세 기관 모두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중 CYS-Net과 Wee센터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동일했으며, 교사 응답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기관의 지원 중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및 자원 제공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보통이상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CYS-Net 응답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Wee센터, 교사 응답자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의 경우, 세 기관 모두 보통이하로 평가하여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ee센터 응답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CYS-Net, 교사 응답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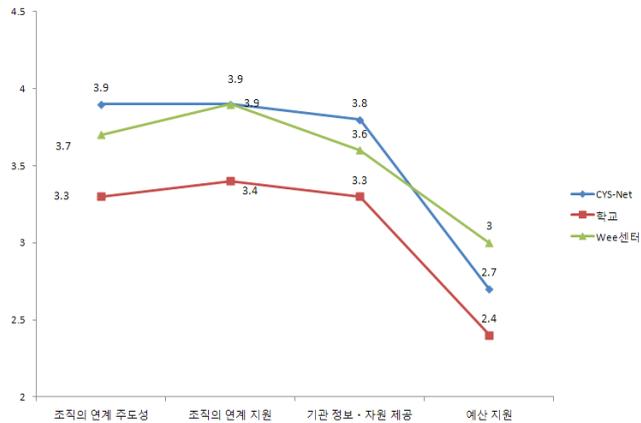


그림 16. 조직의 연계 지원 및 참여 정도

표 90. 조직의 연계 지원 및 참여

항목	CYS-Net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우리 조직은 연계활동에서 주도적이다.	3.9	0.83	3.3	0.85	3.7	0.82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 내의 지원과 도움이 있다.	3.9	0.90	3.4	0.91	3.9	0.85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나 자원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8	0.83	3.3	0.90	3.6	0.84
기관 간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하다.	2.7	0.98	2.4	0.74	3.0	1.01

#### 4) 상호작용 요인

연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연계활동 시, 상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상호작용 요인은 상대기관에 대한 업무 인지도, 상대기관과의 신뢰관계, 상대기관과의 조율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요인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CYS-Net 응답자가 교사 응답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상대기관의 정보, 신뢰관계 형성의 경우 CYS-Net 응답자와 교사 응답자 간의 평가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치 및 이념 차이에 따른 조율이 어렵다는 문항은 CYS-Net 응답자들의 점수가 더 높아서 교사 응답자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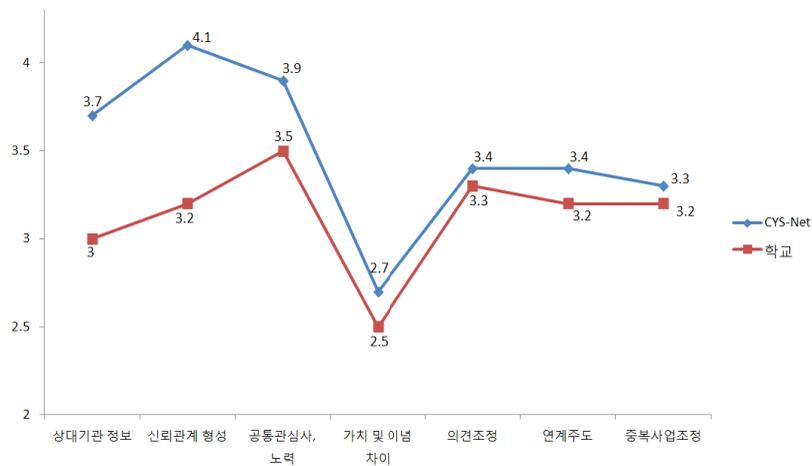


그림 17.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표 91. CYS-Net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요인

항목	CYS-Net		학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기관이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3.7	0.95	3.0	1.16
상대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0.72	3.2	1.1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3.9	0.83	3.5	1.08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이념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2.7	0.93	2.5	0.83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3.4	0.79	3.3	0.90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3.4	0.85	3.2	0.96
기관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0.90	3.2	0.93

■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Wee센터 응답자가 CYS-Net 응답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CYS-Net과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복사업 조정의 경우, 두 기관의 응답자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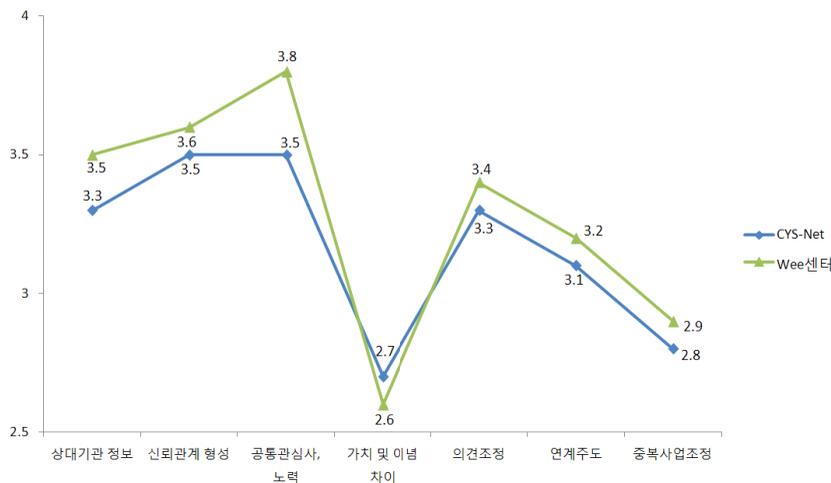


그림 18.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표 92.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항목	CYS-Net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기관이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3.3	1.01	3.5	0.91
상대기관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3.5	0.94	3.6	0.92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3.5	0.97	3.8	0.90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2.7	0.94	2.6	0.85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3.3	0.85	3.4	0.88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3.1	0.92	3.2	0.94
기관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0.99	2.9	1.06

■ 학교와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CYS-Net과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Wee센터 응답자가 교사 응답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학교와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Wee센터는 학교의 관련 업무 정보, 신뢰관계 형성, 공통 관심사 등에 평균 4.3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교사들은 평균 3.4점~3.6점 정도로 평가하여 두 기관의 평가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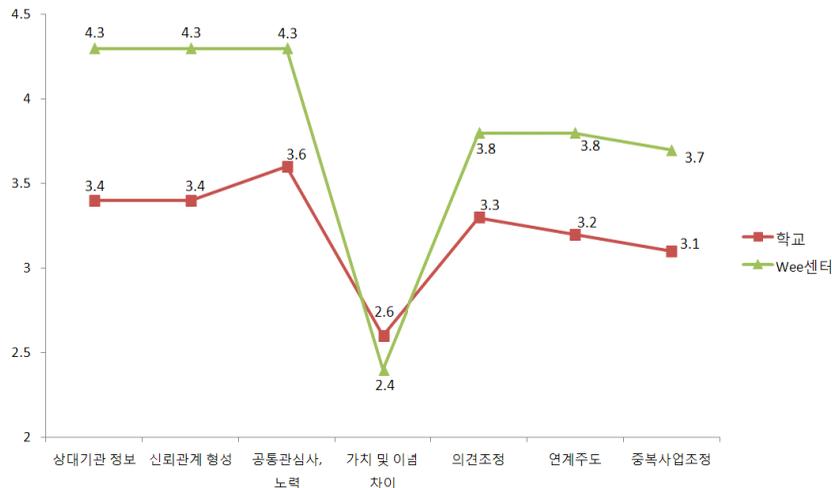


그림 19. 학교와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비교

표 93. 학교와 Wee센터 간의 상호작용 요인

항목	학교		Wee센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기관이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3.4	0.96	4.3	0.69
상대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3.4	0.95	4.3	0.66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3.6	0.84	4.3	0.71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2.6	0.84	2.4	0.84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3.3	0.78	3.8	0.82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3.2	0.88	3.8	0.87
기관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1	0.83	3.7	0.87

### 5) 학교폭력 연계 요인별 실태 소결

CYS-Net, 학교, Wee센터 간의 학교폭력 관련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요인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의 경우,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사들이 높지만 연계활동의 참여와 연계 성과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학교 역시 외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사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제 연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YS-Net 응답자들은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계 성과 인식, 연계활동 참여 모두 세 기관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세 기관의 응답자 모두 연계를 필요한 역량을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하여 연계를 위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관장 요인의 경우, CYS-Net 응답자들이 기관장의 인식 및 역할 수행 정도가 가장 높고, 교사들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 기관 모두 기관장의 연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하여 기관장의 연계참여는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FGI 등에서 기관장의 연계 참여 정도가 연계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상호작용 요인의 경우, 학교와 CYS-Net, 학교와 Wee센터 간의 평가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CYS-Net과 Wee센터 응답자들은 학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긍

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교는 양 기관에 대한 업무 인지도, 신뢰관계 형성, 공통의 관심사 등의 항목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Wee센터와 학교 간에 상대 기관에 대한 인지도, 신뢰관계 형성 등에서 시각 차이가 큰 경향을 보였다. 이는 CYS-Net이나 Wee센터와 같은 외부기관이 학교를 알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교사들이 외부 기관을 잘 모르고 접촉할 기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또한 Wee센터 응답자들은 개인요인과 기관장 요인에서 CYS-Net 응답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호작용 요인은 CYS-Net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CYS-Net과 Wee센터 응답자 모두 기관 간 중복 프로그램 및 대상자에 대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여, 두 기관이 중복 사업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 2.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차 및 2차에 걸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상위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단,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12년 8월 이후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었으나, 인터뷰 시점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로 사용한 경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용한 경우가 모두 있어, 본문 중에는 두 명칭을 혼용하여 기재하였다.)

### 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 실태

#### ① CYS-Net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CYS-Net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영역 문제 중 또래관계, 학교일탈, 부적응 등의 문제영역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양보다는 한 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장전문가들은 사건 하나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를 주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와 이에 따른 또래상담자 양성사업의 확대, 가족관계개선사업 등 학교폭력 관련업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신선별검사에 의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선별과 관리 등 수많은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Wee 센터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인원들이 결국 CYS-Net 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CYS-Net을 비롯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업무부담이 예측된다. 이에 CYS-Net은 동반자 조직을 특별교육 전담팀으로 개편하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업무를 학교폭력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단계에 따른 추진,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 ② Wee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Wee 센터의 경우 교과부 및 교육청의 다양한 요구에 의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Wee 센터에서는 학업중단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의뢰되는 피해와 가해 사례 모두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과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교육이

강화되면서, Wee 센터의 역량이 상당부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과 이 외의 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집중되고 있고, 가해학생의 부모 또한 특별교육 이수화가 강제되면서 부모 특별교육을 매달, 혹은 매주 운영해야 한다.

Wee센터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일선 학교들로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의뢰와 업무문의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전화 응대 또한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Wee센터 전문가들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부담과 Wee센터 내의 인력이 적으므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기에 자치위의 참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에 대한 다른 지원 업무로는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Wee클래스에서 다루기 어려운 위기 사례를 연계 받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었으나,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 전담상담사가 Wee센터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사, 상담, 개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Wee라는 '새로운 조직' 이 생기면서, 정신건강 사업, 기초학력증진사업, 대안교육과 같이 교과부 내의 여러 유사사업들이나 주관부서가 애매했던 사업들이 Wee로 넘어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 ③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준비나 매뉴얼의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어설픈 대응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실적 자료 등으로 인해 학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종합대책에서는 복수담임제 등을 보완책으로 두고 있으나 교사 증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허울 좋은 복수담임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소진이 나타나고, 교사를 위한 상담과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및 가해자 부모 대응 매뉴얼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나. 세 기관의 연계 실태

### ① CYS-Net과 Wee의 연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CYS-Net과 Wee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연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가해자는 Wee센터에서, 피해자는 CYS-Net에서 담당을 하기도 하고,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서 Wee센터와 CYS-Net이 사례를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Wee클래스와의 연계의 경우, CYS-Net이 예방교육과 같은 실질적 사업을 담당하고, 교육이 진행되기 위한 행정이나 관리 측면을 Wee클래스가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도 나타났다.

### ② CYS-Net과 학교의 연계

CYS-Net과 학교는 오랫동안 축적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YS-Net은 제도화되어있는 교사지원단과 학교지원단을 통해 학교와 자주 만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상근 상담사를 파견하거나 멘토 지원단 파견 사업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청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일부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는 CYS-Net에서 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아울러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학교 연계 청소년 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래상담자 양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CYS-Net은 학교,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긴밀한 연계채널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와 연계된 상담자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여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CYS-Net은 관내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학교폭력 특별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 ③ Wee의 연계업무

Wee클래스의 경우, CYS-Net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가 Wee센터보다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사례는 Wee Project의 체계에 따라 Wee 센터로 연계하고 있으며, Wee센터에서는 Wee클래스를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었다. Wee센터끼리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부모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특별교육 이수 기한이 촉박한 경우 타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업무로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구청이나 경찰에서 Wee센터

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Wee센터는 희망재단,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협약이나 업무 분담을 통해서 넘쳐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수요를 소화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추수관리를 위해 경찰 및 스쿨폴리스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정신과나 의료서비스와 협약하거나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CYS-Net과는 직접적인 사례연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방문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CYS-Net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 ④ CYS-Net과 경찰서의 연계

위기학생의 발굴과 지원이라는 CYS-Ne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시에도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종합대책 이후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CYS-Net과 경찰의 연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YS-Net과 경찰의 연계는 ‘결국에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의 문제 사안이 연계의 시작점이 되고,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현장전문가로서의 ‘동병상련 의식’이 생기면서 협조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CYS-Net은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공동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교육지원청, CYS-Net이 속한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안전드림플러스팀’이 구성된 경우도 있었으며, 경찰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CYS-Net이 참여하여 지역 내 솔루션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례가 CYS-Net으로 의뢰된다.

### 다. 연계 성공요인

#### ① CYS-Net과 학교 연계의 성공요인

CYS-Net이 학교와의 연계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들은 개인요인, 관리자요인, 조직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배경요인들이 상호작용요인들과 함께 연계의 선순환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지역에서 성공적인 연계를 이루어나가게 된다. 한편 연계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해낼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요인으로 담당자들의 ④ 사명감과 헌신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⑥ 연계기관 담당자들 간의 마음과 인식의 일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 간

에 인식이 공유되면, 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커버하면서 연계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질의 CYS-Net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는 ㉔ 상담자들의 전문성 요인 또한 성공적인 연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관리자요인으로는 ㉑ 기관장 간의 연계 정도, 학교장 등 타기관의 ㉒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연계에 대한 인식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CYS-Net은 ㉓ 상담자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선을 긋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㉕ 학교현장에서 CYS-Net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이들이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㉖ 교육청보다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고, 센터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해 ㉗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㉘ 지속적으로 학교를 책임지고, ㉙ CYS-Net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의 조직적 노력이 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개인요인, 관리자요인, 조직요인들은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계에는 배경요인이 상호작용요인과 선순환을 하게 되면서 성공적인 연계를 이루게 된다. 먼저 연계성공의 배경요인으로는 ㉚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상대방을 섭외하며 물밑작업을 해놓는 것, 이러한 ‘물밑작업’ 과 함께 학교나 교육청이 ‘혼자는 못하는구나’ 라는 ㉛ 연계 필요성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이 더해지는 것 등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연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계 성공의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㉜ 교육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와 CYS-Net이 공동으로 ㉝ 매칭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특히 처음 ㉞ 연계 시 업무에서의 성공경험을 공유할 때 연계가 강화될 수 있다. 성공적인 연계기관들은 연계 요청에 ㉟ 긴급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 했다. 또한 학교의 교감, 교사지원단, 학교지원단 등을 ㊱ ‘수도 없이 만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은 연계의 성공은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대 기관에서는 ㉡ CYS-Net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다’ 는 인식과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㊲ 학교에서 먼저 CYS-Net에게 연계를 요청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CYS-Net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교육청 등에 피드백하게 되면서, ㉢ CYS-Net의 효과가 아래에서 위로 어필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계의 지속적인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요인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㉕ 필수연계기관으로의 지정, 지자체 운영 기준에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의 적시와 같은 요소가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교가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㉖ 시설 및 인력적인 측면의 보완 역시 연계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화 하면 그림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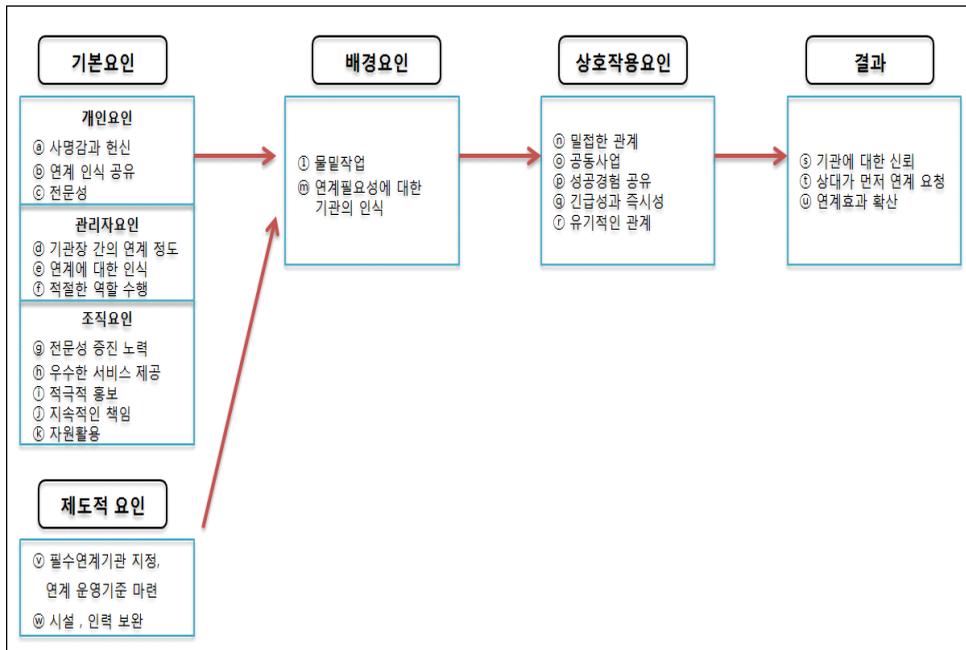


그림 20. 연계 성공요인 흐름

## ② CYS-Net과 경찰 연계의 성공요인

CYS-Net과 경찰의 연계 성공요인은 CYS-Net과 학교의 연계 성공요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과 관리자요인인 ㉔ 기관장과 담당자의 인식과 자세가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㉑ 연계기관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같은 상호작용요인, 그 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져 ㉔ 경찰에서 CYS-Net에 대한 인식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연

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제도적요인으로 ㉔ 필수연계기관 지정 등의 요인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라. 연계 저해요인

### ① CYS-Net이 바라보는 학교 연계의 저해요인

CYS-Net이 바라보는 학교와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㉔ 학교의 폐쇄성, ㉕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㉖ 교육청의 인식 미비, ㉗ 홍보력의 차이, ㉘ 업무로드에 대한 부담, ㉙ 미흡한 학교폭력 대처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㉔ 학교의 폐쇄성으로는 외부 기관에게 프로그램 시간을 제공하거나 학교 내 파견 상담사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 시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해당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여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CYS-Net의 ㉕ 특수한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역시 연계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교육청에서 CYS-Net을 공적인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수많은 연계기관 중 하나로만 여기는 ㉖ 인식 미비 역시 연계 저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㉗ 홍보력의 차이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폭적인 홍보가 가능한 Wee센터 및 Wee클래스에 비하여, CYS-Net은 직접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Wee센터 등이 존재하지만, Wee에서 개입이 어려운 고위험 청소년은 CYS-Net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㉘ 업무로드의 부담감이 저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정책에 따라 신고나 조사 기능 등은 강화되었지만, 발굴된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과 개입이 가능한 인적, 물적 여건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㉙ 미흡한 학교폭력 대처방안 요인이 도출되었다.

### ② CYS-Net이 바라보는 Wee 연계의 저해요인

CYS-Net이 바라보는 Wee와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㉚ Wee 센터의 통제, ㉛ 위기 시스템의 미가동, ㉜ Wee의 연계 인식 미비, ㉝ Wee와의 보조 맞추기 어려움, ㉞ 내담자의 CYS-Net 선호, ㉟ 업무 과부하 등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㉑ Wee 센터의 통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CYS-Net 등 외부 기관의 개입을 막는 것이 해당하며, 이 경우 CYS-Net은 연계를 위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는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㉒ 위기 시스템의 미가동의 경우, Wee센터 및 클래스에서 행정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분리,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효과적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접근보다 CYS-Net에는 단순 인력 지원만을 요구하는 점 등이 연계의 저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㉓ Wee의 연계 인식 미비 요인의 경우, 학교 및 교육청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 타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 및 평가절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㉔ Wee와의 보조 맞추기 어려움 요인의 경우, Wee 내부적으로 행정라인 등에서 제외되는 상담자들과 함께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 연초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되는 CYS-Net과 달리 학기에 맞춰 사업이 시작되는 Wee 사이에서 사업연계가 어렵다는 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㉕ 내담자의 CYS-Net 선호 요인의 경우, 학부모들이 Wee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학교에 정보가 공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낙인에 대한 염려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염려는 CYS-Net과 Wee의 연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㉖ 업무 과부하 요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연계가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되거나 또 다른 업무로 인식되는 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③ Wee가 바라보는 연계 저해요인

Wee Project가 바라보는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간 연계저해요인으로는 ㉑ 연계인식의 미비, ㉒ 유명무실한 운영협의회, ㉓ Wee Project 내의 전달체계의 문제, ㉔ Wee 센터의 업무부하, ㉕ 연계 실패경험, ㉖ 학부모의 연계 거부와 Wee 센터 신뢰, ㉗ 연계지식의 부족 등의 요인이 분석되었다.

먼저, 어느날 갑자기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Wee 센터 입장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논의없이 연계가 갑자기 떨어진 격이었다. 따라서 Wee 입장에서는 연계에 관련하여 ㉑ 인식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실행되고는 있지만, 자주 참석할 환경이 안 되는 Wee의 입장에서는 ㉒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㉓ Wee Project 내의 전달체계의 문제 요인과 관련하여, Wee클래스에게 독자적으로 연계를 하지 말고 Wee 센터를 거쳐서 연계를 하라는 방침은 오히려 활발한 연계를 하고 있는 클래스의 연계업무를 위축시키고 있다. ㉔ 공간도 한정

되어 있고, 사례대기자도 밀려있는 Wee의 업무부담은 연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㉔ 연계에서의 성공경험이 향후 연계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손꼽히는 것과는 반대로, 타 기관과의 연계에서 의뢰거부를 당하거나 사례가 누락되는 실패경험, 타 기관의 뜬금없는 반응 등은 연계를 저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㉕ 학부모의 연계거부와 Wee센터 신뢰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은 학교공문을 통한 Wee센터 홍보를 접하고 Wee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 가해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거부감 등 타 기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 사례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계저해요인은 ㉖ 연계지식의 부족이다. 이는 연계를 하고 싶어도 타 기관의 누구랑 만나야 하는지 지식이 부족한 측면과, 낯선 사람들과 연계를 해야한다는 부담감 등의 측면을 말한다.

#### 마. 연계 관련 제언 및 희망사항

CYS-Net과 Wee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연계방향은 크게 개인, 관리자요인과 조직요인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 관리자요인으로는 ㉗ 제도로서의 CYS-Net이 아니라 사람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 ㉘ 아이들에게 선택권 부여, ㉙ 상담자의 시각으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바라보도록 시각의 전환 제공, ㉚ 학교폭력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CYS-Net은 Wee의 조력자라는 인식 등이 해당된다. 이는 무엇보다 연계에 관한 필요성, 서비스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으로서의 인식의 전환 등 주로 연계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요인으로는 ㉛ Wee와 CYS-Net의 역할분담 필요, ㉜ CYS-Net과 Wee와의 공동협력을 위한 실행위 구성, ㉝ 부처간 협의를 통한 훈령이나 지침 기준 필요, ㉞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 ㉟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 ㊱ 사업에서의 공유와 연계필요, ㊲ 직무연수, 교육의 공유, ㊳ 연계를 위한 인력확충과 사업비의 책정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제도적 요인으로는 조직요인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훈령이나 지침의 제정, 제도개선, 매뉴얼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 CYS-Net이 제도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계란 다름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계의 활성화를 통해 ㉢ 상담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의 전환을 돕고, 객관적인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디까지나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 CYS-Net은 Wee의 조력자이며, 원활한 연계를 위해 ㉤ Wee와 CYS-Net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안의 학생들은 Wee가 맡고, 학교 밖에 있는 학업중단 아이들은 CYS-Net이 분담하는 방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 학교의뢰 사례와 부모의뢰 사례로 구분하는 방안, 예방, 개입, 사후단계와 같이 사안의 단계별 업무분장 등 다양한 업무분담 방안이 도출되었다. 또는 인력구조가 비슷한 ㉦ CYS-Net과 Wee에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협력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향후 연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한 훈령이나 지침 기준 필요하고 ㉨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 관련기관간 연계사업에서의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하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한편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와 연계가 필요하며 향후 ㉫ 관련기관 간 직무연수나 교육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연계를 위한 인력확충과 사업비의 책정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 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현장 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관, 기관의 실무자에 따라 연계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CYS-Net에서 연계를 바라보는 시선 및 관점과 Wee Project가 생각하는 연계의 인식 수준은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으로는, 우선 두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연계업무의 비중과 종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88 지원단과 같이 지역자원을 조직화하고, 또한 이것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CYS-Net에서는 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CYS-Net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교육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기 사례에 대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개입하여 사례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Wee센터나 Wee클래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지원이 일차적인 목적이기에 연계활동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등에서 의뢰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Wee가 모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기관과의 공동 개입보다는 자체 사례관리에 주력하며, 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로는 Wee에서 직접 제공하기 힘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CYS-Net과 Wee센터의 연계 현황이나 성공요인이 도출되지 않은 것 또한, 이들 간의 연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실제 각 기관의 연계활동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실제 학교폭력 대응과 연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연계 인식 및 현황에서 개인 및 기관차원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시·도에 속한 기관인지, 시·군·구에 속한 기관인지 등에 따라 CYS-Net과 Wee의 연계 모습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시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 연계 양상이 다르다는 기존 연구(이혜원, 2002; 박미은, 2002 등)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연계

지침과 기관 역할 등을 상세화할 때에도, 전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CYS-Net과 Wee Project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타난 연계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학교와의 연계 성공이나 경찰과의 연계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로 함께 해결할 사안이 존재해야 한다. 즉, 조직간 연계는 배경요인인 평소의 물밑 작업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연계 시스템이나 지침과 같은 제도적요인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들의 부모, 교사, 학교, 수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움직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며, 관련된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도 CYS-Net과 Wee Project의 연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 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Wee센터를 비롯한 Wee Project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 및 부모 특별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 조직이 관내 수많은 학교와 사례를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해결이 기관 간 연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연계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종합하면, 연계관련 핵심요인들은 개인 및 관리자, 조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관리자유인으로는 연계담당 실무자나 관리자의 연계에 대한 인식, 타 기관 문화에 대한 이해, 담당자 요인 등이 해당한다. 특히 연계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모두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연계에 대한 인식 정도로, 학교나 교육청, Wee의 낮은 인식은 연계를 어렵게 하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경찰, 교육청 등의 높은 인식은 성공요인으로 꼽혔으며, 이는 개인 담당자 수준에서도 해당되고, 기관장 수준에서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요인에는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타기관과의 상호작용 요인, 전문성 요인 등이 해당한다. 연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기관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차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조직 안에서 연계활동이 강조되고 지원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타기관과의 상호작용 역시 연계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YS-Net과 Wee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으로, 연계에 대한 즉시적이고 긴급한 개입,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경험하는 것, 타기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이 연계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차원의 요인에는 필수연계기관의 지정, 연계를 위한 예산 확충, 인력 확충 등이 해당된다. 지침이나 훈령, 제도 마련을 통해 연계기관 지정 및 연계활동에 있어 강제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조직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것이 확충되지 않았을 경우 연계 역시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되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연계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에서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외부로부터 연계에 대한 요구를 받아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들의 연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이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다른 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연계를 해나가고 싶지만 어느 기관의 누구를 대상으로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여러 주체가 개입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담당자들이 개입되고 연계를 시작해야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기에 실무자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실무자들의 연계관련 지식과 정보를 향상시키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침과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은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효과를 가져온다. 연계의 성공요인에서 분석되었듯이, 지침 등에 연계를 명시하여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모아 구성하는데 유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CYS-Net, 학교, Wee Project별 구체적 연계 지침과 제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연계활동이 공식적이고 주요한 업무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마다 또는 기관의 유형(직영, 위탁 등), 지역내 기관의 위치 등에 따라 연계의 내용이나 형식적 틀, 그리고 방향에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매뉴얼을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매뉴얼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침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역에 적용가능한 구체화된 업무지침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계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기관(CYS-Net · 학교 · Wee 프로젝트)간 맺고 있는 연계의 실태와 학교폭력 업무, 연계의 성공과 저해를 결정하는 핵심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계는 개인, 관리자, 조직요인을 기본요인으로 하여, 배경요인, 상호작용요인들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계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들이 개선되어 뒷받침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그리고 결과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향 및 지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연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즉, 인적 네트워크영역, 사업 네트워크 영역, 정보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공간 네트워크 영역별로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지역과 현장의 특색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공고화이다. 이는 인적자원의 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들간에 인적자원을 상호교류하며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두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 내에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위원회, 사안해결을 위한 학교내 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모호한 상태이다. 연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솔루션회의를 구성하고 사례회의를 하면서 지역내 기관들의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들은 학교의 자치위를 포함한 각종 협의체를 참석하느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의 경우 지역의 각 기관이 서로 단편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내용협의라든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을 받음에 있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동시에 끝내도록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관 혹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연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실무자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무자의 인식 못지않게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위세

또는 신뢰도나 명망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주도집단에 대해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주도기관과 조정자(coordinator)를 중심으로 긴밀한 연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해당기관과 조정자는 연계활동의 활성화와 연계망의 공고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도기관과 조정자는 서로 유사한 성격의 기관(예를 들어 공공기관 vs. 민간기관)들은 물론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의도적인 연계활동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자의 연계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과 열정이 요구된다. 지역의 대책 협의회는 지역의 각 기관에서 책임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사례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조정 등 명실상부한 솔루션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입장들을 조율하고 조정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담당하는 상위기관의 조정자(coordinator)가 필요하다. 이는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 배치되면 좋을 것이다. 일례로 지역단위에서 기관간 연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를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이고 연계활성화 노력이 눈에 띄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연계담당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이루어진 역할분담이 실지로 각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별 기관들간의 실무자들과도 연계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연계담당 인력인 코디네이터가 배치되면, 이에 따른 예산 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 등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회 등 실질적인 연계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지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역행사 등의 공동개최를 위한 예산 조정 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배정되어야 한다. 특히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연계담당 코디네이터로 배치하고, 예산을 분배하여 지역내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예산 및 인력을 배치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연계는 실무자의 열의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리자 및 조직요인 즉 단체장, 기관장, 학교장 등 관리자의 연계에 대한 합의와 인식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선에서의 연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자선에서의 네트워크는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연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관리자들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합의와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

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업네트워크(transportation network)의 구축이다. 이는 지역단위의 사업을 연계 및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계는 사실 성공적인 연계경험을 통해 확대되고, 인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며, 기관의 담당자간 신뢰가 형성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그동안 지역사회 기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좀더 의도적으로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성공경험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년에 한번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기관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청, 경찰, 정신보건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병·의원, 쉼터 등의 보호시설, 수련관 등의 활동시설, 기타 민간단체 등 지역의 자원을 총망라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예를 들어 위기개입, 긴급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특별교육, 홍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축제 등)을 논의하고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 상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은 상담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CYS-Net과 Wee 프로젝트는 지역의 상담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높일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실무자들의 질적 제고 및 관리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지역의 기관들의 상담전문가들의 질적 고양을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Wee 센터 전문상담자들의 교육모임이나 CYS-Net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자 교육 등을 한시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해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이 보다 통합적으로 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상담관련 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의 구축이다. 정보의 공유는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사항이면서 어느정도 연계의 성공경험이 축적되고 난 후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각 시설이나 기관간 정보공유와 공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각 지역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관한 정보와 이의 공유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역사회 내 정보네트워크(가칭 인포맵-infomap)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정보 공유는 조금 자유스럽게 각 지역의 기관들이 제공가능한 자원 및 서비스들을 인포맵에 등록하고, 배분하는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 둘째는 사례에 관한 정보공유이다. 즉, 각 기관별로 의뢰되는 사례들에 관한 개입정보 및 효과들이 간략한 형태로나마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학교, Wee 프로젝트와 같이 학교세팅의 기관과 CYS-Net이나 지역의 기관들사이에는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의 편차기 심하게 존재한다. 상담과 교육이라고 하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간에는 미묘한 갈등조차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편차와 더불어 정보 공유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인적자원들은 기관내에서 사례조정과 배분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관리자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정보에 대한 공유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고유키를 부여하고, 정보의 단계를 구분하여 다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보를 다루는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관련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례누락이나 서비스 중복, 단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의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간 네트워크(location network)의 구축이다. 이는 학교를 비롯하여 연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포함하는 물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공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가장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나가기 위한 축제라든지, 대단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접목한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 지역의 기관들이 가진 장소나 설비를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지역의 각 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분산하여 담당하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V. 요약 및 논의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CYS-Net, Wee 프로젝트, 학교 세 기관이 학교폭력 관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세 기관의 연계가 강조됨에 따라, 각 기관의 학교폭력 연계업무와 실태를 분석하고,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인들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계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요인들과 배경요인, 상호작용적인 요인과 결과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연계의 성공과 저해를 결정하는 핵심요인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업무 및 연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업무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세 기관(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은 모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피/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및 지원, 특별교육, 예방교육, 연계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및 지역의 각종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가 등 다양하다. 특히 Wee 프로젝트의 경우는 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개입, 기초학력 증진사업 등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로 인해 과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후,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 및 상담사례가 증가하고, 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의뢰와 업무문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준비미흡과 매뉴얼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각 기관별 연계실태를 보면, 각 기관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적 활발히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CYS-Net, Wee 프로젝트와 활발히 연계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관의 상담관련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CYS-Net과

Wee 프로젝트 사이에서는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외 경찰,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자원을 활발히 동원하고 있었다. CYS-Net과 Wee 프로젝트는 상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CYS-Net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개입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요인, 관리자요인, 조직요인이 기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배경요인들이 상호작용요인들과 함께 연계의 선순환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계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들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헌신, 인식의 공유, 전문성과 같은 개인요인, 지역의 기관장이나 학교장, 생활지도담당 부장교사 등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연계에 대한 인식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다양한 노력들이 조직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관리자, 조직요인과 같은 기본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연계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오면서 연계에 관한 인식들을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이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 기관 특히 학교의 연계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타기관들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연계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기관간 밀접한 관계, 매칭사업 실시 등이 기관들사이의 상호작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즉시적으로 투입되어 성공경험들을 쌓아나가는 노력이 이후의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CYS-Net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계를 위한 발판들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원인으로 무엇보다 학교의 폐쇄성과 학교와 Wee 프로젝트의 연계에 대한 인식의 미비, CYS-Net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 업무과부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위기시스템의 미기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인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특히 학교나 Wee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문제를 학교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 연계를 자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요청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등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저해 요인들을 보다 꼼꼼히 고려하여 지역 내에서 연계를 활성화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성공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연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운영기준에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이 적시되고, 연계를 위한 지침이 각 기관 별로 마련되어야 하는 등 제도적 요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연계를 담당할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연계의 필요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업무실태 및 연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내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체계별 역할을 상세화하여 CYS-Net 종사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연계체제간의 핵심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이론화하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파악과 향후 연계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각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존재함으로써 인해 원칙수준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 향후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보다 상세한 지침들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2.2.6) 후속 개정 법률 5월1일 시행. **보도자료**(2012. 3. 13)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2009). **굿바이 학교폭력: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초중등교육정책과 정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외(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교육인적자원부.
- 국무총리실(2009). **보도자료 2009. 5. 1. 위기청소년 안전망 대폭 강화한다**.
- 김경애, 김정원(2007).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3), 117-142.
- 김교정, 김용준(200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1).
- 김선화(2010). **드림스타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수(201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15-49.
- 김용태 외(1997). **따들리는 아이들, 따들림 당하는 아이들**(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인숙, 우국희(2000). 사회적 관계망 개입의 유형과 장애요인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3, 7-41.
- 김인숙, 우아영(2002). **부천시 여성복지단체 연계망 구축 방안**. 부천문화재단.
- 김재엽, 박수경(2001). 가정폭력 기관들의 서비스 연계 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7, 107-147.

- 김진호(200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간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일(200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
- 김현철(201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3-14.
- 남상임(2008).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21세기 사회복지연구**, 5(1), 101-115.
- 노연희(2006).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동원 효과성과 조직의 관리능력. **한국 사회복지학**, 58(3), 5-26.
- 노성덕, 류은수, 채중민, 이승희(2010). **위기개입 4판**.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통령실(2012. 2. 21). **정책소식**, 110호.
- 문용린, 이승수(2010). **Issue Paper: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문용린 외(2005).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문용린 외(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2008).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공감코리아 홈페이지 ([www.korea.kr/main](http://www.korea.kr/main)).
- 박경숙(1996).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소도시, 농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0.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은(200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51, 63-91.
- 박병식(2001). **청소년 폭력예방 법·제도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병식(2005). **학교폭력법의 개정방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
- 박정희(200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의제 설정 과제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 정미경(200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효과 평가 연구. **한국교육**, 33(3), 145-167.

- 박효정, 정미경, 박종호(2006). 학교 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호(2007).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호(2008).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제도화 및 확산 방안. **한국교육**, 35(3), 243-262.
- 변귀연(2002).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3). 안전한 학교 만들기 III 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송태호(200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
- 신순갑(2008).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승희(2006). 지역복지공급주체 간의 연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선경(2008).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조직연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선경(2009).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조직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 여성가족부(2012a). 2012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b). 2012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우수명(2008).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혜욱(200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7, 113-135.
- 이문자(2003).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2005). **학교폭력 정의에 ‘성폭력’ 이 포함되어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
- 이민희, 이명숙, 이춘화, 정희욱(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임영식, 이진숙(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이장현, 오해섭, 신순갑(2006).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은주(2002). **내·외향적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학회**, 15(2), 345-363.
- 이인숙(2004).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연계망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현, 우령(2001).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창호, 김동일, 노성덕, 최수미, 김상수(2007). **CYS-Net 효과성 평가 연구: 서비스 효과 및 만족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춘재, 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 이현주(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2002). **결식아동 조직간 서비스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190-224.
- 장영식(2009). **학교폭력과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권배(200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상(2005).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분석**.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전인식, 김주애, 김지영, 장은선(2011a). **Wee 프로젝트 매뉴얼 2. 위기유형별 상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인식, 김주애, 김지영, 장은선(2011b). **Wee 프로젝트 매뉴얼 3. Wee 센터 운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유진(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진(2003). **또래 괴롭힘의 피해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광(2011). **장애인 직업재활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운실, 정석구, 양병찬, 정수현, 최돈민, 허준, 이세정, 김세화(2011).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연계체제 구축전략**.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한국교육개발원(2011). **Wee 프로젝트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12a). **2012년도 CYS-Net 신규운영지역 실무자 워크숍**.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12b). **OneStop지원센터 운영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
- 동아일보 2012년 2월 7일. “학교폭력 대책, 내놓고 잊어버리면 휴지일 뿐”
-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41-362.
- Carney, A. G., & Merrell, K. W. (2001). Bullying in schools: Perspectives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an international probl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 364-382.
- Cassidy, T. (2009).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identity problem-solving style, and family and school contex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2*, 63-76.

- Ea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Espelage, D. L. & Holt, M. K. (2001). Bullying and victimiz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Peer influence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Journal of Emotional Abuse, 2*(2/3), 123-142.
- Glover, D., Cartwright, N., Gough, G., Johnson, M.(1998). The introduction of anti-bullying policies: Do policies help in the management of change?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18*(1). 89-105.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 Simons-Morton, B. G. (2001). Bullying behavior among the U. 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 2094-2100.
- Olweus, D. (1988). Bullying in the schools: How educators can help. *The Education Digest, 53*(7), 30-34.
- Olweus, D. (1995). Bullying or peer abuse at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196-200.
- Olweus, D. (1996).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Facts and eff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1), 15-22.
- Olweus, D. (2005). A useful evaluation design, and effects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Psychology. Crime & Law, 11*(4), 389-402.
- Roberts Jr, W. B. & Morotti, A. (2000). The bully as victim.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2), 148-156.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57-62.
- Smith, P. K., Cowie, H., Olafsson, R. F., & Liefoghe, A. P. D. (2002). Definition of bullying: A comparison of terms used, and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 fourteen-country international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73*(4), 1119-1133.
- Smokowski, P. R. & Kopasz, K. H. (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 Schools, 27*(2), 101-110.

- Rivers, I., & Smith, P. K. (1994). Types of bullying behaviour and their correlates. *Aggressive Behavior, 20*, 359-368.
- Van de Ven, A. H. & Ferry, D. L.(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Some Working Principl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4). 1-15.
- Veenstra, R., Lindenberg, S., Zijlstra, B. J. H., De Winer, A. F., Verhulst, F. C., & Ormel, J. (2007). The dyadic nature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Testing a dual-perspective theory. *Child Development, 78*(6), 1843-1854.



## 부 록

1.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조사 설문지
2. 학교폭력 관련 연계 설문조사 자유의견 분석
3.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부록 1.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실태조사 설문지

1. CYS-Net

학교폭력 관련 연계 설문조사  
[CYS-Net 대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복지 사업 등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대응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의 개입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에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례는 몇 명입니까? 약 ( ) 명  
 (※ 단, 개별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및 집단지원(교육, 집단상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인원 수로 계산)

2. 귀 기관에 접수된 학교폭력의 유형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신체적 폭력    ② 언어적 폭력    ③ 금품갈취, 강요    ④ 따돌림    ⑤ 성폭력
- ⑥ 사이버 폭력

3. (사례를 보낼 때) 귀 기관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어느 유형의 사례가 더 많았습니까? ( )

(※ 단, 여기서 '사례'란 개별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및 집단지원(교육, 집단상담 등)을 모두 포함함)

- ① 가해 사례가 더 많다.
- ② 피해 사례가 더 많다.
- ③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동일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
- ④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 ⑤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 ⑥ 잘 모르겠다.

4. (사례를 받을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교폭력 사례를 연계 받을 때, 어느 유형의 사례가 더 많았습니까? ( )

(※ 단, 여기서 '사례'란 개별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및 집단지원(교육, 집단상담 등)을 모두 포함함)

- ① 가해 사례가 더 많다.
- ② 피해 사례가 더 많다.
- ③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동일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
- ④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 ⑤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 ⑥ 잘 모르겠다.

5.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주로 연계가 이루어집니까?(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접수(상담접수 또는 의뢰접수)      ② 사례판정    ③ 심리검사    ④ 상담
- ⑤ 복지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지원 등)    ⑥ 교육      ⑦ 사후관리
- ⑧ 기타( )

6. (사례를 보낼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로 연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교    ② 교육청    ③ Wee센터    ④ 경찰관서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기타( )

7. (사례를 보낼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 타기관에게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2가지 선택) (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YC, 심리치료 등)
-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8. (사례를 받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귀 기관으로 연계를 보내는 기관은 주로 어디입니까?  
(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교    ② 교육청    ③ Wee센터    ④ 경찰관서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기타( )





14-1. 위 14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Wee센터로부터 주로 요청 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① 예방교육
- ② 특별교육
-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5.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Wee센터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 )

- ① 기관의 전문성
- ②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 ③ 폭넓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④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⑤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 ⑥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 ⑦ 기타( )

16.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 시 귀 기관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선택) ( , , )

- ① 귀 기관의 업무과다
- ②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 ③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 ④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 ⑤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 ⑥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 ⑦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 ⑧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 ⑨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 ⑩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⑪ 기타( )



※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연계 업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번 ~ 31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사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응기관 간의 대상자 및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협의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게 시설 및 강의장 등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교폭력 관련 연계로 인한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타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인맥, 지식, 정보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28	지난 연계활동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성과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계활동은 학교폭력 대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앞으로 연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우리 조직은 연계활동에서 주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 내의 지원과 도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나 자원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기관간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연계활동을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기관장은 직원의 연계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기관장의 연계활동에 대한 지지와 노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46	기관장은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8	중간관리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실무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전 담당자 혹은 전상급자의 이직 및 이동으로 연계의 단절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Wee센터와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51번 ~ 57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Wee센터가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Wee센터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6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58번 ~ 64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8	학교가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9	학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1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이념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2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63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4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5.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중, 향후 귀하의 기관과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선택) ( )

- ① 학교    ② 교육청    ③ Wee센터    ④ 경찰관서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기타( )

66.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필수연계기관이 공식적으로 CYS-Net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관 외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 CYS-Net 필수연계기관

; 시·도(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노동관서, 경찰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기관명 혹은 종류 : \_\_\_\_\_ )

67.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연계지침 마련             | ② 행정절차 간소화       |
| ③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④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 |
| ⑤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 필요    | ⑥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 |
| ⑦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 ⑧ 시설 및 공간 공유     |
| ⑨ 사례관련 정보 공유          | ⑩ 사업 정보 공유       |
| ⑪ 기타( _____ )         |                  |

68. 귀하께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활동을 해오시면서, 학교폭력 관련 연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 다음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이오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항목
기관 정보	A. 기관 설치 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B. 기관 설립 년차	_____년
	C. 위탁여부	① 위탁 ② 직영
	D. 기관장 상근여부	① 상근 ② 비상근
응답 자 정보	E. 성 별	① 남 ② 여
	F.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과정(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과정(수료) ⑥ 박사 졸업
	G. 연 령	_____ 세
	H. 직 위	실장 / 국장 / 팀장 / 상담원 / 기타( )
	I. 경 력	본 기관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교사

### 학교폭력 관련 연계 설문조사

#### [교사 대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복지 사업 등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대응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의 개입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는 몇 명입니까? 약 ( ) 명

2. 학교폭력 사안을 경험하셨다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

- ① 신체적 폭력    ② 언어적 폭력    ③ 금품갈취, 강요    ④ 따돌림    ⑤ 성폭력    ⑥ 사이버 폭력
- ⑦ 학교폭력 사안 경험 없음

3. 귀 기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어느 유형의 사례가 더 많았습니까? ( )

- ① 가해 사례가 더 많다.
- ② 피해 사례가 더 많다.
- ③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동일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
- ④ 가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비슷하다.
- ⑤ 연계한 경우가 없었다.
- ⑥ 잘 모르겠다.

4. 다음의 학교폭력 개입 절차 중, 주로 어느 단계에서 외부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신고접수                      ② 즉시조치                      ③ 사안조사와 학생·부모 면담
- ④ 처리방향심의 및 결정    ⑤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⑥ 조치실행
- ⑦ 사후관리                      ⑧ 기타( )

5.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로 연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3가지 선택)(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타)학교                      ② 교육청                      ③ Wee센터
- ④ 경찰관서
-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⑨ 기타(                      )

6.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 타기관에게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수퍼비전
-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7.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연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선택) (                      ,                      ,                      )

- ① 귀 기관의 업무과다                      ②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 ③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④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 ⑤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⑥ 연계할 기관 부재
- ⑦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의 불분명성                      ⑧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 ⑨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⑩ 대기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 ⑪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⑫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8번 ~ 11번)

8. 학교폭력 사건개입 절차 중, Wee센터와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 )

- ① 신고접수                      ② 즉시조치                      ③ 사안조사와 학생·부모 면담
- ④ 처리방향심의 및 결정      ⑤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⑥ 조치실행
- ⑦ 사후관리                      ⑧기타( )                      ⑨ 연계 경험 없음

9.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 Wee센터에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수퍼비전
-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⑩ 연계 경험 없음

9-1. 9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귀 기관은 Wee센터에 주로 어떤 종류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합니까? ( )

- ① 예방교육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0.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Wee센터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

- ① 기관의 전문성
- ②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 ③ 폭넓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④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⑤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 ⑥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 ⑦ 기타( )



13-1. 13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귀 기관은 CYS-Net에 주로 어떤 종류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합니까? ( )

- ① 예방교육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4. 학교폭력 관련 연계 시, CYS-Net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 )

- ① 기관의 전문성                      ② 지역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  
 ③ 폭넓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④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⑤ 연계요청 시 즉각적 대응 가능                      ⑥ 담당자들의 헌신과 사명감  
 ⑦ 기타( )

15.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CYS-Net과 연계 시 귀 학교가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선택) ( , , )

- ① 귀 기관의 업무과다                      ②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③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④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⑤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⑥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⑦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⑧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⑨ 대기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계가 어려움                      ⑩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⑪ 기타( )

※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연계 업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6번 ~ 27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사례(학생 및 학부모)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응기관 간의 대상자 및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협의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게 시설 및 강의장 등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폭력 관련 연계로 인한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타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인맥, 지식, 정보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24	지난 연계활동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성과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계활동은 학교폭력 대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앞으로 연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학교)의 연계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 30번)

28. 귀 기관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이 있습니까? ( )

- ① 연계를 위한 전담 부서가 있다.
- ② 연계를 위한 인력이 있다.
- ③ 모두 없다.

29. 귀 기관은 회의 운영 및 협의체 구성 등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30. 귀 기관은 기관 연계활동과 관련된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은 귀 기관(학교)이 다른 기관과 맺고 있는 연계활동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31번~45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조직 내에서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연계활동은 우리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 조직은 연계활동에서 주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 내의 지원과 도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나 자원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기관간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연계활동을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기관장은 직원의 연계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기관장의 연계활동에 대한 지지와 노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41	기관장은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중간관리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실무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전 담당자 혹은 전상급자의 이직 및 이동으로 연계의 단절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Wee센터와의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46번 ~ 52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Wee센터가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Wee센터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이념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0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1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CYS-Net**의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53번 ~ 59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3	CYS-Net이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CYS-Net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7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8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9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중, 향후 귀 기관과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선택) ( )

- ① (타)학교                      ② 교육청                      ③ Wee센터
- ④ 경찰관서
-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⑨ 기타( )

61.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들 이 외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

(기관명 혹은 종류 : )



※ 다음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이오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항목
학교 정보	A. 소속 학교 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B. 학교 종류	초 / 중 / 고
	C. 총 학급 수	_____개 학급
응답 자 정보	D. 성 별	① 남          ② 여
	E.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과정(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과정(수료) ⑥ 박사 졸업
	F. 연 령	_____ 세
	G. 직 급	교장 / 교감 / 부장 / 교사 / 기타(      )
	H. 경 력	본 학교에서의 경력 _____년 _____ 개월
		총 교사 경력 _____년 _____ 개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 Wee센터

#### 학교폭력 관련 연계 설문조사 [Wee센터 대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복지 사업 등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대응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사례를 보낼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로 연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교육청                      ② (타지역)Wee센터                      ③ 경찰관서
- ④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⑤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 ⑥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⑦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⑧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센터                      ⑨ 기타(                      )

6. (사례를 보낼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 타기관에게 기대하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2가지 선택) (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청소년동반자, 심리치료 등)
-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7. (사례를 받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귀 기관으로 연계를 보내는 기관은 주로 어디입니까?  
(3가지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교                              ② 교육청                      ③ (타지역)Wee센터
- ④ 경찰관서                              ⑤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 ⑥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⑦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 ⑧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기타(                      )

8. (사례를 받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할 때, 귀 기관이 요청받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2가지 선택) (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슈퍼비전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11-1. 11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귀 기관은 CYS-Net에 주로 어떤 종류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요청합니까? ( )

- ① 예방교육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2. (사례를 받을 때) 학교폭력 사건개입 절차 중, CYS-Net과 주로 어느 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 )

- ① 접수(상담접수 또는 의뢰접수)                      ② 사례관정                      ③ 심리검사                      ④ 상담
- ⑤ 복지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지원 등)                      ⑥ 교육                      ⑦ 사후관리
- ⑧ 기타( )                      ⑨ 연계 경험 없음

13. (사례를 받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CYS-Net과 연계할 때, 귀 기관이 요청받는 지원 및 개입은 주로 무엇입니까? ( )

- ① 긴급 및 위기지원(출동, 보호)                      ②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수퍼비전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⑤ 의료·법률 지원
- ⑥ 지역내 학교폭력 회의(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 ⑦ 현금·현물 서비스 지원                      ⑧ 연계 후 추수관리
- ⑨ 기타( )                      ⑩ 연계 경험 없음

13-1. 위 13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CYS-Net으로부터 주로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① 예방교육
- ② 특별교육
-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6-1. 위 16번에서 ‘④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선택한 경우, 주로 요청받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① 예방교육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프로그램  
 ④ 기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⑤ 기타 학생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17.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와 연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선택) ( , , )

- ① 귀 기관의 업무과다                      ② 귀 기관의 내부지침의 부재  
 ③ 연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              ④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⑤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⑥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함  
 ⑦ 대상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미비      ⑧ 대상 기관의 소극적 태도  
 ⑨ 연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⑩ 기타( )

※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연계 업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8번 ~ 29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관 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사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응기관 간의 대상자 및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협의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게 시설 및 강의장 등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폭력 관련 연계로 인한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타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인맥, 지식, 정보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26	지난 연계활동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성과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계활동은 학교폭력 대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앞으로 연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연계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 33번)

30. 귀 기관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이 있습니까? ( )

- ① 연계를 위한 전담 부서가 있다.
- ② 연계를 위한 인력이 있다.
- ③ 모두 없다.

31. 귀 기관은 회의 운영 및 협의체 구성 등 연계활동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② 없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	기관장은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기관장은 연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중간관리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실무자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전 담당자 혹은 전상급자의 이직 및 이동으로 연계의 단절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CYS-Net의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49번 ~ 55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CYS-Net이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	CYS-Net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3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4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시 연계활동 정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56번 ~ 62번).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	학교가 수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활동내용, 구성원, 주요 업무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학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9	기관 사이의 가치 및 이념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0	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61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3.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중, 향후 귀 기관과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선택) ( )

- ① 교육청                      ② (타지역)Wee센터                      ③경찰관서
- ④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⑤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 ⑥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 ⑦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⑧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센터                      ⑨ 기타( )

64.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들 이 외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계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사법기관(분류심사원 등),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

(기관명 혹은 종류 : )



※ 다음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이오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항목
기관 정보	A. 기관 설치 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B. 기관 설립 년차	_____년
	C. 위탁여부	① 위탁 ② 직영
	D. 기관장 상근여부	① 상근 ② 비상근
응답자 정보	E. 성 별	① 남 ② 여
	F.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과정(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과정(수료) ⑥ 박사 졸업
	G. 연 령	_____ 세
	H. 직 위	센터장 / 팀장 / 실장 / 부실장 / 전문인력 / 기타( )
	I. 경 력	본 기관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학교폭력 관련 연계 설문조사 자유의견 분석

### 1. CYS-Net 대상 결과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들에 대한 신뢰감 필요</li> <li>- 적극적 연계와 개입에 대한 적극성과 개념인식이 필요</li> <li>- 기관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적인 노력</li> <li>-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상호간 연계 노력이 필요. 언론사를 통해 사회문제화가 될 때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 반짝 관심과 그에 따른 반짝 사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li> <li>- 단체에 대한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센터와의 연계에 있어서 Wee센터의 협조가 부족</li> </ul> </li> <li>- 기관 간 연계협력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기관끼리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됨.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됨.</li> <li>-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임. 서로 미루거나 책임 회피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li> <li>-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연계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응이 중요함</li> <li>- 학교 폭력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함</li> <li>- 기관 간 인식조성. 연계의 중심에는 (일이 아니라)청소년이 있어야 함을 인식</li> <li>-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li> <li>- 필수 연계 기관 담당자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인식제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체로써 주인의식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임. 담당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업무 인식 수준이 다름</li> </ul>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이 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유관기관별 연계·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지를 위한 지역별 협의회</li> <li>- 지역 내 연계 협의체 구성</li> <li>- 지역 내에서 학교 폭력 관련 기관 이해 및 기관의 역할, 사업 수행 내용 이해와 연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및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li> <li>- 중복된 지원은 피하고 순차적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상담복지 지원의 단일 체계 구축(정부 부서별 자리나 업무-실적 중심의 서비스는 지양해야 할 듯)</li> <li>- 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li> <li>- 연계기관에 긴밀한 연락망 등</li> <li>- MOU 체결에 의한 협조정도</li> <li>- 같은 대상에게 중복 자원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외)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li> <li>- 각 기관 별 담당 책임자 선임과 협의체 운영 및 명확한 역할 정립</li> <li>- 폭 넓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대상자(가해자, 피해자) Wee센터로 연계(지원센터로는 정보 연계되지 않음). Wee센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상담 지원센터로 연계. 학교와의 연계 및 협조체제 필요</li> <li>-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한 연계 협력망 구축</li> </ul>
공동 회의/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방안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li> <li>- 연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사교류와 지원체계를 위한 교류모임의 활성화</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 경찰서 +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협조(회의)</li> <li>- 청소년 대상자 정보공유 및 사례회의</li> </ul>
연계 기관 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각자 업무를 나눠서 프로그램(특별교육), 상담 등을 기관성격에 맞게 진행하기 바람</li> <li>- 기관간 역할분담의 체계화</li> <li>-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누어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의 질을 보았을 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li> <li>- 인근 지역사회 기관의 업무 명확화</li> <li>- 기관의 역할 분명</li> <li>- 기관 간 업무 중복이 많음</li> <li>- 학교폭력 관련 업무 기관(도 교육청, 경찰청, 117, 상담복지센터, 청예단, 대안교육센터, Wee센터 등 각자 노력 중) 이 너무 많으며, 역할 정립 부족</li> <li>- 연계기관의 역할 및 한계 파악</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별 명확한 역할 정립</li> <li>- 기관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함. 예를 들어 운영지침이나 공문에 Wee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곳에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 또한 맞지 않음. 또한 Wee센터가 교육청 산하기관이다보니 학교에서는 Wee센터에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각 기관 마다의 연계 시 중복서비스와 역할의 구분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li> <li>- 각 개별 기관 및 요일별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li> <li>- 올해 같은 경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각 기관들이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개입되는 부분들이 업무과다를 보태는 듯 함. 좀 더 기관과 기관이 업무 분담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조율 등이 필요</li> </ul>
연계 중심기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폭력 관련 연계 중심기관이 반드시 필요</li> <li>- 117센터의 구심점 강화 및 사업정보 공유</li> <li>- 가피해 부모 간/ 학교와의 처리해야 할 합의 문제로 당사자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바 실질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해석을 위한 의사 결정기구가 필요</li> </ul>
인력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 받거나 보낼 때 사례를 맡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함</li> <li>- 관련 기관간의 인력 동원</li> <li>-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타 기관도 같은 입장이라서 도움이 안 됨. 인력보강이 급선무</li> <li>-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공간 확보</li> <li>- 전문적인 연계 지원 인력과 기구. 상담지원팀만 구성된 경우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li> <li>- 여가부의 인력지원 필요</li> <li>- 전문인력 및 예산 편성</li> <li>- 학교 폭력 전담 예산 부족</li> <li>- 연계기관의 전문가 확보 부족</li> <li>- 각 기관 간의 연계 활성화와 직원 확보로 인한 업무 부담 최소화</li> <li>- 각 기관의 전담인력의 부족</li> <li>- 기관 간 연계사업비 확보 및 인력 확충</li> <li>- 학교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특별프로그램, 출석정지 프로그램)을 요</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p>청할 경우 실시 불가능(예. 2명 대상자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1주일동안 하루종일 진행하기를 요청할 경우,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기존 상담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시 불가능.) 전담인력 및 예산 필요.</p>
부처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관련 사업이 교과부 중심으로 계획되어 일방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교육이나 사례가 의뢰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CYS-Net 의무협력기관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할 때 (초기부터)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력이 있어야 함.</li> <li>- 학교, 교육청, Wee센터의 적극적 협조 필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교과부 소속이 아니어서 정보공유, 협조가 어려움</li> </ul>
즉각적 대응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각적인 대처</li> <li>- 학교폭력 발생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보</li> <li>- 연계 요 청시 즉각적 대응 필요</li> </ul>
업무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과다한 업무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연계를 하려고 해도 타 기관도 같은 입장이라서 도움이 안 됨. 기존 업무도 과다한데 학교폭력만 전담하기가 어려움</li> <li>- 업무 과다로 인한 소진 예방</li> <li>- 각 기관마다 연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를 과다하게 진행하지만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음</li> <li>- 업무과다로 그 과정과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li> </ul>
실적 위주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업무적 실적 위주가 아닌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아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필요. 연계 인원이 적거나 1:1 연계는 잘 받으려 하지 않거나 꺼리는 것을 느낌. 1:1의 교육 및 상담이 인력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됨</li> <li>- 실적위주가 아닌 실무 위주. 실적에 얽매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많음</li> <li>-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자체나 기관 등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 보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보다 질 좋은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li> </ul>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학생들의 상담 및 추수관리에 집중</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간소화	<p>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요구하는 것은 상담의 전문성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과 행정에 역량이 분산되어 있음.</li> <li>- 연계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서식 통일 등)</li> </ul>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지침 마련함</li> <li>- 연계기관이 서로 지켜야할 원칙준수 필요</li> <li>- 연계 관련 공통된 지침이 필요함. 각 기관 마다의 연계 시 중복서비스와 역할의 구분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li> <li>- 1388을 통해 긴급한 학교폭력 사례가 접수되면, 가능한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려 함. 하지만, 학교에서는 외부기관의 개입을 꺼려워하고, 분명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취급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Wee센터나 교육청의 도움을 요청하나 같은 기관이다 보니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고, 마치 우리 기관은 이도저도 끼지 못하게 됨. 유관기관별 연계·개입에 대한 연계지침이 필요</li> <li>-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해 청소년 및 부모가 치유상담만을 원할시 상담자의 지역연계 필요성 발견시 처리 한계에 대한 지침마련.</li> <li>- 연계 활동체계 지침화(ex) 상담가능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예방기관(교육): 비행예방센터, 처벌기관: 법무부 산하기관, 경찰서 등 (중복)</li> <li>- 매뉴얼에 따른 처리</li> <li>- 폭력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진정한 선도의 의미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필요. (폭력 가해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상담자의) 판단에 의해 중·장기 상담 의무화 등)</li> <li>- 학교폭력 관련 특별 '부모교육' 을 각 학교 별로 통보하여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강제)으로 지정</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등</li> </ul>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적극적 정보 공유 및 사례 공유</li> <li>- 학교폭력현장 담당자인 담당교사와 학생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li> <li>- 상담 후 학생의 생활 변화에 대한 추수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li> <li>- 사안에 대한 기관 처리 과정 open</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정보</li> <li>- 사업정보 공유</li> <li>- 학교폭력 관련 업무 기관(도 교육청, 경찰청, 117, 상담복지센터, 청예단, 대안교육센터, Wee센터 등 각자 노력 중)끼리 정보, 역할 정립 부족(기관이 너무 많다)</li> <li>-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사례 공유</li> <li>- 기관 간 정보교류 부족</li> <li>- 연계 활동 및 프로그램 교육 실시, 정보 공유</li> <li>- 서로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 가해학생을 연계하며 사전 정보도 알고 있으면서 주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담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음</li> <li>- 청소년 대상자 정보공유</li> <li>- 비슷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로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li> <li>- 원활한 정보공유 및 청소년 관리</li> <li>- 프로그램이나 교육 공유</li> <li>- 연계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의 장 확대</li> <li>- 현재 교육청에서는 wee센터 연계를 우선하고 있고 거기서 충당하지 못하면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로 연계. 그 연계도 그냥 안내만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신청하도록 진행하고 있어 wee센터 연계인지 모를 때도 있음</li> </ul>
비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기관 간의 연계로 인해 기관만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내담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신뢰감 약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음</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 학교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나, 학교폭력(특히 언어, 사이버 따돌림)으로 내담자나 가족 모두 힘들어 부모가 지원센터로 직접 상담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많음. 그럴 경우 학교에서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례가 많음. 학교폭력 대상자 공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li> </ul>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입소의 어려움. 정신보건센터는 진단 검사만 하고 심리치료, 상담을 하지 않음</li> <li>- 근거리에 연계기관 부족</li> <li>- 가정전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상담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프로그램 지속성, 추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학교 폭력 이후 학교 적응 정도 파악 및 행동 수정 정도 파악)</li> <li>- 사후관리(학교, 가정, 청소년 기관)</li> <li>- 연계가 업무 종료가 아니라 공유라는 인식공유</li> <li>- 학교에서 공문으로 연계만 하면 서류상으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함. 차후 관리 필요</li> <li>-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li> <li>- 상담 후 사후 처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개인별 멘토링 제도가 필요</li> <li>- 정계의 의미로만이 아닌 정서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과 관리가 필요</li> </ul>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의 전문성(전문인력 양성)</li> <li>- 학생들의 상담 및 추수관리의 전문성</li> <li>- 전문적인 서비스</li> <li>- 현장실무자들의 학교 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li> <li>-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li> <li>- 기관의 전문성</li> </ul>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순환되고 가정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우선 되어야 함</li> <li>-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접근</li> <li>-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li> </ul>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의 연계 교육(가해자, 피해자) 필요함. 결혼가정일 때 보호자 역할 해줄 보호자가 꼭 필요함(부모 불참 시 (보호자)에 법적제도 필요</li> <li>- 학교 폭력 상담 실시에 있어 학부모 동의를 받기 힘들. 특히 피해·가해 학생의 학부모 경우 자신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li> <li>-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해자인 학생 당사자 뿐 아니라 가장의 돌봄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학생들에 대한 가족지원 필요</li> <li>- 시간이 걸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학벌, 경제의 문화 추구가 아닌 사</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p>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조성-가정교육 등 가족 간의 교류가 밑받침이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의 인식 재고.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함</li> <li>- 부모교육 강화</li> </ul>
학교의 개방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로만 생각하는 학교가 많아 상담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뭄</li> <li>- 일선 학교장과 학생부장의 인식 및 태도가 형식적인 경우 연계효과도 떨어지고 학생 및 부모에게도 상담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짐</li> <li>- 학교 내 교사, 학생들의 인식 부족</li> <li>-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음. 학교에서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문제화, 가시화 한다는 부분으로 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해결 방향이 다르다고 인식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li> <li>- 단시일 내에 처리하려는 학교 측 입장 변화</li> <li>- 아직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음</li> <li>- 주 의뢰기관인 학교측에서는 폭력 가해학생의 형식적인 처벌의 형태로 본 센터를 이용할 뿐 의뢰학생의 궁극적인 정서, 행동 변화 등에 대한 의지가 약함</li> <li>- Wee센터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이유가 학생이나 가족 구성원의 영향으로, 즉 가정 내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교사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나 학교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학교 폭력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음. 학교 내의 임시방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사건의 정도가 작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학교에서 사안 발생시, 처리절차 미숙(부모들, 아이들에게 적절한 기회 제공 안 됨)</li> <li>-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계 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가해 학생에게 단순히 벌을 주는 의미로 프로그램 연계하는 경향이 많은 듯함. 담당자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의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립적 대응 향상</li> <li>-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력 부족, 심각성 부족(학교)</li> <li>- 학교폭력 사례 발생 시 학교 측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다는 인식</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CYS-Net 대상
	<p>때문에 연계를 꺼림.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로 인식하고 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는 쉬쉬하는 태도가 강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은밀한 상담 연계만이 겨우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후 관리가 적절한 학교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li> </ul>
교사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현 청소년들의 특징, 관계개선, 상담개입 방법 등</li> </ul>
자치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건을 처리함에 있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위원들의 체계적, 정기적 교육이 필요</li> </ul>
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클래스 연계를 통해 상담접수나 의뢰접수함</li> <li>- Wee센터가 아직 없고 Wee class만 있음</li> <li>- Wee센터에서 우리에게 사례를 연계 요청함. 우리센터에 접수되는 상담(개인/집단)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li> <li>- Wee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다 인력이 많고, 학교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용이함</li> <li>- 사례 맡은 상담자가 알아서 필요한 연계를 함</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대상자(가해자, 피해자) Wee센터로 연계(지원센터로는 정보 연계되지 않음). Wee센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상담 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 예방이 중요</li> <li>-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강조</li> <li>- 학교 폭력 발생 시 신속한 신고</li> <li>- 사건화 되지 않은 비공개 피해/가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기관, 부모, 학교의 공동해결대응 방안 필요</li> <li>- 다른 기관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연계를 강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움</li> <li>- 우리나라는 신고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나 대책(교육프로그램 등)이 미비</li> <li>- 학교폭력 가해자를 보면 완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음 피해자처럼 가해자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li> <li>-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li> </ul>

## 2. 학교 대상 결과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간의 신뢰</li> <li>- 연계기관간의 신뢰 구축</li> <li>- 연계기관 간 적극적인 태도</li> <li>- 연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 태도</li> <li>-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기관과의 연계 활동 시 가치 및 생각의 차이가 있을시 의견을 조정을 하며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연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신뢰</li> <li>- 기관 상호 신뢰 구축</li> <li>-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연계 태도</li> <li>- 피해자·가해자·학부모·학교가 서로 유기적 관계로 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노력</li> <li>- 기관 간 연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li> <li>- 기관의 적극적 참여</li> <li>- 상호 연계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li> <li>- 서로 간의 신뢰, 배려 구축</li> <li>- 연계 기관과의 소통과 이해</li> <li>-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공유</li> <li>-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학교·교육청·경찰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태도</li> <li>- 의견대립이 생길 경우가 종종 발생</li> <li>- 학교 현장교사와 상담자, 관리자의 학교 폭력에 관한 깊은 이해와 상호간의 의사소통</li> </ul>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li> <li>-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방, 상담, 대책에 대한 활동 등이 one-step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함</li> <li>- 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 활동</li> <li>-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 및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li> <li>- 지역사회 협의도 중요</li> <li>- 지역 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연계 기관 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역할 분담</li> <li>- 학교폭력 개최결과에 따른 가피해자는 반드시 서로 다른 타 기관 교육 참여 필요</li> <li>- Wee센터와 CYS-Net의 프로그램 차별화가 더 정확히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CYS-Net은 동반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전예방교육에, Wee센터는 사후 교육 및 상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방안 등</li> </ul>
연계 중심기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역 교육청이 연계활동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이 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li> <li>-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 필요</li> <li>- 제3의 중심기관</li> </ul>
인력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li> <li>-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li> <li>- 연계활동 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효율적 연계 활동이 어려움</li> <li>- 지역별 연계 기관에서 학교별 지정인원이 있으면 좋겠음</li> <li>- 수업하고 교사와 별개의 부서나 인력이 전문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 함이 타당함</li> <li>- 연계기관의 업무과중으로 긴급 사항 시 대체가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움. 인력확보 필요</li> <li>- 상담인력 확보</li> <li>- 전담인력 필요</li> <li>- 시설 및 공간 확보</li> </ul>
즉각적 대응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즉시 사후조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여야 함</li> <li>- 의뢰 시 즉시 개입</li> <li>- 학교 폭력 사안은 긴급 사안임에도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함</li> <li>- 교육을 의뢰하면 즉각적인 연계 필요</li> <li>- 연계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됨(의뢰기관의 일정에 대한 고려 요망)</li> <li>- 연계기관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연계 어려움</li> <li>- 즉각적인 조치 필요</li> </ul>
업무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기관의 업무량 과다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움</li> <li>- 각 기관 모두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기관의 업무과중으로 긴급 사항 시 대체가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움</li> </ul>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행정적인 협조가 간소화 되어야 함</li> <li>- 행정 절차 간소화</li> <li>- 제3의 중심기관에서 학교와 연계기관 간 간소한 절차로 연계하는 것</li> <li>- 행정 절차를 간소하여 행정 절차 때문에 일을 꺼리는 일이 없어야 함</li> <li>- 간소한 행정절차</li> <li>- 절차 간소화</li> </ul>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지침이나(절차 포함)</li> <li>- 연계 지침(절차) 마련</li> <li>- 법적 근거를 통해 의무적으로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li> <li>- 업무지침이 필요함</li> <li>-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li> <li>- 연계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두어 필요에 맞는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li> <li>-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ul>
강력한 조치 이행 기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학교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기관이 필요</li> <li>- 강도 높은 기관에서 개입 필요. 경찰서 등</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li> <li>- 학교에 많은 기관의 정보 요망</li> <li>- 기관의 적극적 홍보</li> </ul>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보적인 정보 교류</li> <li>- 상호간의 정보 공유의 인식</li> <li>-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학생 사안 충분히 인지하여 학교폭력 문제 해결)</li> <li>- 사례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li> <li>- 폭력사안 공개(실무자간 공개, 대부분 축소하려 함)</li> <li>- 사례 및 해당학생, 학부모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결정의 공유</li> <li>- 서로 간의 정보공유와 신뢰</li> <li>- 정보공유 그러나 학생 사적인 부분·인권에 대해 보호하는 것</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필요</li> <li>- 정보교류 및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결과 안내 및 상호교류</li> <li>-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선도 방안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공유해서 자체 해결이나 지도할 수 있는 정보나눔이 필요</li> <li>-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준비가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안내</li> </ul>
비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유지</li> <li>- 정보공유 그러나 학생 사적인 부분·인권에 대해 보호하는 것</li> </ul>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다양하고 많은 기관 설립</li> <li>- 연계기관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계 기관이 필요</li> <li>-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벌에 따른 연계기관,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부족으로 제 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는 경우가 있음.</li> <li>- 연계기관의 확보</li> <li>- 전문조정위원과 전문상담사가 있는 기관이 필요함</li> <li>- 청소년 보호시설(쉼터)늘리기</li> <li>- 학생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몽 기관 필요</li> <li>-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기관 및 정보(다양성, 수 확보)</li> <li>- 학생들만의 문화공간을 신설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줌</li> </ul>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연계 기관, 활동들이 있었으면 함.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부족</li> <li>- 연계 기관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함</li> <li>- 연계기관도 중요하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li> <li>- 다양한 프로그램</li> <li>-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 제공</li> <li>- 효율적인 훈련 및 지도 프로그램</li> <li>-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li> <li>- 적성과 진로·직업 교육을 통해 목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래 직업과 연계된 교육</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프로그램 지속성, 추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과정에서 연계 독려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연계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li> <li>- 추후 상담관리의 필요성</li> <li>-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활동 필요</li> <li>- 지속적인 추수지도</li> <li>- 사후관리</li> <li>- CYS-Net의 활성화로 폭력학생의 추수지도가 가능했으면 함</li> <li>- 학생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과후에도 폭력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함</li> </ul>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닌 사랑 나누기를 통한 이해와 인정 주기</li> <li>-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발견과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함</li> <li>- 처벌보다는 예방지도. 일시적인 법적대응보다는 진정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li> <li>-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를 문제화 시키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li> </ul>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의 인식</li> <li>-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태도</li> <li>- 부모와의 연계성</li> <li>- 부모 교육 강화. 부모님들이 직장 문제로 학교 폭력 해당 당사자들의 부모님은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도 못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li> <li>- 가정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연계프로그램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 생각함</li> <li>- 가정에서부터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강도 높은 기관에서 개입 필요. 경찰서 개입도 좋은 방법, 경찰관은 최후 방법이지만 먼저 상담·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최후로 경찰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li> <li>- 가정이 먼저 안정되고 편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li> <li>- 과한 벌칙마련을 벌금부과로 변경하고, 부모자녀 의무 캠프 참석</li> <li>-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li> <li>- 가해자 부모의 인식이 문제임</li> <li>- 학생 및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li> <li>- 연계 시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 혹은 소극적 태도로 인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임. 학생·학부모의 연계활동을 적</li> </ul>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 학교 대상
	<p>극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기관 정보와 기능 이해</li> <li>- 가피해 학생 학부모의 폐쇄성으로 효과적인 상담과 예방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li> <li>- 학부모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법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li> </ul>
기관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의 인식 전환</li> <li>- 기관장의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 마인드</li> </ul>
학교의 개방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적극적 사고와 교육</li> <li>-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적극적인 연계시도, 학교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연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li> <li>- Wee센터, 스쿨police,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한 연계기구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 내의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 때문에 (외부에 노출을 꺼려함) 연계가 자유롭지 못한 형편임.</li> <li>- 학교 측의 폐쇄성</li> </ul>
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가피해자들의 다양한 상담 및 특별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CYS-Net의 노력이 돋보임</li> <li>- 연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고 순조로운 연계가 이루어졌음.</li> <li>- 교육청, 청소년 센터, 경찰관서 등과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신고 전에서부터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협조 체계가 잘 되고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 스쿨 활성화</li> <li>-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폭력이나 해체를 이 상태로 방치하면 언젠가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됨.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함</li> <li>- 연계 기관의 교육 수료 후 학생들의 반응은 ‘늘 하던 상담을 했다’의 반응이 많았음.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슴에 와 닿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함</li> </ul>

### 3. Wee센터 대상 결과

영역	주요 응답 내용 - Wee센터 대상
기관 간 신뢰 및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li> <li>- 연계기관 간 신뢰형성</li> <li>- 타 기관과의 신뢰로운 관계 추구. 기관과의 가치 및 생각이 커서 조율이 어려움</li> <li>- 기관들 간의 신뢰관계 및 업무 협조 분위기 형성</li> <li>- 각 기관에서 적극적 태도</li> <li>- 상호 경쟁적 구도가 아닌 협력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li> <li>-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함으로써 적극적인 태도</li> </ul>
지역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에 관해 지역 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한 뒤 신속한 개입</li> <li>- 각 기관에서 정기적인 모임의 자리가 필요</li> <li>- 일회성에 그치는 협의회, 탁상공론 식의 협의회 진행 지양</li> <li>- 실무자간의 인적 네트워크</li> </ul>
연계 기관 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업무에 대한 협의, 협조</li> </ul>
연계 중심기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 활성을 위한 기관 창설</li> <li>- 연계를 주도하는 중심기관이 필요</li> </ul>
인력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를 하고 싶어도 연계 기관의 업무과다로 거부(거절)를 당하였기에 인력 보충이 시급</li> <li>- 농어촌 지역에는 연계할 기관이 대부분 멀리 있어서 학생들이 방문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관련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함.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가 늘어나고 연계기관 또한 각 지역에 고루 배치되면 더 좋리라 생각됨</li> <li>- 피해자/가해자 학생의 격리 부분에 격리 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및 인력지원이 필요, 특별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학교에서는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나 인력이나 센터실 부족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알아보라고(지원센터) 하며 미루게 됨</li> <li>- 연계 담당 인력의 확보 및 직업의 안정성과 적절한 보상(금전적인 부분)이 필요. 현재 Wee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모두 상담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과잉으로 상담자가 지쳐 있지만 안정성이나 보수면에서는 낮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인력의 이동이 많음</li> </ul>

영역	주요 응답 내용 - Wee센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li> <li>- 자문위원(한국상담심리학회1급 또는 한국상담회 수련감독)</li> <li>- 예산 지원과 필요에 따른 예산 운용</li> </ul>
즉각적 대응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li> </ul>
업무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관련 법안에서의 의뢰에서 안내부분까지 전적으로 Wee센터에 업무가 과다한 점은 불합리한 부분임</li> <li>- 학교 내에서 폭력학생을 특별교육 위탁으로 연계함에 있어, 주로 wee센터를 이용하려고 함에 따른 업무의 과다로 특별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li> <li>- 연계를 하고 싶어도 연계 기관의 업무과다로 거부(거절)함</li> </ul>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 간소화</li> <li>- 행정절차의 간소화</li> <li>- 행정적 절차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li> <li>- 업무절차의 간소화</li> <li>- 예산 사용의 용이성을 늘리는 것</li> </ul>
연계관련 제도/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 구별 지침이 필요</li> <li>- 학교폭력에 관해 구체적인 연계 지침을 마련</li> <li>- 학교폭력가해자 특별교육에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무편람, 기준이 있어야 함</li> <li>-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심각성 수준별로 다양한 절차의 필요성을 느낌</li> </ul>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서 Wee센터로 연계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과 연계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음</li> <li>-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 후 휴대폰 번호 등이 바뀌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지속적으로 상담의 차원에서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좋겠음(정보 미비)</li> <li>- 자유로운 정보 공유</li> <li>- 내담자에 대한 정보공유</li> <li>- 타 기관과의 자료 공유</li> <li>- 기관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li> </ul>

영역	주요 응답 내용 - Wee센터 대상
다양한 연계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 기관 시설들이 많이 개소하여 바로바로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이 존재해야 함</li> <li>- 다양한 연계기관 확보</li> <li>- 농어촌 지역에는 연계할 기관이 대부분 멀리 있어서 학생들이 방문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연계기관이 각 지역에 고루 배치되기 바람</li> </ul>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신청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상담은 미흡.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이루어져야 함</li> <li>- 출석정지 학생들의 프로그램</li> <li>- 지역사회 및 대안교육 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 상담 및 치료</li> </ul>
프로그램 지속성, 추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교육,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사실상 연계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참가 후 Wee클래스에서 추수상담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센터 내 상담이나 추수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li> <li>-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병원연계 치료 및 꾸준한 상담 필요</li> </ul>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 사례 발표회를 통한 사례진행 전문화 및 기관간의 유관성 지지</li> </ul>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과의 문제(바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만을 위한 시스템도 좋지만 좀 더 범주를 넓히는 것이 필요</li> <li>-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활동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 학생과 학부모들(학교폭력 관련 대상)에게 학교 폭력 예방교육의 강화</li> <li>- 부모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와 환경에 대한 처치 필요</li> </ul>
학교의 개방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일선교사와 담당부서에서 학교폭력(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li> <li>- 관내 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뢰를 해야 함</li> <li>- 의뢰서→안내서→결과보고서까지의 기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은 학교의 태도와 안일한 연락망체계가 가장 문제</li> <li>-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학교가 무방비 함</li> <li>- 타기관의 교육수준과 학생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li> <l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과 인성교육 실시</li> </ul>

### 부록 3.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1차 및 2차)

#### 1. 학교폭력 관련 업무 실태

	항 목	내 용
CYS -Net의 학교폭력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관련 업무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전체 상담사례 건수의 약 25% 차지(대인관계영역에서의 친구문제, 학교일탈 및 비행문제)(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육 대상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추정치를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정말 특별교육 받을 대상이 천명정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학교부적응도 포함되는 거라...(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급력의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건수 즉 양보다는 한 건이 터졌을 때의 과급력이 엄청남.</li> <li>- 정부에서 이슈화하면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죠(사례1)</li> <li>- 한 건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과급효과가 워낙 커서(사례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은 결국 센터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국 사례관리로 들어오면 Wee센터는 7명인데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Wee센터에서 1차감별하고 2차 감별되는 애들은 센터로 오게 될 거고. 또 올해부터 정신선별검사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그 검사에서 2차선별에 걸리는 애들은 보건센터로 보내는데 결국 상담은 저희 센터로 보낼거란 거죠.. 센터 상담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지역의 그 위기를 다 감당해야 하는건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인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죠...(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로드의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Wee 센터랑 다 봤던 걸 다시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 또래상담도.. 그래서 학교나 Wee센터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고 117도 청예단에 왔었는데 다시 우리가..가족개선 사업도 해야하고.. 업무로드도 부담되고 고민이다(사례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자구책1</li> <li>- 특별교육전담팀으로 동반자 조직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서 저희 센터는 동반자 같은 경우 임의로 특별교육 전담팀을 만든거예요.. 동반자 중에 특별교육으로 오는 애들 어쨌든 개별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애들이잖아요.. 특별교육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애들을 다 개별적으로 맡고 또 교육은 통합지원팀에서 맡을 수 있도록 동반자 조직을 개편을 했어요(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자구책2</li> <li>- 센터 업무를 학교폭력으로 올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는 종합대책 이전에 온 센터가 학교폭력으로 올린했어요.. 또래상담, 부모교육 등 모든 사업을 학교폭력으로 포커싱(사례4)</li> <li>-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개설-이음부모, ADHD, 자살, 성폭력, 도박 등으로 부모교육을 홍보해요(사례4)</li> <li>- CYS-Net 가동하여 관련기관 홍보회의-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자구책3</li> <li>- 단계적 추진</li> <li>- 지역사회 자원활용하여 연계강화</li> <li>-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li> <li>■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ul>	<p>스타트, 방과 후 아카데미.(사례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전광판에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기본, 아웃리치(사례4)</li> <li>- 전국 최초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했어요. (사례4)</li> <li>- 경찰과의 협조도 강화하고(사례4)</li> <li>- 우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대책회의를 예방, 개입, 그리고 사후관리 이 세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요.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는 거, 호서대 교수님과 프로그램 만들고 내년부터는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중요한 것 같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위원들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려 하죠. 그리고 상담진행사례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사례6)</li> <li>- 학교폭력 교육 마르고 닳도록 해요 경찰서에서도 하고. 애들이 진짜 재미없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지 말자, 자아성찰이나 공감, 배려 또는 의사소통, 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걸로...(사례7)</li> <li>- 우리 시 시장님에게 요구해서 인원이 증원되고, 광양시 별도로 예산 내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 학교로 매뉴얼을 넘길 것...(사례3)</li> </ul>
Wee의 학교폭력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과중</li> <li>- 학교폭력 관련업무와 교과부 연관된 업무 집중</li> <li>- 정신건강</li> <li>- 기초학력증진사업</li> <li>- 대안교실</li> <li>-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li> <li>- 징계학생 교육</li> <li>- 전화업무 폭주</li> <li>- 자치위 참석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부내의 Wee센터의 구조적인 위치.. 즉, 교과부내의 다른 업무들이 다 Wee로 떨어지니까... 타부처의 학력신장이라던지, 여러 유사사업들, 그런 업무들을 다 다뤄야 하니까, 오롯이 관내 클래스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상담사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거죠.(사례8, 14)</li> <li>- 다른 업무들이 다 떨어지니까... 처음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사업들 정신건강, 기초학력 등 모든 업무들, 대안교육까지, 교육 이런게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약간 지금까지 없던 조직이 생겼고 취약위기 아이들을 다룬다, 그런 개념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다 Wee센터로 사례가 넘어온대요. (사례8, 10, 14)</li> <li>- 저희는 크게 상담하는 업무랑 징계학생 처벌 교육해주는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거의 6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운영하니까, 진이 다 빠져서 실질적으로 1대1 상담을 못해요. 저희가 특별교육이수기관이 되어서...(사례8, a, b)</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회업무는 저희가 해야</li> <li>■ 피해/가해 구분없이 사례받음</li> <li>■ 피해 학생 지원</li> <li>■ 가해학생 특별교육</li> <li>■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li> <li>- 학생, 교사대상</li> <li>■ Wee클래스와 위기상담으로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이후 학교측에서는 무조건 Wee센터로 의뢰해요. 공문에 Wee센터로 보내라고 박혀서 나가니까. 그것만 보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업무가 폭주해요.(사례9)</li> <li>- 자치위 좀 와달라고 하시는데.. 못 간다하니까 이름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사례8, 9)</li> <li>- 저희는 학교이탈의 경우 그런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사례9, 11)</li> <li>- 일단은 가해와 피해 구분없이 저희는 사례를 다 받고 있어요(사례8)</li> <li>- 저희도 다 해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특별교육.(사례11,a,b)</li> <li>- 일단 피해학생이 오게 되면 아이의 심리적 지원도 해주고 혹시 필요하면 전문의 면담도 하고 지원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일 경우 검사는 저희 센터에서 폴베터리로 다 하니까 의료비를 지원하죠. (사례8)</li> <li>- 만약 성폭행학생이면 해바라기센터나 아동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는 피해학생면담을 하고 그쪽 센터는 부모면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상담을 원하면 그쪽 센터로 리퍼하고...(사례8)</li> <li>- 일단 가해학생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하고요. 학교에서 의뢰한 가해학생들이 오면 특별교육을 하고, 열흘이거나 좀 적으면 초범인 아이들은 5일간이에요. 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데서 봉사도 시키고, 미술치료도 하고. 특별교육이라고 따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해요. 법교육도 하고 게임과몰입 프로그램 그런 것도 넣고...(사례8, 11)</li> <li>- 매주 4째주 토요일 4시간씩 경사님이 오셔서 부모님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교육하시고요. 저희 부모교육 담당자가 아이들 다루는 법 교육하고...(사례8)</li> <li>- 가해 부모교육도 강화되었구요.(사례11)</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급단위, 전교생 단위, 교사연수에 대한 부분도 나가고 있어요.(사례11)</li> <li>- Wee클래스에서 어렵다 하는 사례들은 의뢰를 받거나, 위기상담 같은거 연결하고... 학급 집단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도 하고...(사례11)</li> <li>- 생활지도부와 연결되어서 자치위 참석하고...(사례10, 11)</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위 참석하여 활동</li> <li>■ 학교폭력 전담상담자 배치</li> <li>■ 학생들의 반감</li> <li>■ 유명무실한 상담</li> <li>■ 사안처리시 학교상담사 배제</li> <li>■ 사안 최소화시키기</li> <li>■ 학교의 마인드에 따라 위클래스 환경이 변화</li> <li>■ 지속적 상담은 위센터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대책 이후 바뀐거는 학교폭력 전담상담사가 Wee센터에 배치된다고 들었어요.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117이 연결되면 관련된 조사를 하고 상담이나 이런 개입을 맡아달라... (사례 11)</li> <li>- 위클래스는 아이들이 맘편하게 상담하는 공간으로 만든건데 학생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해요.(사례M)</li> <li>- 비밀보장도 안되고... 상담실 자체가 구분이 안되는 학교도 있다. 아이들이 상담실 오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공간확보가 필요...(사례M, L)</li> <li>- 자치위가 열릴때 전문상담사들은 못들어가요... 학교에서 상담사들에 대한 인식도 하수인..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그렇게 보니까...생지부선생님들끼리 마무리 짓고 사후상담만 보내지요...시간때우기 식. 마무리 식..(사례M, L)</li> <li>- 빨리 마무리짓기를 원하죠 학교는... 일이 커지면 학교 이름이 실추되니까...(사례M, L)</li> <li>- 저희는 부장님이 신경을 안써주세요.. 칸막이만 해주고.. 방음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 인식에 따라 위클래스 역할이나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사례M, L)</li> <li>- 우리 위클래스는 장기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가까운 위센터와 연계하고... 왕따나 피해쪽을 주로 연계하는 편이다. 가해는 아이들이 싫다고 하고...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한다(사례 L)</li> </ul>
<p>학교의 학교폭력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간 연계폭력일 경우</li> <li>■ 학교의 부담도 가중</li> <li>■ 학교준비의 미비와 우왕좌왕</li> <li>■ 교사의 어설픈 대응으로 문제악화</li> <li>- 관계적인 부분을 어렵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학교간 폭력이 있을 때는 문제가 커지죠.(사례1)</li> <li>- 학교현장을 보면 모두 선도위원회가 열려야 하니까, 교사들이 해야 한다는 부담...(중략)... 실제 학교의 관리조직인 교장, 교감 선생님, 생활인권부장 선생님들이 실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사례1)</li> <li>- 학교폭력을 담당하게 되는 인권부 선생님들은 부담이 크시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터졌을 때는 지침대로만 하니까.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로드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사례2)</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행정업무의 부담가중</li> <li>■ 학생이 행정의 일환으로</li> <li>■ 허울좋은 복수담임제</li> <li>■ 교사들의 burn-out</li> <li>■ 교사상담 필요</li> <li>■ 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지원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대응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잘 다루어야 하는데 선생님들의 대응이 잘 안되니까 가해 부모의 화를 , 피해부모가 맞고소를 하고, 결국 경찰력이 동원되면 법적인 문제로 처리되고. 그러면 학교가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사례2)</li> <li>- 학교, 도, 중앙단위, 경찰서, 시 등에서 내라는 실적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학교선생님들이...(사례1)</li> <li>- 해야 되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다 보면 아이들이 행정의 일환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문제가 더 악화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아이들을 한명한명 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사례1)</li> <li>- 복수담임을 해야 하니까, 부장선생님들이 맡으신거예요. 학교에서는 실지 증원된 인원이 진학교사 배치된 것,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된 것 정도구요. 그것도 전국으로 따지면 시군에 들어가는 건 한두개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지원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사례2)</li> <li>-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정말 이 선생님들을 풀어드릴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상담에서 교사상담건수가 많이 늘었더라구요.(사례1)</li> <li>-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구체적인 생활지도, 가해아이들 부모 만날 때의 지침, 그런 정말 구체적인 생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중략) 가해아이들 부모도 보면 화를 돋구시는 분이 많아요. 교사들이 먼저 가해자의 need를 풀어드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애를 그렇게 키우셔서,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지 학교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모도 '학교는 도 대체 뭐하셨어요' 이렇게 맞대응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면 학교입장에서는 '아 역시 부모가 안되서 그러는거야.' 이렇게 되고...(사례1)</li> </ul>

## 2. 세 기관의 연계 실태

항 목		내 용
CYS-Net과 Wee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역할나누기</li> <li>- 가해: Wee</li> <li>- 피해: CYS-Net</li> <li>■ 실질적 사업은 센터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는 안전드림팀을 통해 업무분장을 한게, 가해자는 Wee센터에서 받고 피해자는 전부 저희 센터로 오고, 나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기는 했는데.(사례7)</li> <li>- 알아서 지역에서는 지혜롭게 사례를 나누더라구요. 징계를 받으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 Wee센터에서 커버할게, 이 문제는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좀 커버되겠다.(사례14)</li> <li>- 학교에서 예방교육이나 이런걸 우리 센터에 의뢰하면 Wee클래스 선생님은 주로 행정, 관리측면을 맡고, 역량이 안 되니까...(사례7)</li> </ul>
CYS-Net과 학교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상담사 파견</li> <li>■ 멘토지원단 파견</li> <li>■ 교육청과 역할분담</li> <li>■ 학교연계 청소년지원사업</li> <li>- 지도자 관리</li> <li>- 지도자 역량강화</li> <li>■ 학교단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li> <li>- 배려증진프로그램 내용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li> <li>- 또래상담자 양성 주력</li> <li>■ 학교외의 긴밀한 연계채널 확보</li> <li>■ 조기발견과 초기대응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학교에 상근상담사를 파견해요. 2년차 사업.(사례1)</li> <li>- 7개 학교에 자원상담원 파견-멘토지원단이 있어요. 방문상담선생님들이 주1-2회 정도 학교에 파견되어 4시간 정도 상담. 현재 잘 정착된 상태죠.5-6년차 된 사업이에요.(사례1)</li> <li>-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가 19개인데 그중 10개 학교는 저희 센터가 들어가고, 6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3개 학교는 시청에서 직접파견하는 형태로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되어요.(사례1)</li> <li>- 학교와 저희는 오랜 연계관계예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장학사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각 학교에 공문내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신청받아 학교마다 일정을 짜고 (중략) 저희 센터는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지도자 관리를 하고요.(사례7)</li> <li>- 배려증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한 차시에 내용을 넣어서... 예방교육은 학급단위교육이고 학급 분위기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해요. (중략)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양성을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요. 학교 교직원 연수도 이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하고있어요(사례7)</li> <li>-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많다, 또래상담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사례H, I)</li> <li>- 학교 교사와의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은 빠른 편이죠.(사례1)</li> <li>- 조기발견의 99%가 학교인데,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고, 학교소식을 들으려면 학교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사례1)</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개체 역할</li> <li>■ 교사지원단</li> <li>■ 학교지원단</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li> <li>■ 특별교육 실시</li> <li>■ 회의 품앗이</li> <li>■ 슈퍼비전</li> </ul>	<p>- 그래서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체 역할. 학교에 지금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걸 CYS-Net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이 상담사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학교에다가 CYS-Net의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연계를 하는 거죠.(사례2)</p> <p>- 그러니까 관내에서 선생님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만나고 교사지원단에서 만나고.. 학교지원단에서 만나고.. 학교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초중고, 하반기에는 초등 직접 따로 모여서 다했거든요. 거기 다 가면서 얼굴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사례1)</p> <p>- 저희가 학교지원단 이런걸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교사 한 분 한 분 만나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직접 오시게 하고.. 그러니까 내실있는 학교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2)</p> <p>- 자치위에 가고요. 부르는데로.(사례2, 3, 4, 7)</p> <p>- 저희 지역이 Wee센터가 아직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교육을 하고. 근데 Wee센터에서 지원센터랑 같이 하자 해서, 시에서는 장소물색하고. Wee에서는 프로그램 용역 맡기고.(사례1)</p> <p>- 청소년 붙은 데는 다 가요. 회의만 30건을 쫓아다니요. Wee 센터 지역사회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자체,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다 개입이 되니까.(사례4)</p> <p>- 상담복지센터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사례H)</p>
Wee의 연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클래스에서의 연계</li> <li>- CYS-Net과 연계를 잘함</li> <li>■ Wee센터의 Wee클래스 슈퍼비전</li> <li>■ 가해학생 추수관리</li> <li>- 경찰, 스쿨폴리스 지원</li> </ul>	<p>- 클래스로 간 선생님들 특징이 CYS-Net이나 상담지원센터하고는 연계를 참 잘하세요. 사례를 딱 보시고 얘네는 상담가지고는 안된다,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딱딱 연계하시고.(사례14)</p> <p>- 저희가 Wee클래스 연수하고 관리하고... 한달에 한번씩 사례 회의하면서. (사례11)</p> <p>- 추수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인근 대학의 봉사활동 동아리랑 연계해서 멘토링 하고. 경찰청과 스쿨폴리스 지원되는거. 그분들이</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비참여</li> <li>■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위한 연계</li> <li>- 희망재단, 복지관 등</li> <li>- 지역아동센터, 시청</li> <li>■ 피해/가해학생 치료를 위한 지원기관연계</li> <li>- 의료서비스 협약</li> <li>■ 구청, 경찰서에서의 상담 의뢰</li> <li>■ Wee센터끼리의 연계</li> <li>■ 학교에서 방문상담 요청시 지원센터로 안내</li> <li>■ 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li> <li>■ 연계기관 목록</li> <li>■ 위센터 자조모임</li> </ul>	<p>추수지도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셔서. 그런데 부모들이 안 보내셔서 딱 한번하고 추수지도가 스탱된 상황이에요.(사례8)</p> <p>- 저희 관내 희망재단하고 연계해서 범원명령으로 부모교육받아야 하는 데를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저희랑 분담해서 (중략) 봉사 위해 복지관이나 장애인조직과.(사례8)</p> <p>- 저희는 특별교육이 너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 00시와 협약을 맺어서...(사례11)</p> <p>- 피해/가해학생이 왔을 때 치료기관들 정신과나 의료적인 서비스나 상담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곳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있고 협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어요.(사례11)</p> <p>- 구청이나 경찰에서도 간혹 연락이 와요. 학교폭력 조사를 할 때 저희에게 연락해서 상담이 가능한지... 보통 저희 관내학생인 경우는 저희 안에서... (사례11)</p> <p>- 가해학생 부모교육이 문제인게, 데드라인이 있대요. 저희는 매달 4주만 하는데. 그래서 11개 Wee센터가 모였을 때 비슷한 지역끼리 서로 부모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렇게 협약을...(사례8)</p> <p>- 저희도 직접적으로 연결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상담 같은 거요. 그쪽에 동반자 프로그램 있으니까 하고 안내정도를 해요.(사례11)</p> <p>- 부모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있어서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랑 연계했다. 미리미리 사전에 대기신청하고...(사례L)</p> <p>- 희망재단,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사례8), 보호관찰소,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사례11)</p> <p>- 매달 위센터 선생님들이 모이는 날이 있어서 그때 위센터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모이죠.. 그럴때 강의도 듣고 연계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자체적으로 사례회의처럼 하면서 슈퍼비전을 하니가 도움이 많이 되죠(사례L)</p>
<p>센터와 경찰서와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의 처음 시작은 결국 사건에서부터</li> </ul> <p>- 결국엔 사건으로... 그전에 조직으로는 이미 연계되어 있었지만, 조직 이전에 조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지역에 성폭력 사건 그게 크게 일어나서, 그</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동실시</li> <li>■ 지원센터 안내 및 홍보</li> <li>■ 현장조사 공동실시</li> <li>■ 동병상련의식</li> <li>■ 세 기관간 예방교육을 위한 안전드림플러스팀 구성 - 경찰청, 교육지원청, 지자체</li> <li>■ 지역기관내 솔루션회의 - 실질적 사례의뢰</li> </ul>	<p>사건으로 경찰서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사례1)</p> <p>-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는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 들어가셨어요. 소장님, 담당 계장, 과장, 전체 경찰서 직원 모두 학교폭력 관련된 조직을 중심으로 다 들어가셨는데, 들어갈 때 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상담이 필요한 것은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서라, 그리고 1388홍보를 같이 했거든요..(사례1)</p> <p>-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력계랑 여청계랑 같이 가서 현장조사하고.(사례2)</p> <p>-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랑은 좀 동병상련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3D 업종이다 제때 밥 못먹고, 야근 많고. 그래서 경찰서랑은 협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사례2)</p> <p>-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 편차가 심해서 교육과정안에 셋팅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지금은 경찰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 센터는 직영이라 시 외 지자체에 속해있으니까, 이 세 곳에 안전드림플러스팀이 만들어졌요.(사례7)</p> <p>-경찰청에서 사건을 주도하고 하는데 자치위처럼 교육청하고 센터가 들어가서 한번 거르는 거예요. 심사관정을 하는 거예요 솔루션 회의처럼(사례6, 7)</p>

### 3. 연계 성공요인

		항 목	내 용
CYS-Net과 학교 연계의 성공 요인	개 인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들간의 마음의 일치</li> <li>■ 각자의 기관은 담당자들이 커버</li> <li>■ 사명감</li> <li>■ 전문성</li> </ul>	<p>- 근데 담당자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그 마음이 한명만 있어도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담아야할 기관들 그 교육청의 담장자, 경찰서의 담당자 한명이라도 마음이 맞아서 딱 하면, 여기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기관의 일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사례1)</p> <p>- 사명감이예요. 아이들이 변화는 모습, 제가 만들었으니까. (사례1, 2, 4, 7)</p> <p>-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아무래도 센터 선생님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사례H, I)</p>
	관 리 자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끼리 연계의 강화</li> <li>■ 워선의 마인드</li> </ul>	<p>- 우리는 각 기관의 기관장끼리의 연계가 잘 되어있어요. (중략) 처음에 저희가 장학사님을 찾아갔죠.(사례3, 6)</p> <p>-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인 거예요(사례14)</p>
	기 본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관리</li> <li>- 자원봉사자 풀 관리</li> <li>- 자원봉사 관리</li> </ul>	<p>- 저희가 방문상담사 선생님들 질적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학교에다가 아우 여기서 나오시는 자원봉사 상담선생님들 다르시다. 그리고 나면 학교 반응도 다르고.(사례2)</p> <p>- 자원봉사 풀을 막강하게..(사례1, 2, 6, 7)</p>
	조 직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질 담보</li> <li>- 매주 슈퍼비전 실시</li> </ul>	<p>- 센터선생님들이 자원봉사인데도 교육청에서 나가는 순회상담사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건, 센터에서 교육청 상담사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반드시 듣고 오셔라 미션도 드리고, 또 교육이 중요해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여드렸던 것. 선생님들이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다해드리겠다, 대신 가서 잘하셔라.(사례1, 6)</p> <p>-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한 학기는 보조로, 다음 학기부터 본지도자로 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중략) 이분들을 뽑을 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인터뷰를 해서 뽑아도.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받으면서 자조모임도 가지게 되고..(사례7)</p> <p>- 저희는 매주 슈퍼비전을 드려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슈퍼비전. 선생님들을 내담</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의 전문성 확보</li> <li>- 교육정보보다 우수한 서비스</li> <li>- 적극적 홍보</li> <li>- 지속적으로 학교를 책임짐</li> <li>- CYS-Net의 자원 활용</li> <li>■ 상담사들을 위한 백역할</li> <li>- 센터소장이 직접 학교에 소개</li> <li>-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li> <li>■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선긋기</li> </ul>	<p>자료하여 어떻게 선생님을 조율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까 교육청 순회상담사 안받겠다, 지원센터 상담사 받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사례1)</p> <p>- 자원봉사팀을 구별해서 팀 슈퍼비전을 해 드리고(사례7)</p> <p>- 교육정보보다 지원센터가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교육청이 저희한테 협조할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결국은 CYS-Net 기능이 상담의 전문성을 가져야...(사례1)</p> <p>- 우리가 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사례7)</p> <p>- 순회상담사는 본인이 어떻게 해보다 안 되면 끝이지만.. 우리는 자원상담원이라는 하지만 계속 그 학교를 맡으시면 1년 동안 하나니까.(사례1)</p> <p>- 사례가 어려우면 센터나 CYS-Net 다른 기관이랑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 미술이나 놀이치료.. 또는 병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뒤에 믿는게 있으니까...(사례2)</p> <p>- 저희는 상담사가 파견될 때 절대 행정업무 하지 못하도록...그리고 상담사는 학교의 진로부장과 동격이기 때문에 부장이 하달 명령으로 내리지 마라.. 협력해라.. 부장님들이 수직라인으로 상담사들을 대하실 때에는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 센터가 좀 뺏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사례1)</p> <p>-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조직을 센터에서 만들어주고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프로그램이나 연수 같은 거 최대한 해드리고 있죠(센터7)</p> <p>- 저희는 자원봉사 선생님이라도 센터장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드리고 '프로그램지도자' 라고..(사례7)</p> <p>- 학교에 어느 정도 선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말고, 희망자만 대상으로 심리검사 실시하고.(사례4)</p> <p>-저희는 단회로는 안 한다고했어요. 처음부터 시간확보해달라고 4회기로.(사례7)</p>
제 도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연계기관으로의 지정</li> </ul>	<p>-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필수 연계기관 지정한 거. 학교나 경찰 그런데는 지침에 의해서 뭐뭐 해야한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청이 이걸 주관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p>

항 목		내 용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그림 그리고 틀 잡아주기</li> <li>- 학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li> <li>■ 자격기준의 강화</li> <li>■ 지자체 운영기준 적시</li> <li>■ 이름에 걸맞는 공간과 시설</li> <li>■ 인원의 지속성 담보</li> </ul>	<p>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요.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하긴 해야 하나보다, 그런...(사례1)</p> <p>- 그런 큰 그림을 잡아주고 틀을 잡아주는 것들. 윈스톱 서비스에 CYS-Net이 들어가고 필수연계기관으로 서로 지정되고 또 사업으로 일일이 지정되고 그런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조금 학교에서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확실히 변화를... 우리가 정말 안 된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세요.(사례1)</p> <p>- 복지지원법 등에서의 명시(사례1)</p> <p>-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단독건물 이런거요. 지자체에는 그게 운영기준에 한줄 나와 있는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해요.(사례1)</p> <p>- 상담복지센터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지침에 반드시 들어가야(사례1)</p> <p>- 학교도 그런 자세가 강해요. 상담실이 번듯이 있나, 시끄러운 한쪽 구석에 있나.(사례2)</p> <p>-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요. 이직율이 높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계속 일 할 수 있도록...(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시간의 공들임</li> <li>■ 교육청과 학교의 절박한 필요성</li> <li>■ 물밑작업</li> </ul>	<p>- 저희가 담당장학사를 섭외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사례1)</p> <p>- 몇 년 쌓이니까 서로 안면을 다 아는거예요(사례7)</p> <p>- 학교방문상담선생님은 학교에서 먼저 원했어요. 중학교부터는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외부도움을 요청하셨고...(사례1)</p> <p>- 그분(장학사)이 처음에는 고자세였다가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아 내가 이거 혼자서 못하는구나 인식을 하시고 그전에 물밑작업을 했던 저희한테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사례1,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의 밀접한 관계</li> <li>■ 매칭사업 실시</li> </ul>	<p>- 저희가 공문을 작성해서 장학사님께 보내드리면 실장님이 장학사님과 단단한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상임위라든지 이런 걸로 이미 엮여져있으니까,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사례3, 7)</p> <p>- 학교에서 도움요청하시고 상근상담사 파견은 학교와 매칭사업</p>
상 호 작 용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주고받기</li> <li>■ 업무에서의 성공경험</li> <li>■ 긴급성과 즉시성</li> <li>- 의뢰와 연계시스템</li> <li>- 발로 뛰기</li> <li>■ 수도 없이 계속 만나기</li> <li>- 소장님이 교감 만나기</li> </ul>	<p>을 했어요. 상담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셔야 하고, 사업비 잡으셔야 하고, 우리는 인력비만 지원하겠다. (중략) 근데 상담사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을 할 때 학교가 협조하는 부분은 어려웠어요. (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알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도움받고. 이게 되니까.(사례7)</li> <li>- 폭력사건이나 상담사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학교에서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죠.(사례1)</li> <li>- 저희 관내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중략) 저희 인적 네트워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중략) 학교는 다 크로키 상태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개입해서 교사 교육하고, 아이들은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PTSD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중략) 결국 이 사건에 대처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교가 교장, 교감선생님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교사들을 잘 다독겨주시고. 교사들이 마음이 모이니까 아이들한테 잘 대처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사례1)</li> <li>-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지, 이야기가 나오게끔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사례2, 4, 7, 14)</li> <li>- 발로뛰고 인간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사례7)</li> <li>- 요청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요. 학교에서 심리검사, 성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해요.(사례4)</li> <li>- 로드맵을 잡고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해주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끌어안을 부분을 맡아줘서 교육장 입장에서 수월해지고...(사례3)</li> <li>- 학교에서 윈스톱서비스를 이용해라 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거죠. 우리 이번에 뭐 필요해 그러면 우리 상담사업과 연계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필요하면 CYS-Net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 내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든가 그렇게...(사례1)</li> <li>- 결국 학교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픈하는가. 결국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방문상담사 한명을 파견하기 위해서 뭐 소장님이 데리고 가서 교감선</li> </ul>

항 목		내 용
연 계 성 공 의 순 환	- 교사지원단, 학교지원단 만나기	<p>생님이랑 세팅은 이렇게 하고, 수도 없이 만나서...(사례2)</p> <p>- 그러니까 관내에서 선생님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만나고 교사지원단에서 만나고, 학교지원단에서 만나고, 학교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초중고, 하반기에는 초등 직접 따로 모여서 다했거든요. 거기 다 가면서 얼굴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사례2, 6)</p>
	<p>■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과 신뢰</p> <p>- 그 결과, 학교에서 먼저 연계요청</p> <p>- 아래에서 위로 어필이 됨</p>	<p>- 아 이런 일이 생길 때 센터에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사례1, 7)</p> <p>- 오랫동안 깔려있는 서로의 신뢰와 이런 것들(사례7)</p> <p>- 00도 모학교에서 위기사건이 생겼을 때, 교장선생님이 먼저 시군구 센터에 연락하시고, 시군구에서 시도로 연락해서 거기는 긴급지원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Wee센터 포함시키고, 지역상담가들을 다 모아다가 위기개입팀을 만든거예요. 학교들어가서 작업하고...(사례14)</p> <p>-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학교에 상담사 파견하는 사업이랑 학교 상황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교육청사업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지원센터 사업을 하겠다, 이런 학교도 생기고.(사례1)</p> <p>- 학교에서 자꾸 지원센터가 좋다.. 일해준다 이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원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사례1)</p>
CYS-Net과 경찰 연계의 성공 요인	<p>■ 처음 시작한 결국 사건에서부터</p> <p>■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물밑작업</p> <p>■ 상대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p> <p>- 교육활동</p> <p>- 사례 수용</p>	<p>- 결국엔 사건으로... 그전에 조직으로는 이미 연계되어 있었지만 조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사례1)</p> <p>- 그 사건으로 경찰서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사례1)</p> <p>-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잖아요. 그게 결국 사례를 중심으로 마음이 만나는데, 그전에 밑작업을 할 때에는 경찰이 요구하는 것에 잘 응대하는 거죠.(사례1)</p> <p>- 경찰서에서도 명예경찰단 같은 자체 조직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고...(사례1)</p> <p>- 학교폭력이나 상담명령 내릴 때 저희쪽에서 아이들을 잘 수용해서 받아주고...(사례1)</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요청기관으로서의 인식</li> <li>■ give &amp; take</li> <li>■ 사례에 경찰투입요청</li>   <li>■ 필수연계기관 지정</li> <li>-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li> <li>■ 지도자의 마인드</li> <li>- 지도자의 일치된 마음</li>   <li>- 연계에 대한 의지</li> <li>-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li> <li>■ 담당자들 간의 마음의 일치</li>   <li>■ 각자의 기관은 담당자들이 커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서 언제든 위기에 뒤편이 필요하면 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걸 해놓으면 도움을 받은 거니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좀 쉬운거죠.(사례1)</li> <li>- 저희는 사례 중에 성폭력 사례 이런게 있을 때, 경찰이 같이 투입되서 조사하고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고...(사례2)</li> <li>- 필수연계기관이 지침이 되면서 좀 더 활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개인적인 관계로 센터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 되면서는 좀 더 공신력이 생긴거죠.(사례1)</li> <li>- 저희는 좀 좋았던 게 저희 경찰서장님, 시장님, 교육청장님이 같이 세분 다 마인드가 맞아서 저희 장 회의에서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잘 되세요. 서로 협조하는 부분도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중략) 서로서로가 좀 권위적이지 않고 좀 겸손한 태도로 서로서로를 대하시고 그러니까...(사례1)</li> <li>- 근데 담당자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그 마음이 한명만 있어도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담아야할 기관들 그 교육청의 담당자, 경찰서의 담당자 한명이라도 마음이 맞아서 딱 하면. 여기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기관의 일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사례1)</li> </ul>

#### 4. 연계 저해 요인

	항 목	내 용
<p>CYS-Net이 바라보는 학교와의 연계 저해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폐쇄성</li> <li>- 프로그램 시간 확보 어려움</li> <li>- 상담사 역할수행을 위한 학교협조에서의 어려움</li> <li>■ 홍보력의 차이</li> <li>■ 교육청의 인식미비</li> <li>- CYS-Net을 공적 서비스로 보지 않음</li> <li>- 수많은 연계기관 중 하나</li> <li>■ 직영과 위탁센터의 차이</li> <li>- 정체성 문제</li> <li>■ 전문상담교사의 행정업무</li> <li>■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미흡</li> <li>- 지속적 관리 기능 부족</li> <li>- 장소와 인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는 지가 문제예요. 학교가 요구하면 항상 대응해줘서 그걸로 품앗이 해준다. 그 외에는 창의재량 시간 하나 얻기도 힘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사례4)</li> <li>- 매칭사업을 통해 상담사 파견까지는 쉬웠어요.. 쉬웠는데 그 뒤로 상담사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을 할 때 학교가 협조하는 부분들은 어려웠죠.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1)</li> <li>-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람장으로 Wee센터를 홍보시킨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의뢰 발굴하러 다녀야 하고..(사례4)</li> <li>- 실질적인 사례공유가 잘 안 됨. 학교는 공무원, 우리는 공적 서비스이지만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보장이 안 되다보니까. 학교입장에서는 우리를 민간단체, NGO로 보니까 오픈하기 힘들죠.(사례5)</li> <li>- 교육청은 우리 센터가 수많은 연계기관 중 하나일 뿐.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사업적 면에서 잘 유대가 안 됨.(사례4, 5)</li> <li>- 위탁센터인 우리는 내가 시에 들어가도 과장급대우를 받습니다(사례5). 우리는 직영이다 보니 청소년계 말단직원 다음부터 우리가 있죠. 신분, 명예 모두 내려놓으니까 가능했던 것. 오히려 직영이다 보니, 시 직원이 오히려 연계대상이더군요.(사례4)</li> <li>- 전문상담교사가 어려웠던 게, 학교의 행정조직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엔 행정업무를 해야 하고. 그러면 교사와 다르게 없는 거예요. 행정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상담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를 파견할 때 절대 행정업무 하지 못하도록...(사례1)</li> <li>- 신고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 일이 재발될 확률이 많은데, 이 아이를 결국 잘 대처시키고 잘 복귀시키는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처방안이 너무 없는거예요. 현황문제가 뭐냐면 신고했다..선도위원회 열렸다.. 그래서 상담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줄 곳이 없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의 신고기능, 학교에서의 발굴기능, 조사기능 다 강화되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 물린 이후에 이 아이들을 돌볼 인력은 없어요. 개인상담도 필요하고 집단상담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른 서</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로드의 부담</li> <li>- 고위험은 결국 CYS-Net으로 의뢰되지만 인력 비확충</li>   <li>■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부족</li> </ul>	<p>비스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인력도 없고 장소도 없으면서 신고 기능이 강화되었다면 결국 센터가 느끼는 압박감은 너무 크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죠.(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국 사례관리로 들어오면 Wee센터는 7명인데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Wee센터에서 1차감별하고 2차 감별되는 애들은 센터로 오게 될 거고, 또 올해부터 정신선별검사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그 검사에서 2차선별에 걸리는 애들은 보건센터로 보내는데 결국 상담은 저희 센터로 보낼거란 거죠. 센터 상담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지역의 그 위기를 다 감당해야 하는건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인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죠.(사례1)</li> <li>- 지원과 회의가 너무 많고 행정에 치여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는...(사례4)</li> <li>- 지역기관이 학교를 이해하는 데 참 오래 걸려요. 학교가 가지는 학교의 특수성과 문화가 있는데, 그 코드를 못 맞추면... 근데 지역의 기관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이상하다고 그러거든요. 교육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학교가 혼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학교선생님들도 알지만 고칠 수 가 없는 거예요.(사례1)</li> </ul>
<p>CYS-Net이 바라보는 Wee와의 연계 저해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 센터의 통제</li> <li>- CYS-Net의 개입을 막음</li>   <li>■ 사건발생시 위기시스템 미가동</li> <li>- 행정과의 분리</li> <li>- 총체적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li>   <li>- CYS-Net에는 인원만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이 터지고 나서)기자들도 (지원)센터에 와서 개입 안하나, 물어보는데 참 난감한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Wee에서 그렇게 개입이 되는데...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나설 수가 없는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거 자체가 안하고 있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사례4)</li> <li>- 위기상황 시 조직 내 위기시스템이 확실하게 있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행정과 Wee센터가 분리되고, 행정에서 대책회의가 구성되어서 지시하고, 거기에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Wee 센터 운영위원회를 사건 터지고 오히려 취소시키고, 운영위원회에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경찰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위기개입을 위해 가동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Wee에서 너는 애 말아라, 우왕좌왕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센터에는 직원 4명 투여해달라는데</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지향적 일처리</li>   <li>■ Wee의 연계 인식 미비</li> <li>- 내부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고자세</li> <li>- 타기관 평가절하</li>   <li>■ 사건이 터지고 나면 도루묵</li>   <li>■ Wee와의 보조 맞추기 어려움</li> <li>- 행정라인의 대응미비</li> <li>- Wee클래스 교사들의 업무배제</li> <li>- Wee 사업의 시작시기 상이</li>   <li>■ 내담자들이 CYS-Net을 선호</li> <li>- Wee의 경우 부모의 낙인에 대한 염려</li>   <li>■ 업무의 과부하</li> </ul>	<p>인원투여는 했지만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없다, 구조화된 심층면접도 사전교육도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다소 개입이 늦더라도 차분히 가는게 필요한데 뻔방식이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바로 개입 들어가라고 하고, 너무 행정적인거죠. 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전문가를 무시하고 너무 행정 지향적으로 처리하고.(사례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 센터 관장하는 행정라인들은 행정마인드로 한다. 결재를 다 돌려야 해서 시기적 대응도 늦고.. (사례4)</li> <li>- 학교는 우리(Wee센터)가 다할게 우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고자세로 하시니까. 요청을 계속 하는데 리액션이 없고...(사례7)</li> <li>- 같은 상담자끼리 윈윈해야 하는데 마치 Wee센터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상담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센터나 청소년육성센터같은 데는 퀄리티 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기 경력도 별로 낮지 않은데..(사례7)</li> <li>- 학교폭력에 올인해서 진행하고, 심지어 사례관리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추수지도 들어가라고 하고, 그런 성향의 아이들도 다시 만나록 했는데, (사건이)터지니까 방법이 없다. 도록묵됐다.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사례4)</li> <li>- Wee클래스선생님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공문공람도 안되고 결재권도 없으니까 맨날 누락되는 거예요. Wee담당 선생님만 공문을 볼 수 있으니까 (중략) 거기다가 올해는 4월에 임용되었어요. 이미 계획서가 다 끝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사례7)</li> <li>- (업무분장을 해서 가해지는 Wee에서 맡기로 했는데) 어머님들이 Wee센터로 가는 걸 선호하지 않으세요.. 학교에 모든게 오픈되는 느낌이 있으신가봐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사례7)</li> <li>- 어머니들이 Wee로 가는걸 선호하지 않으세요. 거기가면 모든게 공개가 되고 학교하고 연결이 되고 다 오픈되는 느낌이 많으신가 봐요.(사례7)</li> <li>- 지금 다들 폭주하는 업무에 지쳐 나가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각 기관이나 체제에 인력확충이 되어야 한다. 연계가 다른 부과적인 업무로 여겨지면 안 된다. 지금 여력이 없는 거니까...(사례14)</li> </ul>

	항 목	내 용
Wee가 바라보는 연계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자기 떨어진 연계</li> <li>■ 유명무실한 운영협의회</li> <li>■ 전달체계의 문제</li> <li>- Wee센터에서 클래스로</li> <li>- 연계는 센터를 거치라는 방침</li> <li>■ Wee의 사례대기자 문제</li> <li>■ 연계를 위한 시간과 공간, 사업비 마련 없음</li> <li>■ 연계 실패경험</li> <li>- 의뢰사례의 누락</li> <li>- 의뢰거부</li> <li>■ CYS-Net의 Wee 센터 연계에 대한 미흡한 반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센터 실장들 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희가 윈스톱 서비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사례8)</li> <li>- 사실 협의회를 서로 위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자주 참석할 환경이 안되서...(사례11)</li> <li>- 클래스 선생님들은 지역에서 연계를 잘하시는데, 갈등의 소지는 뭐냐면, 클래스 자체적으로는 자원연계를 하지마라. Wee센터 를 거쳐서 센터에서 연계를 하도록 하라는 방침이 연계의 어려움이죠.(사례14)</li> <li>- 사례연계 시에는 Wee센터에 보고를 하고 Wee센터에서 사례 판정기능을 한 후에 상담지원센터로 의뢰할 건지 쉽터로 의뢰할 건지, 다른 기관과 연계할건지 등 정리를 하자 이근데 클래스 입장에서는 아니 긴급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하나, 학교단위에서 바로 바로 연계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사례14)</li> <li>-저희도 대기가 있어서 바로 처리가 어렵잖아요. 공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사례11)</li> <li>- Wee 센터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학교 위클래스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거기도 포화상태...(사례 J)</li> <li>-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이 별로 없는거예요. 연계 협의를 위한 지원금도 전혀 없고.(사례8)</li> <li>-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보니 모이기도 힘들고, 공문보내라고 하고...(사례9)</li> <li>- 상담지원센터에 보냈더니 사례가 사라진거예요. 애가 학교는 안 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한두번 하나까 못 믿겠다...(사례14)</li> <li>- 저희도 의뢰를 하고 싶어도 저희한테 들어온 사례를 토스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중략) 지원센터에서 (그건) Wee센터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사례8)</li> <li>- 저희 Wee센터 전 센터장님이 연계를 위해서 지역기관들과 연계를, 미리 기관방문을 하셨어요. 관내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나 정신보건센터나 복지관. 그런데 CYS-Net 반응이 좀... Wee센터가 어떤 일을 연계하지는 거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교육청에서 며 이런 일을... 그런 시</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센터의 유료서비스</li> <li>■ 학부모의 연계 거부</li> <li>- 타 기관에 대한 오해</li> <li>- 가해학생끼리 어울리는 것이 싫음</li> <li>-학부모들의 Wee센터 무한신뢰</li> <li>■ 연계 지식 부족</li> <li>■ 인간관계를 위한 만남 필요</li> <li>■ 학교의 인식</li> </ul>	<p>선.(사례10,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경우에는 무료도 있지만 대체로 유료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내담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리퍼하기도 쉽지 않고.(사례10)</li> <li>-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초면접을 하시는 수준이라면 저희는 사실 풀베터리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교육적이고 약간 상담기관적인 성향인걸 아시고...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아이가 뭐가 이상해서 그런데 가냐. (사례8)</li> <li>- 가해아이들 추수지도 차원에서 스포츠클럽같은 걸 구성했는데 가해아이들끼리 뭉친다고 안 보내셔서 딱 한번하고 스톱된 상태예요.(사례8)</li> <li>-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공문에 Wee센터 홍보를 하시고 하니까, 무한 신뢰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사례8)</li> <li>- 어느 선 어느 누구랑 만나야 하는지 모르니까(사례8)</li> <li>- 어려움이라면, 예를 들어 자주 모이고 했으면. 좀 더 안면이 있어서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 뭔가 자주 이런 모임들이 있고, 자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사례11)</li> <li>-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수인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장이나 부장선생님의 인식에 따라 환경조성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사례L, M)</li> </ul>

## 5. 연계 관련 제언 및 희망 사항

	항 목	내 용
CYS-Net과 학교, Wee 간의 연계방향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위에서 CYS-Net 조직의 필수적인 참여필요</li> <li>- 중재역할과 완충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참석한 선도위에 CYS-Net 조직이 반드시 참여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해요. 아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것 이전에, 아이의 어떤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완충해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로서의 CYS-Net이 아니라 사람조직이 되어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S-Net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담자의 강점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CYS-Net이 정말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제도로서 CYS-Net이 되는게 아니라, CYS-Net이라는 그 사람 조직이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허브 역할 같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한 접근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조사기능과 중재기능, 상담기능하고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자칫하면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학교에 파견된 상담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에요. 초기대응을 학교의 상담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게 판단하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판단하는게 아니고 이 아이는 왜 그랬고 배경을 이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자로서의 중재역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사안에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사례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에게 상담자의 시각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교사의 시각이 아니라 상담자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들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하세요.(사례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li> <li>- 사안처리에 대한 매뉴얼</li> <li>- 연계에 대한 매뉴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칫하면 학교는 상담사에게 저희에게 전가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해요.(사례1)</li> <li>- 누구랑 협조할 때 그 기관의 누구누구가 참석해야 하고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고 주체는 누구고 실적은 공동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매뉴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서로 떠밀게 될 것 같아요.(사례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들에 대한 상담기능 제공 필요</li> <li>■ 아이들에게 선택권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S-Net의 중재기능에 교사들에게 지식교육보다는 어떤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해 드리는 역할이 필요...(사례2)</li> <li>- 가장 이상적인 거는, 대상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S-Net은 Wee센터의 조력자로 기능해야</li> <li>■ 퀄리티가 높은 질을 담보해내는 교육기능</li> <li>■ 학교밖 중심으로 가야 - 학업중단 아이들</li> </ul>	<p>최상인 것 같아요. 피해자, 가해자 각각 입장에서. 만약 나는 학교 못 믿겠다., 바깥의 상담선생님께 받겠다, 그러면 연결하고. (사례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는 상부에 상담원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교육들을 가지고 있고 매뉴얼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곳들에 대해서 지역 기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Wee센터에 조력자로 들어가야(사례1)</li> <li>-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 같은 레벨에서 싸우면 안되는 거죠. (중략) CYS-Net이 자기 고유성을 인정 받아가면서 계속 같이 가기 위해서는 슈퍼비전 기능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질을 담보해내는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야만 Wee센터도 계속 연계를 맺는게 필요하니까 맺을거고, 학교도 도움을 요청할 거고...(사례1)</li> <li>- 학교 애들은 기본적으로 Wee 센터에서 말고 우리는 학교밖 중심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는 상황이에요.(사례4, 5, 14)</li> <li>- 저희들은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나 경계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CYS-Net이 담당하면 어떨까.(사례8, 11, 12, 13)</li> <li>- 장기적으로, 시군지역은 애들 인원이 많지 않으니 Wee에서 하고,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실행위처럼 Wee랑 우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사례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와 피해로 업무분담</li> <li>■ 학교의뢰와 부모의뢰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받은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Wee가) 하는게 맞다고봐요.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충격이 너무 크고 학업중단위기 피해아이들 경우는 지원센터에서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사례14)</li> <li>- 어느 학교는 피해, 가해 모두 저희에게 의뢰하시는데 저희는 피해가 여기를 방문하면 가해는 여기 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학생을 받을 때는 가해를 다른데로 의뢰했어요.(사례8)</li> <li>- 예를 들어 교육청은 어쨌든 학교 성격이 진짜 강해요. 장학사들도 보시면 학교지원을 먼저 해줘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의뢰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거라면 Wee센터에서 말고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주는 케이스는 지원센터로 가고</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의 단계별 업무분장</li> <li>■ Wee와의 차별화 필요</li> <li>■ 실행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와 CYS-Net의 공동협력</li> </ul> </li> <li>■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li> <li>■ 신분보장</li> <li>■ 부처간 협의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령이나 지침필요</li> <li>- 공식적인 업무지시</li> <li>- 연계저해시 패널티 적용필요</li> <li>- 또는 평가</li> </ul> </li> <li>- 기초적인 지침 필요</li> <li>■ 사업에서의 공유와 연계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서의 연계</li> </ul> </li> </ul>	<p>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사례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테면 예방, 개입, 사후단계 이런 식으로, 예방에서 지원센터가 하고, Wee센터 전문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하든지 사례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사례14)</li> <li>- 결국 Wee와 우리가 차별화되려면 제도권아이들과 제도권 밖의 아이들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해요(사례4, 5)</li> <li>- Wee랑 우리는 인력구조가 비슷합니다. 시군구는 Wee 센터가 인력도 더 많고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시군지역은 애들 인원이 많지 않으니 Wee에서 하고,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실행위처럼 Wee랑 우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사례5)</li> <li>-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차원이라고 학업중단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토대가 필요해요.(사례4, 5)</li> <li>- 개입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필요. 너무 중요합니다.(사례4, 5)</li> <li>- 복지지원법 안 훈령에도 조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는 거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4, 5)</li> <li>- 교과부 차원에서의 지침내지는 훈령이라도 반드시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사례14)</li> <li>- 근데 필수연계기관이라고 지정되어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안 해도 패널티가 없거든요. (중략) 각자 알아서 하도록은 하는데 패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나 이런 보완장치가 있어야 기본은 가니까요.(사례8, 14)</li> <li>- 법령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공문만 받아도 근거가 되어서 말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청 공문이 가장 효과적이다(사례c, d)</li> <li>-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 아주 기초적인 지침같은 걸 내려주었으면 좋겠다(사례A, B, C, D, E, F)</li> <li>- 사례라든가 업무거리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계하자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사례라든가 꺼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경찰하고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례를 같이 공유하</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공유</li> <li>- 사안별 연계</li>   <li>- 연계 이후 조치에 대한 서로의 회신과 공유 필요</li>   <li>■ 공동DB 구축 필요</li> <li>- 공동사업</li> <li>- 서로의 실적공유</li> <li>- 개인정보동의서 작성</li>   <li>■ 인력확충필요</li> <li>-연계담당 슈퍼바이저 필요</li>   <li>■ 직무연수, 교육의 공유</li> <li>- 기관별 교육 공유</li>   <li>■ 연계를 위한 사업비 책정</li> <li>- 예산과 인력, 제도적 장치</li> </ul>	<p>고 처리하는데서 왔던 거구요. 다른 기관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캠프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하면서 그렇게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를 공유하던가 그런게 있어야 실질적인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개발하는게...(사례6,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 리퍼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조치들이 있어야... 사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애가 종결시점이 되면 몇 회기 상담했다, 예정이다... 이런식으로 간단한 경과에 대한 회신이 학교나 Wee로 있어야.(사례14)</li> <li>- 시시콜콜 다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번 출석,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학교로 올거나 말거나 그런...(사례14)</li> <li>- 지금은 공동DB를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사례14)</li> <li>-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시도해볼적하다 (중략)</li> <li>-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학부모에게 정보동의를 받는 방안도 좋지않을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런 식.(사례14)</li> <li>- 지금 지원센터나 Wee센터나 넘쳐나는 사례와 대기자로 힘들어요. (중략) 일단 이 두 체계가 인력적인 면에서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계를 담당하는 인력.(사례1, 7, 14)</li> <li>-지원은 교육청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원하는대로 사업은 하지만, 슈퍼바이저가 있든지 해야 할거다.(사례10)</li> <li>- 전문연수, 학교폭력이다 뭐다 이런 전문연수할 때는 각 기관들이 오픈해서 해라. 상담원은 현재 출신성분이 뭐든 직위가 뭐든 선착순으로 받잖아요.(사례14)</li> <li>- 지역에서 연계 협의할 때 지원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처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지원금을...(사례8)</li> </ul>
<p>Wee의 연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li>   <li>■ 내가 못하는 일</li>   <li>■ 위기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반자는 직접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거라든지, 체험활동프로그램 같은거.(사례8)</li> <li>-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다른 기관이 어떤걸 하는지도 알아보고...(사례11)</li> <li>- 위기지원이나 위기개입같은 거. 지원센터는 딱 투입되고 지역</li> </ul>

항 목	내 용
	에 연계하는데 여기는 그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체제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매뉴얼도.(사례10)

# A Study on Network for the Solu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ed on CYS-Net · School · Wee Project -

## ABSTRACT

Recently school violence is being a serious issue in Korea. So earlier this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for a rapid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is plan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the principal, teacher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intervention of offenders, and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and communities of diverse interventions.

School violence related to the various systems of an individual, family, peers and community factors. Therefore, the comprehensive effort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prepared by the whole society, especially community safety networks not only by one or two organizations or authorities .

But there are a lot of points to be more than for each of the related inter-agency active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linked to complement or strengthen. To find this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o a couple of linkages of the key success factors and risk factors focus on the status of each inter-agency linkages - CYS-Net · School · Wee project. And this study searched the various measure required for the active linkage. As a result, these efforts will help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targeted practitioners of CYS-Net, Wee Project and School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arried out 2 tim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all three institutions were suffering from a heavy workload, because of

case referral and business contact after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The three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to work victims/offenders, parents counseling and support,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linkag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participation, such as varies.

Second, Each agency(CYS-Net · School · Wee Project) was engaged in linkage with community based safety network relatively vigorous. But CYS-Net and Wee project did not aligned closely with each other, It means the two agencies have similar nature and competitive landscape.

Third, for the success of linkage, administrator factors, person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while acting as the primary factor, background factors interact with factors of the association carried out virtuous cycle of linkage. And this study found successful and consistent linkage needed to be reinforced by institutional factors for .

Forth, linkage prepared by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especially CYS-Net), but they are still insufficient.

Above all, these causes were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school, a lack of information about community resources for CYS-Net, work overload, and the lack of operations community crisis system and so on. For the successful and consistent linkage, they would've built up trust for each other and be done to improve the recognition by the success of the problem solving experience and common recognition about linkages of concepts, the need for linkage will be shared.

Finally, for the successful school violence problem solving through the linkages between community resources,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reinforced. These are guidelines for linking made by local governments, and also departmental consultation for linkage, too. The budget and associated personnel for linkage should be supported.

In conclusion, this study conducted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targeted practitioners of CYS-Net, Wee Project and School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nvestigated linkage of the success factors and inhibitory factors and indicates the

direction for successful linkage. From now on, considering various levels of regional variation, detailed policy suggestions and a plan for the school violence problem solving will be presented.